

2021년 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

일 시 2021년10월18일(월)

장 소 경기도청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사·보임 관련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10월 18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에 위원님과 이형석 위원님, 국민의힘 이명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해당 위원에 민형배 위원님과 박찬대 위원님 그리고 박수영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그리고 박수영 위원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위원회의 이형석 위원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삼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MBC, YTN, 연합뉴스TV, KBS, OBS 등 많은 방송에서 생중계가 진행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관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도	지	사	이재명
행정	1부	지사	오병권
행정	2부	지사	이한규
평화	부	지사	이재강
대변인			김홍국
홍보	기획	관	이성호
소방	재난	본부장	이상규
감사		관	김희수
기획	조정	실장	최원용
안전	관리	실장	박원석
도시	주택	실장	홍지선
공정	국	장	김지혜
자치	행정	국	장
복지	국	장	문정희
보건	건강	국	장
환경	국	장	박성남
문화	체육	관광	국
농정	해양	국	장
			안동광

평 생 교 육 국 장 박승삼
 여 성 가 족 국 장 이순늬
 균 형 발 전 기 획 실 장 류인권
 경 제 실 장 류광열
 노 동 국 장 김종구
 건 설 국 장 이성훈
 교 통 국 장 허남석
 철 도 항 만 물 류 국 장 이계삼
 축 산 산 립 국 장 김성식
 북 부 소 방 재 난 본 부 장 임원섭
 평 화 협 력 국 장 신준영
 소 통 협 치 국 장 김영철
 정 책 기 획 관 허승범
 도 시 정 책 관 윤성진
 비 상 기 획 관 이순구
 경 제 기 획 관 정도영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경 기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김석철
 경 기 도 인 재 개 발 원 장 윤덕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경 기 도 수 자 원 본 부 장 김향숙
 경 기 도 건 설 본 부 장 한대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김덕섭
 사 무 국 장 김병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신현기
 사 무 국 장 정용환

○위원장 서영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기관장 인사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기관장께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세부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뒤에 각 증인들 소개 순서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아까우실 것 같아서 저도 가능하면 좀 생략해 가

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본격화된 코로나19가 해를 넘겨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대유행도 길어져서 경기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연대와 협력으로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면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합금지과 영업제한 조치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몸을 던져 헌신해 주신 의료진 그리고 방역 당국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과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때로는 정부정책을 보완·확대하고 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어 왔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상 곳곳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불법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으로 반칙과 특권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상습 체납자는 단호하게 처분하고 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름철이면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모두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하겠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 경기도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 공급은 무한히 늘어나지만 소비는 위축될 것입니다. 격차와 불균형이 만연한 이런 구조와 환경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룬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구조적 저성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본금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장한 금융제도가 더 이상 특정 고소득, 고자산가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신용·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이 삶의 위기 속에서 손 내밀 곳은 불법적인 고금리의 악덕 대부업자가 아닌 국가 그 자체여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해서 주거대란의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 위에 도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더해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산후조리비 지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친환경 학교급식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같은 도민의 정책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온 민선7기 경기도정의 이정표들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운영을 시작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이자 나눔과 배려의 문

화를 확산하는 촉매가 됐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경비·배달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 지급, 공공건설 노동자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보장,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청년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본대출 정책 등을 발굴해서 경기도는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적으로 기회나 자원이 한쪽에 편중되면 결국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에서도 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경기 북·동부 지역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연환경 보전 그다음에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민선7기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지금도 북·동부 지역에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규제 강도에 비례해서 정책과 예산에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3차에 걸쳐서 1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반환공여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수도권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균형발전 과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서 주민들의 삶의 불편을 줄이는 데도 꾸준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적 성장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와 경제적 기본권 보장,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토대로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성장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키우고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과 선도적인 산업 재편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사회적 전환을 위해서 국가의 뉴딜정책과 연계해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경기도형 뉴딜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판교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 등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소재·부품·장비사업의 연구지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구축,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 등 민간의 수요에 맞는 신산업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한 발짝 빠른 대응으로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 협력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에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오병권 행정부지사 외 경기도 간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완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잘 논의하시고 합의하셔서 저희들은 피켓이나 아니면 마스크 이런 것들 하지 않기로 잘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질의시간은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 7분, 5분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다음 위원님들도 제대로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시간과 또한 답변시간도 일정은 보장을 할 텐데 답변시간도 적당한 양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완수 위원님께서 간단히 1분 정도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지사님, 경기도는 왜 그렇게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18개 시도가 있지만 유독 경기도는 자료를 안 줘요.

저희들이 지사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라는 게 수감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경기도는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자료 제출이 안 돼 가지고 지난해 국감보고서를 우리가 채택할 때 경기도만큼은 고발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국정감사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했습니다마는 여당 위원들 반대로 고발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국정감사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가지고 지난 13일 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까지 방문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요즘은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불필요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꼭 그렇지 않는 않아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경기도가 유달리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지사님께서도 큰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그런 자세는 이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행안위 국회의원들에게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신상발언 삼아서?

○위원장 서영교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박완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인 또는 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요구들이 계속 관행으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지금 국민의힘 후보께서도 경남도지사를 하실 때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국감에 필요한 그러니까 국가가 위임한 사무 또 재정이 지원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는 100%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된 것은 4600건에 이르는 경기도 도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치사무나, 예를 들면 도지사의 휴가 일정이라든지 누구의 무슨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국정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제출을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장동 자료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동 관련 자료는 성남시 사무여서 성남시에 자료가 있지 경기도에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 자료를 못 봐 가지고 언론에서 막 보도하면 그것을 추적해서 파악하는 수준인데 성남시와 그다음에 성남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들 저희가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다 제출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대장동 관련된 자료만 해도 분량이 1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배려를 해 드렸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든 지자체에, 우선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대구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쪽에서 자료가 덜 왔다라고 하는 저희 통계에 따라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어쨌든 오늘 경기도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라고 하는 저희에게는 자

료가 왔는데 이 부분을 야당 위원님들과 여당 위원님들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제출할만큼 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또 미제출되었다고 하니깐 그것은 국감장 외의 장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의사진행발언을 끝내고 여당에서는 안 하셔도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고 배부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입니다.

지사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현안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기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은 결합개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지구에서는 택지개발하고 대장지구에서 10km 떨어진 이 지도에서 나옵니다마는 오른쪽 상단의 신흥동 구시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1만 7000평 정도, 당시 시장께서는 세금 한푼 안 들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2012년 6월 27일 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입니다. 결합개발을 시행하고 그리고 시민 세금 부담이 전혀 없이 공원화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다수 의석이었고 공공개발을 줄기차게 반대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게 공공개발로 갈지 아니면 민관 합작으로 갈지 잘 몰랐던 시기인데 이때에도 줄기차게……

그러니까 대장지구에서 공익을 환수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공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본시가지는 평지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50만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준으로 10년 이상 1공단이라고 하는 가장 비싼 시내 요충지인데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자는 민원이 있었고 저의 또 공약이기도 하고 김태년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 30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이 최하 6000억~7000억 정도가 예상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환수해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그래서 사전이익 확정 방식으로 대장동 공원화하는 재원 2500…… 성남1공단 공원화하는 비용으로 2561억 원 그리고 임대주택 부지에 1822억 원, 도합 4383억 원을 사전이익 확정 방식으로 환수를 했고 그리고 2017년 3월 달 부동산값이 들쭉거리는 그 시점에서 다시 추가로 대장동 지역의 터널 공사 등을 추가 환수했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간개발업자들이 소송을 할지 몰라서 부제소특약확약서를 징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공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공산당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게 원래는 100% 개발이익을 환수할 예정이었고 최대 한 7000억~8000억 정도 예정이 됐는데 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시의회가 당론으로 이것 민간개발을 허용해라, 공공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부결하고 공사 설립도 방해하고, 당시에 시장선거를 준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 이분까지도 민간개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결국은 민관 합동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개발 예정이익이 6200억 정도였는데 저희가 70%가 넘는 4400억을 환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공단 공원화하고 1822억 원을 상한으로 한 임대부지 또는 현금을 받기로 했고.

그런데 이게 2015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막 속출할 때였는데, 그 자료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때는 이 정도 저희가 환수했는데 그 후에 2017년이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기미가 있어서 이것도 하고, 그래프 하나 쥘 보세요.

보시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분양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했는데 17년이 되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시면 2017년 6월에 저희가 이 1100억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을 만한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이거 더 부담해라’ 해서 주변의 터널공사 같은 것을 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사실 한 80% 정도를 환수한 꼴이 됐는데……

○이해식 위원 예, 많이 알려진 사안……

○경기도지사 이재명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민간 측의 예정이익, 불확정 이익이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저희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만약에 떨어졌다면 저희는 그래도 이익은 확보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게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어떻든 저런 방식의 공공이익 환수가 결국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부채납과 같다면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패널을 준비했는데……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장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여기에 빨간색은 주택부지인데 파란색은 학교 그리고 녹색, 연두색은 공원녹지 그리고 하얀색이 도로입니다. 이런 기부채납 비율이 PPT 보시면 53.6%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기부채납 외에도 충분한, 5503억에 달하는 그런 공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정확하게 더 추가해 말씀을 좀 드리면, 통상적으로 도시 개발을 할 때 기부채납되는 공원·도로 이런 것들은 대개 한 4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53%로 사실은 다른 개발지역보다 훨씬 환수비율이 높은 것이지요.

○이해식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시장으로 출마하기 이전에는 민간개발을, 민간개발을 주장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당시에 제가 시장선거를 할 당시는 객관적으로는 LH가 이 지역을 공공개발을 공개적으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실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간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였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LH가 매우 횡포를 많이 부리던 때였습니다. 성남시에서.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재개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포크레인 가지고 LH 정문을 불법 시설물이라고 철거한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갈등이 심했는데, 당시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시 주도의 민간개발을…… 시 주도의 개발을 하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그때는 검토했던 겁니다. LH가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일정 포션을 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충실하게 해라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공약집에도 있습니다만 ‘성남시 주도의’ 이런 표현을 저희가 써 놓은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LH가 시행하던 이 해당 부지는 이미 공공개발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개발을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아마 주민들은 당시에 이미 땅을 민간개발업자한테 다 판 상태여서 아마 그런 주장을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6월 28일, 제가 취임하기 3일 전에……

○박완수 위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LH가 갑자기 포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공개발, 성남시 주도 공공개발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부산 북구강서구울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이 지사님, 제가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단군도 놀랄 그분의 괴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단군도 놀랄 만한 괴력을 지녔습니다. 한국 정치 참 부끄럽지요. 그분 이전 시대에는 이 기업에서 돈 뜯어가고 저 기업에서 돈 뜯어가는, 뜯어 쓰는 시대다. 이제 그분은 뜯어 쓰는 시

대는 가라, 이제 나는 만들어 쓴다.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아이,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 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들었다,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지요.

다음 볼까요.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입니다. 돈으로 무죄 사고, 즉 재판 거래 의혹을 말합니다.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불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분입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공직자 뉴 노멀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검사 사칭, 무고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전과 4범입니다. 형수 패륜 욕설, 여배우 스캔들,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고소 고발 남발 등 이런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뉴 노멀을 만들었지요.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그분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후로 여덟 차례나 당시 권순일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고액의 돈 약속도 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낸 것에 대한 사후수뢰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또 그분은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을 꾸렸던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은 400억 원을 지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생활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도 사생활입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하여서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유죄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까?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기업 S사의 그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분의 가면 뒤 실체를 보겠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변호사 때는 민간개발을 주장하더니 시장이 되고 난 후에는 공영개발을 주장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그분은 오히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 비율을 축소하고 국민에게는 기본 시리즈의 기본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변은 돈벼락을 맞고 그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승승장구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준법과 도덕이라는 가르침은 없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기면 무법도 법이 되고 무도함도 예가 되고 패륜도 출세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막 살아도 권력만 쥐면 된다는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자리도 그분에게는 온당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상현상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검 거부로 그분이 누구인지 입증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의도 옆 대나무숲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입니다. ‘우리 당 60년 역사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당에서 이런 사람이 대선후보라니 나 솔직히 참담하고 창피하다’, ‘음주운전에 전과 4범이 회관 인턴으로 지원했다 치자. 어떤 의원실이 그런 직원 받을까? 당연히 그런 수준의 이력은 일반 회사에 원서도 못 낸다’, ‘보통의 인성이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최소한의 인격 수준을 갖춘 생활인이라면 그런 욕은 알지도 못하고 남에게 할 생각도 못 한다’, ‘내가 욕한 게 아니야! 집권여당 대선주자 말씀이야!’, ‘너무 참담했다. 누가 알아볼까 봐 자리를 얼른 피했다. 이 퇴행이 우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까’ 이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먼저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우선 제가 잠깐……

질문 중에 아까 이해식 위원님처럼 주고받으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또 간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즉 질의를 하시고 일정 정도, 답변을 하실 시간은 일정 정도는 조금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답변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제 마지막 질문 내용은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이 뭔지를 제가 그 질문만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어쨌든 하여간 답변에 일정 공정성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 하시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범수 위원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야지.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둑을……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거 질문에 있던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답변하십시오.

질문하셨고,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어서 일정 시간은……

○서범수 위원 보좌진에 대한 질문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렇게는…… 이게 국정감사가……

위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정 정도 답변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지요. 김도읍 위원님 얘기하실 때도 다 들었으니까 좀 듣고 나서 시간은 어쨌든 좀 배분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지.

○위원장 서영교 우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리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김도읍 위원 돈을 준 사람은 이 지사님 최측근이에요. 돈을 준 사람이 이재명 최측근.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 제가 돈을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 줄지라도 고문치사, 고문치사가 아니라 유서대필 사건 조작했던 광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드릴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뭘 해먹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위원님, 분명한 사실은 위원님께서 소속했던, 소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습니다. 그 막는 바람에 저희가……

○김형동 위원 질문에 답하세요.

○박완주 위원 답하고 있잖아, 들어 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질문에 답하는 중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저도 1380만 명을 대표하는 도지사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면 좋겠고요.

○김도읍 위원 지사님, 참고로 지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반박 자료가 언론에 그대로, 지금 실시간으로 반박 자료 바로 나갑니다. 알고 답변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뭐 상관없습니다. 그것 당연히 하시겠지요.

○박완주 위원 위원장님, 7분 질의했으면 반이라도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서범수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박완주 위원 그런 법이 여태 있었습니다.

○김형동 위원 아까 질의·답변 포함해서 7분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 어떻든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일정량은 보장해야 되는 게 서로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적당한 시간으로 딱 끊어서 답변하고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지금 1분도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일단은 이 사건은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 그러면 1분만 주세요, 1분만 시간을 채서.

○위원장 서영교 제가 시간 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빨리 정리할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가능하면 저도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제 전부 다 조용히 해 주시고 경기도지사님 답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그 동생이 뇌물받아서 민간개발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LH에 국정감사에서 압력 넣어서 LH의 공공개발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제가 공공개발 하려고 했을 때 무려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 가지고 공공개발 막으면서 민간개발 강요했고, 이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것은 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개발이익 규모를 한번 보여 드리면 좋겠는데,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했고 그것을 못 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설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만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박완주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조금 더 하시고, 지금 이제 한 2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완주 위원 2분이 아니라 5분 했어요, 5분.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대정부질문도 아니고……

○위원장 서영교 43분에 시작해서 46분 됐는데 지금, 아까 주고받은 얘기 있어서 2분인데…… 그러면 정리하시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요, 그러면 하나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그렇게 하고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까 대선자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선을 전에도 치러 봤지만 저는 후원금 쓰고도 남아 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대선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돈이 수백 억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변호사비 말씀은 제가 미리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서한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위증죄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아예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요.

○위원장 서영교 짧게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수사과정, 그다음에 1심·2심·3심 재판 3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5건의 재판을 했고요.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무슨 30명 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무슨 어디 하우 선임하면 거기 몇 명 지정하시잖아요. 그것은 1명이지요.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었고요. 이 중에 1개 법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것 빼고 또 민변 전임 회장 세 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는 않고 서명해 주신 게 있어서 총 14명이구요.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박완수 위원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2억 팔천몇백만 원 낸 것도 저한테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뭐 400억 변호사비 줬다는 얘기를 비교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무슨 재판거래 말씀하셨는데……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이 말씀 마저 드릴게요. 이것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 여차피 수사과정에 다 나올 거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서영교 도지사님, 이제 그 내용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마저 그 부분만, 변호사비 얘기만 마저 하겠습니다. 한참 하실 것 같아서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시고 무슨 모 대법관하고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 가지고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유죄가 될 것 같다, 대법원 갈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그다음에 대법관이라고 하는 게 열세 분이 계신데 그중의 1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나머지 무슨 변호사비 얼마를 누구한테 대납을 시켰다 이런 얘기는 이것은 저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지나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김도읍 위원 그것은 지금 고발이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만……

○김도읍 위원 자, 보좌진…… 지사님, 보좌진의 외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우선…… 다음입니다.

○김형동 위원 아니, 저 답을 안 하셨는데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어떤 것어요?

○김형동 위원 방금 물어본 것에 답을 하셔야지요.

○김도읍 위원 정작 물어본 것은 대답 안 하고 엉뚱한 것을 대답하고 있어요.

○위원장 서영교 그 답변을 또 더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도읍 위원 아니, 보좌진의 외침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말만 하시고……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보좌진의 외침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요청을 하셨으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별적으로 답변을 들으시는구나.

○김도읍 위원 아니요, 질문한 것은 그것 하나였어요.

○위원장 서영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의견으로 치고받고 하시지 않습니까? 당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그렇고 또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 의견이 다른 게 당연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후보들 간에 치고받고 하는 것과 보좌진이 보는 외침하고는 다르지요.

○박완주 위원 그만 질의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자, 이제 답변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서범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30초만……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30초……

○김형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위원장 서영교 예, 30초.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도지사님하고 문재인 대통령후보 때지요, 간담회 때, 토론회 때의 그 장면을 보니까……

○박찬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 보고 하셔야지요.

○위원장 서영교 저한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발언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맙시다.

○박찬대 위원 저 보지 마시고요.

○서범수 위원 그 토론회 때 이 지사께서 어떻게 문재인 후보께 이야기를 했느냐면 A를 물으면 A를 대답하지 왜 A를 묻는데 B로 자꾸 대답하느냐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서범수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예, 의사진행발언 있으셨습니까.

또 있으십니까, 넘어가시겠습니까?

○이해식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똑같이 30초입니다.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저를 보고 해 주세요.

○이해식 위원 김도읍 위원님 발언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7분 동안 그렇게 장광설 비슷하게 늘어놓으시고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신 것을 질문이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그런 방식의 질문은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누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요구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드리고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우선 양쪽……

○김도읍 위원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서영교 김도읍 위원님, 제가 진행자입니다, 오늘.

양쪽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의견 간사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울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국정감사는 팩트에 근거해서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주장만이 아니고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녹취록상의 그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검사장이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던 것 도지사님도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백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을 근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팩트에 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은유적인 의미로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팩트에 근거한 그분들입니다.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입니다.

화천대유와 국민의힘 고위 법조인 간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돈이 간 관계들만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이 폭로하신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박근혜정부 민정수석, 그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정부에서 야당 추천으로 특검 되셨던 분입니다. 최재경,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자꾸 이재명 도지사하고 연관시키는데 실제로 이분은 박근혜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신 분이고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수남, 박근혜정부 검찰총장입니다. 강찬우 박근혜정부 수원지검 검사장, 이창재 박근혜정부 법무부차관, 김기동 박근혜정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이경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변호사, 자문변호사는 다 박근혜정부와 연관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문이었던 원유철 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구속이 되고 나니 본인을 넘어 부인까지 고문으로 고이 모셨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두 번의 대장동 사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돈 잔치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2010년에 이미 등장하는 천화동인의 남옥과 정영학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옥은 로비를 했다는 명목으로 기소되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한나라당 A 의원의 D 보좌관 잘 알고 있다. A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국토위 소속 B 의원과 C 의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넣고 이런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심은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때 2심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후보인 최재형 후보입니다.

○김형동 위원 후보 아닙니다.

○백혜련 위원 여태까지 후보셨잖아요, 그러면 부인하세요.

최재형 후보지요. 최재형 후보가 무죄를 썼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끝까지 유죄 갔다면, 더 명확하게 갔다면 이 기존 토건세력들을 처벌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더 유감스러운 것이 당시에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뇌물을 줬던 이 모 씨, 시행업자에 대한 공소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돈세탁을 한 내역이 나와요. 회계

자문료 명목으로, 정영학이 운영하는 회계법인에 회계자문료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넣고 돈을 계속 넣어서 그것을 남옥에게 지급해서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업자는요.

이 업자는 처벌받았는데 당시에 정영학도 사실은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에 대해서도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도 수사가 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정영학은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기획자로서 활동해 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그때 한 번 이것을 대장동 사건, 기존 토건세력을 처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이 남아서 이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시행업자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143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이 수사가 됐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대출사건을 다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이 업자도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대장동, 지금 기존 토건세력들을 처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도지사님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천화동인 일당들이 처음에 2015년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할 때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을 때 SK증권 이름으로 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 토건세력이라는 것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두 번의 수사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아셨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02년도에 소위 파크뷰 용도변경 사건 때문에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 용도변경을 통해서 부정비리 저지르고 토건 이익 취하는 것을 반대 운동을 하다가 제가 구속돼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전과 중의 하나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정말 돈 한 톨 안 들이고 PF를 통해서 이렇게 수천억씩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정말 놀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구조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사실은 부정부패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이 아주 그 판박이였던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초에 LH가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강심장이었기에 천몇백억대 돈을 빌려 가지고 다 땅을 사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빼서 제가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 수사 제대로 했으면 이것 다 공중분해 됐겠지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저축은행 사건이 문제가 돼 가지고 수원지검이 수사를 했을 때라도 제대로 좀 했더라면 사실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세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박완수 위원 아니, 질의시간이 아닌데 저것 화면에 틀어놓고 있으면 안 되지. 저것은 질의시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공공개발을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 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지요.

○박완수 위원 화면은 질의시간에 틀어야지 종료됐는데 틀면 되나.

○김민철 위원 김도읍 위원님 것도 그렇게 했어요.

○박완수 위원 아니, 그건 안 돼.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위원님, 아까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서로가 이야기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답변 중이니깐 잠깐…… 그렇게 하고, 아까도 답변하는 동안 이게 틀어져 있었어요, 대나무숲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발언을 중단시켰는데요, 우선 답변할 때는 그

냥 답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내용은 여야 간사님 간에 합의해 주시고 논의해 주십시오.

말씀 다시 더 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공공개발을 국힘이 막지 않아서 제가 기획한 대로 공공개발을 했더라면 사실 그들은 수용당하고 전부 다 없어졌겠지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까 부정비리의 주범이 마치 저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돈을 뺏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 돈을 자기가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냥 민간개발 허가해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지도 않았겠지요. 조용히 끝났을 거고요.

(장내소란)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이 개발사업을 기획할 당시에 2015년 기준으로 제가 기획한 것처럼 완전 공영으로 했더라면 예정이익 6156억 원이 전부 성남시 소유가 됐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이 강요하는 것처럼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6156억 원이 민간업자들 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 민관 공동개발을 통해서 70%가 넘는 4383억 원을 환수해서 민간개발업자 몫은 1770억에 불과했던 거예요.

○김형동 위원 저것은 이따가 답변하세요!

○박완수 위원 줄이세요, 답변.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2017년 6월에……

○박완수 위원 여기가 뭐 이재명 지사 홍보장이야!

○위원장 서영교 잠깐 계세요. 시간……

○김도읍 위원 뭘 잠깐 있어요!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켰기 때문에 110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킨 결과는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습니다.

○박완수 위원 답변 그만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만약에 완전 민영을 국힘이 원하는 대로, 토건업자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9575억이 전부 그들의 것이 됐겠지요.

○**김형동 위원** 저것은 기자회견장 가서 하시든
가요, 국감장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지금은 완전 공영
을 제 뜻대로 했더라면 이게 전부 우리 시민들의
것이 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불가피하게 민관
공동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60% 5500억, 사
실은 5800억쯤 됩니다만……

○**이영 위원** 답변시간 좀 정해 주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거라도 환수했고 이게
민간 몫이 됐는데 이 민간 몫에 해당되는 데서
돈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국힘 분들이십니
다.

○**김도읍 위원** 국민 70%가 이재명 지사 책임이
라는데!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우선 한 가지는……

○**김형동 위원** 2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그렇게 하는데요.

답변 다 끝나셨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위원장 서영교** 우선 질의는 하고 답변에 일정
시간은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답변하는 시간에 이걸 띄우는 것을
여야 모두 다 원치 않는다면 띄우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
요.

○**박완수 위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서영교** 잠깐,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갈
게요.

답변을 하는 중에 띄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맞다면…… 그러니까 7분 안에 있는 시간이라면
띄워 놓고요, 그렇지 않고 7분이 지나고는 답변
시간을 일정 정도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은
띄우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
고요, 양쪽 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 여야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하지
만 7분을 다 질문하셨을 때는 일정 시간은 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답변과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
서 위원님들께서도 주고받는 질의응답이 되면 좋

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하고 이러는 시간에는 되도록이
면, 저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질의
할 때는 얘기하지 않아 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실 게…… 간사님이 하시
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형동 위원** 간사님이 하시지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간사님이 하시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박완수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는 데 제가 그거
할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다 여야 협조를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 장소는 경기도 국정에 대한
국정감사장입니다. 지사님은 1800만의 대표라고
하지만 우리는 5000만의 대표예요.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민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 이재명 도지사 개인 홍보장이 아닙니다.

○**김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서영교** 저를 향해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아까 위원
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일문일답식으로 하
면 답변시간을 질문시간 안에 끝내도록 해 주시
고 만약에 7분을 다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시간
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시간을 정하세
요,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지금 질문시간 7
분 하면 답변 8분 해요, 8분. 이렇게 해 가지
고…… 우리가 답변 들으러 온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시간은
겠습니다, 위원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시간은 제가 켜고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실 텐데 시간을 제
가 안 켜겠습니까? 켜고요. 우선 그 얘기는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를 보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 어쨌든 진행을 원만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죽 해서 지사님보고 1분 남겨 놓고, 몇 초 남겨
놓고 답변해라 이럴 때 그 답변만 하라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적당하게 주셔서 답변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화면 띄우는 것은 여야 간사가 합

의를 해서 질문이 끝나면 화면을 안 띄운다든가 이렇게 할 테니까 위원장께서 여야 관계없이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짧은 것 답을 못 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방해를 해서 가지고 못 했는데……

○박완수 위원 지금 답변시간 아니에요. 지금 답변시간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도지사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서 또 답변시간이 있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오늘 하루가 길거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직 많이 남았잖아. 민주당 위원들 다 짜고 치는 것 준비돼 있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김도읍 위원님이 안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박재호 위원 아니, 짜고 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 서영교 자, 여러분……

○김도읍 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까지 이야기할까, 그러면?

○위원장 서영교 김도읍 위원님!

○박완주 위원 박수영 위원님까지 바꿔 가지고 오셨잖아.

○위원장 서영교 박완주 위원님!

오늘 전국의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도 그렇게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서로가 다 질문과 답변이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오늘 진행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루 종일 경기도 국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국감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7분, 5분으로 질의를 하고요. 오후 저녁 때쯤에는 경기남부와 북부 경찰청 국감이 있습니다. 국민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남부·북부경찰청 국감이 좀 짧아지는 한계는 있겠으나 오늘 진행은 6시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 경찰청 국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박수영 위원입니다.

저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라고 하는, 일부 민간인들이 무려 8500억 원을 해 처먹은 이 사건, 이 사건의 운명의 날이 2015년 5월 29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9일이 무슨 날이냐, 성남의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날입니다.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너무 엉터리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기본 틀, 누가 얼마를 먹을 것인지, 국민들이 어려워하시는 보통주와 우선주는 어떻게 되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얼마를 먹을 것인지 하는 것들이 결정된 날입니다. 그때 이사회 의사록 속기록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변호사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회의 할 때까지 변호사 의견이 안 와서 금일 16시까지 최종의견서 받기로 했다. 그다음에 협약서안은 언제 나눠줬느냐 하면 회의 당일 날 그 자리에서 나눠줬습니다. 협약서안이 대외비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맡으신 분이 사외이사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수천억 원이—결국 8500억 원이 왔다 갔다 했지요—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서류 하나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이사회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우려를 합니다.

이것은 저는 전형적인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 보고서도 보지 아니하고 당일 날 나눠 주고 그대로 결정을 밀어붙여서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을까요? 유동규, 김문기 등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지사님, 당시 시장이셨는데 이 사건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어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수영 위원 여기서 주주 협약이 이루어졌고 주주 협약 내용에는 우선주와 보통주하고 나누어져서 못 가져가고 이런 내용들, 지금 문제된 것 전부 다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당시에 지시한 사항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성남도시공사……

○박수영 위원 자, 제 질문은 보고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입니다. 심플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보고 내용을 특정을 해 주면 제가 그 특정된 보고를 받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박수영 위원 제가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지요.

지사님이 열 번의 보고를 이 사건 관련해서 받았는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여기 다 가지고 계시네요.

○박수영 위원 5월 29일 날 도개공 이사회가 있을 때는 이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데 그 전이나 후에 보고받으신 문서를 성남시가 제출을 하지 않고 있거나 보고를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쪽지 보고만 받고 공식 문서가 없거나 셋 중의 하나인데 특검을 하면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개공 이사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까요?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인데……

○박수영 위원 간단하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여기 보시는 대로 도시공사에 이 사업을 2013년 3월에 통째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이 직할하려고 하다가 공공개발을 못 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민관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박수영 위원 지사님, 아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A를 물으면 A 답 좀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A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박수영 위원 시간만 자꾸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답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2013년 3월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거고……

○박수영 위원 나중에 답해 주시고요. 제 질문 시간 잡아먹지 마시고,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세부 진행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어요.

○박수영 위원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지사님, 100만 원 드는 보도블럭도 시장 결제 없이는 안 된다고 SNS에 올리셨는데 1조 5000억 짜리 대장동 개발을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세부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박수영 위원 세부 보고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결정된 게 5월 29일입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글썄, 답할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릴 텐데……

○박수영 위원 답할 시간은 끝나고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좌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동규 씨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우동규 씨는 측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도시공사 이외에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1호로 임명하신 산하기관장이 우동규 씨입니다. 이때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우동규의 이력서를 보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증언도 있고 여기 증거자료인 우동규 사장에 대한 이력서를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또 석사 논문을 이분이 썼는데 지사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석사논문의 감사는 아주 가까운 가족, 친척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지사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 나가서 증언도 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많은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측근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측근이 아닌데 이분이 지금 8억을 받은 것으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700억을 받았다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지요.

○박수영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어떻게 그런 부패사범을 사면을 합니까?

○박수영 위원 그다음에 정진상 씨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럼요. 이분은……

○박수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 되면……

○박수영 위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국민의힘은 사퇴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 정도 답변하시면 국민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지요.

○박수영 위원 답변은 기회 있으니까 다음 또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렇고 나도 그 사람 모른다면 거짓말인 거지’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3년 정도 살다 나오겠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 잘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김만배 씨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저를 인터뷰한 일이 있어서……

○박수영 위원 이분도 징역 하면 무기징역 갈 텐데 특별사면 안 하시겠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절대 안 되지요. 엄벌해야지요.

○박수영 위원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장님 제가 설명할 기회를 잠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우선은 첫 번째로 아까 보고받았나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한 환수하느냐를 설계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위례신도시 경험상 1100억 원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5% 투자하고 이익의 50%를 받기로 했는데 1100억 원이 줄어 줄어 줄어서 나중에 300억 되어 가지고 150억 받고 말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비용 부풀리기와 부정거래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는 게 첫 번째 지침이었고, 두 번째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시켜라.

세 번째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데는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

네 번째로는 먹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 부채소특약을 해라.

다섯 번째, 청렴서약을 받아 가지고 부정거래 흔적이 발생되면 무조건 협약을 해지하고 100%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제 설계였고요.

그 안에서……

○박완수 위원 질문에 관한 답변만 하세요, 질문에 관한 답변만.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 답변 중이지 않습니다?

○박완수 위원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시잖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답변 드리는 중이잖아요.

아니, 왜 보고를 했는지를……

○박완수 위원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시잖아요,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자꾸 막는다고……

○위원장 서영교 빨리 진행을 해야 답변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일방적으로 주장하신다고 그게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지침을 도시개발사업단과 도시공사 합동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강조한 일이 있고,

이 사업을 통째로 위탁을 하면서 일부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SPC 만들어라, 출자법인 만들어라 뭐가 바뀌었다는데 같은 말이고요. 민간에 절대 허용하지 마라.

그리고 통째로 넘겼기 때문에 사실 세부 업무는 저희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고 대체적인 결론만 받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 받은 보고의 내용은 3개 금융기관이 응했다, 그중에 1800억짜리 임대아파트 부지와 1공단 공사 비용을 확보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얘기 정도를 보고받은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할 이유도 없고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광산구율의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지사님 애 많이 쓰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지금 한참 선거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책임감 때문에 또 도민들하고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국감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지사님, 요즘 많이 답답하고 그러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무래도 본질과 줄기를 빼고 지엽말단을 가지고 왜곡하고 가짜뉴스도 많고 이런 정치적 공세도 많아서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결국 국민들께서 이 본질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저도 오늘 이 국감을 통해서 그런 본질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국감이 시작된 이래, 이 사건 터진 이래 제가 줄곧 주장을 했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지자체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모두가 압니다. 이 개발사업의 구조와 본질상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팩트가 드러날수록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창조적인 정책성과와 추진력, 유능함과 청렴함 같은 이재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 비리와 부패의 주역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분도 저는 그들 중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됐는데 여기에도 다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돈 먹은 자가 범인입니다.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특검 하자고 주장하는 쪽에 틀림없이 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지사님께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국감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 분이 ‘성남 대장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본질’이라는 이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드릴 텐데요.

이 신문사의 부동산연구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 모 기자인데 이 사건이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 엉뚱하게 흐르고 답답해서 그냥 못 보겠다 싶어 가지고 16개 항목으로 구성한 보고서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취재해 온 경험과 양심에 따라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5쪽짜리 보고서의 1, 4, 8, 9, 10 이 내용을 죽 보면요 이 소장은 ‘대한민국 최고 최상의 역대급 성공 사례다. 이 사안의 본질은 화천대유의 부도덕성 때문이다. 이재명과 연계시키려고 하겠지만 안 될 것이다. 성남시는 민간 파트너의 부정비리에 연루되고 싶어도 연루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화천대유의 부정한 청탁, 로비, 뇌물 공여 등은 그들의 부정비리일 뿐이고 이것은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고 처벌하면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고서 내용?

○경기도지사 이재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명확하게 진상을 보여 줍니다.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이걸 다 가졌을 텐데 제가 이걸 다 뺐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원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공공개발, 민간개발을 섞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압도적 고액을 저희가 환수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가졌잖아요. 다행히 부동산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이만큼 늘어나서 이걸 나눠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저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많겠어요.

예를 들면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김만배 씨하고 화천대유 사장을 제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받으면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저보고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켜서 자기들은 공산당이라고 사실은 욕했다, 사실은 더 심한 말을 한 건데요.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것 이해관계자들이 다 국민의힘에 가까운, 소위 보수 야당에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돈을 주거나 이익을 줬으면 저를 가만 뒀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지사님, 제가 이 보고서가 왜 타당한지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시장님 이전에 민선 성남시장들이 모두 구속됐었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다르지요, 지금? 아주 청렴하게 해 오셨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부동산 비리에 얽힌 전임들과 다르게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워서 5000억이 넘는 개발이익 공익 환수를 해내셨지요. 그래서 역대급 최대 최고 성과라고 하는 아까 그 부동산연구소장의 표현이 맞는 거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5500억이 아니고 7200억인가까지 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환수한 게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힘 토건비리 카르텔하고 이재명 시장이 사투를 벌였고 거기 나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대장동에서 한탕 해 보려던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었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게 때문에 이 세력과 싸우느라고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그분도 아마 그들 중에 있어야 맞겠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연하지요. 만약에 제가 소유자면 왜 그러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제가 설계를……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그냥 다 허가해 줘 버리고 추가 환수도 하지 말고……

부산 엘시티 있지 않습니까? 엘시티는 100%

민간업자가 다 가졌는데 거기는 시 돈으로 기반 시설까지 해 줬잖아요, 1000억 원.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그쪽에 있는 게 맞네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설계 안에 설계가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 설계하고 그다음에 도둑 설계가 있다고 제가 줄기차게 지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그 점 보고 아주 기발하다 생각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개발이익 환수 설계는 성남시장으로서 지사님이 하신 게 맞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공공환수 설계를 한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이 도둑 설계에 성남시장으로서 관여한 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개입하면 직권남용이지요?

○박완수 위원 시장 결재 사항인데 그게 개입하고 안 하고가…… 의무인데, 책임인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게…… 국민의힘 위원님들 일부러 그렇게 방해하지 마시고요.

○김도읍 위원 방해 안 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백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데 정영확인가, 무슨 육인가 하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토건세력 배제가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뒤에 철저히 숨었다’,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민형배 위원 하여튼 이 도둑 설계에 티끌만큼도 관여한 적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삼중 장막 뒤에 숨었는데 첫째는 은행 뒤에 숨었고 두 번째는 금전신탁, SK 뒤에 숨었고, SK 안에서도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는 세 번째……

○민형배 위원 예, 지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 도둑 설계의 주역 가운데 하나 있을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화천대유의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고문을 맡은 이정재 변호사마저도 저 보시는 대로 ‘이재명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있을 턱 없지. 왜냐하면 전부 자금이 어찌고 저찌고, 이재명 지사

싫지만 옆에 썩우면 안 돼' 이렇게 했던 말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조와 본질상 도둑 설계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덮어씌우려고 할까, 그 이유가 뭔지 느낌을 그리고 분석하신 바가 있으면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100% 민간에 주자고 한 게 국민의힘의 공식 당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동생이 돈 받고 뇌물 받고 감옥 갔습니다.

LH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력 때문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포기해서 이것 다 민간이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공공개발을 해서 이것 다 환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막은 게 이들이고, 이 중에 예를 들면 이 개발이익을 일부 취득한 뒤에 이걸 누가 나눠 가질 것인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남육 변호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정영학인가 이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토건세력 배제 방침을 이재명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이 문제 아닙니까, 돈? 이 이익을 누가 가졌느냐, 다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든다면 제가 마을 동네 머슴 입장에서 도둑떼들이 와서 막 마을 물건을 훔쳐가기에 제가 몇 사람을 조직해 가지고 그중에 뺏으러 가서 다 뺏아 오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 뺏게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방해한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70%, 50%, 60%밖에 못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 왜 그것 다 못 뺏아 왔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도둑이 뭉뚱이 든 꼴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꾸 여러 말씀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인사권자 입장에서 이 도둑들

의 물건을 되찾아 오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그중의 일부가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에 반해서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을 거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 잘못된 것 또 제가 지휘하고 있는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집값 때문에 고통받고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일할 맛 안 나고 소외감, 배제감 느끼고 분노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지만 어쨌든 100% 이렇게 환수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입니다.

○박완수 위원 위원장님, 질문시간에 답변 다 했어요.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점심 때 들지요.

○박완수 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제도적 한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공개발을 못 하는 문제……

○김형동 위원 실망입니다, 위원장님.

○박완수 위원 우리가 개인 홍보 들으려고 왔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국민의힘이 방해해서 공공개발을 못 하는 문제, 이런 제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도 극복하고 제가 100% 환수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을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막아서 공공개발을 못 하는 상황이 없도록 제도도 만들고 또 앞으로 개발이익 완전 환수도 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 김용판 위원입니다.

경기도는 16조가 넘는 막대한 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과 직원들의 철학과 품

성을 살펴보는 것은 국정감사 위원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도청 공무원들이 조폭과 부적절한 뇌물 거래했다고 그러면 징계 대상이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판 위원 조폭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이 밝혀졌다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징계 대상일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박용승 씨인데 아는 분 맞습니까? 성남시 1·2·3선 의원 하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에 시의원 출마하신 분 같습니다.

○김용판 위원 예, 부의장도 했고 그렇습니다. 친박연대 소속으로 국회의원에도 출마한 적이 있지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용승 씨 아들인 박철민 씨인데 압니까, 모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글썄, 모르겠는데요.

○김용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 씨인데 이분은 아시겠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사진을 찍어 준 일이 있습니다.

○김용판 위원 예, 안다는 뜻이겠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용판 위원 그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괄호 안에 있는 게 이태호 씨인데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시장실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 줬습니다.

○김용판 위원 압니까, 모릅니까? 다만 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연히 그 앞에 있으니까 알지요.

○김용판 위원 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용판 위원 좋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선거할 때요……

○김용판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질의할 때 그때 답변하시면 돼요.

본 위원이 언급한 박철민, 이준석, 이태호는 모

두 국제마피아 소속 핵심 조직원들이고 이 중 이준석, 박철민은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의 대표와 핵심 직원이었습니다. 표에도 나오지요.

지사께서는 장영하 변호사 아시나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알지요. 저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은 분이십니다.

○김용판 위원 예, 제가 장영하 변호사에게 며칠 전 전화를 했습니다. 국감에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협조를 좀 해 달라 부탁했지요. 마침 장 변호사께서는 최근에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며 코마트레이드의 직원이었던 박철민의 요청에 의해서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공익제보를 받았고 본 위원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철민 씨는 과거 국제마피아파의 일원이었지만 조직을 탈퇴해서 조폭 45명을 검거하는 데 경찰서에 적극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저기 나오지요.

박철민 씨는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3종 총 17쪽 분량을 제보하였는데 모두 다 금년 10월 4일, 6일, 9일 최근에 작성한 것입니다. 이 중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는 원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원본이고 공익제보서만 사본을 받았습니다.

사실확인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 들은 다음에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의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와의 관계는 2007년 이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관계가 있어 왔고 수천 개의 사건 중 하나뿐이라고 대답을 회피하지만 유착관계에 있어서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관계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폭력조직인 저희 국제마피아파와 유대관계를 가졌고 이재명 시장 선거 당시, 아까 사진에서 본 이태호 국제마피아파 큰형님이 합류하게 되면서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태호 형님이 이재명 시장을 밀어라라고 밀의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했고, 준석 형님을—이준석을 말합니다—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연결을 시켜준 것도 이태호 형님입니다. 태호 형님은 당시에 이준석 형님이 불법 도박사이트로 큰돈을 벌었고 이 사실을 알고 이재명 도지사의 스폰이 되어 주라고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와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주었고 국제마피아와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을 코마트레이드 계열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 놓고 월급을 주기도 하였으며 코마트레이드는 국제마피아 조직원 소굴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구단주로 있는 FC성남에 코마트레이드가 후원협약을 하여 합법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설계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진술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코마트레이드는 직원들도 모두 국제마피아와 현역 조직원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리, 팀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이재명 지사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성남시 우수기업으로 표창하고 선정하는 특혜를 주고 건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다른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쳤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와 수괴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일 경우 저 박철민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겠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겠습니다.

이상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대장동과 조폭과의 관계 등 지사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이게 허언증이 있어서 허위진술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공익제보한 그 비장함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본 위원은 코마트레이드 게이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돈뭉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녹음은 상의를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판 위원 자, 다음에……

○박완주 위원 그냥 들어 보세요, 우선.

○경기도지사 이재명 들어 보시지요, 뭐.

○박완주 위원 아니, 녹음이 아니잖아요.

○김용판 위원 녹음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교 녹음 아니지요?

○김용판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접 박철민 씨가 현금 1억 5000을 주고 친구도 줬다고 합니다. 특히 진짜 문제는 코마트레이드에서는 이 지사의 측근 계좌에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답을 드릴까요?

○김용판 위원 한번 들어 보세요.

공익제보한 박철민 씨도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장영하 변호사도 곧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지사께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다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특검에, 대장동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서영교 우선 이 질의하셨고 일정 정도 시간은 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요.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일단 결론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2010년에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무슨 종북몰이부터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제가 근무기간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을 당했던군요, 통계를 내 보니까.

제가 2016년에는 성남시 복지정책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충돌이 발생하면서 광화문에서 단식농성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것 비슷한 거라도 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판 위원 천천히 말…… 곧 고발할 거니까 당당하시다면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연하지요. 원하든 안 하

든 수사를 하면 당연히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의무이고……

○김용판 위원 명명백백히 밝혀질 겁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 주고……

○김용판 위원 이래서 면책특권이 필요한 겁니다. 맨날 고소, 웬만한 일에는 다 고소 고발하지 않습니까?

○박완수 위원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런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김도읍 위원 당황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내소란)

○김형동 위원 이것은 제보를 전달한 것이지 우리 위원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박완주 위원 좀 들어 보세요!

○박재호 위원 들어 봅시다.

○백혜련 위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였던 사안이에요.

○김용판 위원 공익제보자가 자기 이름과 사진과 얼굴을 다 보여준 거잖아요!

○박완주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난장판으로 운영하시는 것 옳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위원장 서영교 답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저한테도 답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만약의 경우…… 아까 보니까 내용이 아주 재미있었는데,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 이런 뜻 같은데 그것 쉽게 확인되겠네요.

○김용판 위원 현금으로 준 것도 있고 측근 계좌로 준 것도 있다고 본인이 증언하고 통장도 있다고 그러네요. 지켜보시면 돼요.

○위원장 서영교 답변 들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제가 답을 좀 드

릴게요. 자꾸 무슨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활용해서 이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제시해 가지고 명예훼손하고 선거에 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 사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당연히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것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좀 심하게 하셨던 것 또 그렇다고 제가 또 심하게 한 것 제가 유감 표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더라도 개인의 명예에 관한, 또 저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는, 소위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김용판 위원 아니, 왜 근거가 없습니까, 자필 확인서가 있는데? 이것 지금 원본입니다, 원본. 사본 아니에요, 원본이에요.

○위원장 서영교 정리하셨습니까?

○박완주 위원 남부청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판 위원 뭘 남부청이란 말입니까? 이게 원본인데, 필체도 다 있는데.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남부경찰서에 가서 하시면 되지요.

○박완수 위원 조용히 하세요.

○김용판 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고발되니까.

○한병도 위원 기자회견 하세요, 기자회견을.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기자회견 같은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완수 위원 박완주 위원 조용히 하세요.

.....

○위원장 서영교 자, 오늘은 경기도 국정감사 날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경기도 국정감사 날입니다. 국가에서 지원된 예산과 국가사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의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 행안위원님들 나중에 인사드리고요.

박찬대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전직 강사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은 적 있는데 오늘 질의의 내용들을 보니까 전직 작가로 나가셔도 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바로 우리 지역구 옆에 갑자기 안상수 후보와 윤상현 후보 사이에 있었던 함바왕 유상봉과 관련돼 있던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얼마 전에 아들이 50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의원직 사퇴하고 했던 곽상도 의원이 관여했었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드러나게 될 텐데요, 아무튼 우리 행안위 분위기에 익숙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택도 없는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하루밖에 안 걸렸다. 혹시 특혜 준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분명하게 배점들이 1000점에 나눠져 있습니다. 하루 만에 선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 1박 2일 정도면 충분히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국토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을 때 1박 2일 이상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 업계의 상식을 전혀 모르는 다른 쪽 업계의 상식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AMC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것 혹시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PFV, 즉 부동산 등 파이낸싱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지는 회사는 법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이 됩니다. 자금 집행이라든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자산관리 회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오래된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PFV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관리회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업체가 이 큰 사업을 한단 말이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업계의 상식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577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자본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많은 국민들을 의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업계는 투자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자기자본수익률보다. 1조 50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얼마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냐, ROI라든가 ROA 또는 매출액총이익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서로 생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무리스럽게 넣기 때문에 이쪽의 상식이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여러 토론회를 가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좌절시킬까 걱정스러워서 웃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사업자를 구성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의외로 건설사가 빠져 있어요. 보통 대규모의 부동산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누군가 돈을 대야 되고 보증도 해야 되고 기초사업비도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건설사가 빠져 있고 금융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은 시장님이실 때 처음에 공공이익 환수 설계를 하시는 단계에서 왜 고려하셨는지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실제 사례로 보면 백운밸리라고 하는 데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했는데 건설사들이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자금조달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됐고요. 거기다가 결국은 자금조달이 안 되니까 의왕시가 재정보증을 사실상 하는 상황까지 가서 지금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원래 2650억이 남기로 했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 이전에 저도 위례신도시 사업도 해봤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자금조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PF의 핵심은 돈 조달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사들은 불확실하고 대형 금융사 위주로 하게 된 것은 안전성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박찬대 위원 그렇지요. 아까 자기자본수익률이 이쪽 업계에서는 큰 의미를 못 갖는다고 하

는 게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50억의 자본금이 라든가 1000만 원, 5000만 원의 자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1조 5000억 상당의 사업비 중에서 얼마의 PF를 일으킬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남의 사업파트너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AMC가 아니고 금융기관 컨소시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별 회사들이 했다면 아마 선정 못 됐을 겁니다. 개별 회사의 비중이 높다든지 했으면 아마 심사에서도 실적 있는 대형 금융사가 많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된 건데 개발업자들은 1% 지분, 6% 지분 뒤에 숨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내부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은행들이 수천억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익배분을 얼마나 받을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은행과 거기 참여사, 주관사 여기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지요.

저는 사실은 하나은행그룹이 왜 이렇게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박찬대 위원 사업의 파트너가 화천대유였나요, 아니면 하나금융 컨소시엄이었나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하나금융 컨소시엄이지요.

○박찬대 위원 주관사 회사도 하나은행이었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주관사가 하나은행이고 거기 참여사들도 하나그룹 관계사들이고 SK증권이 나중에 보니까 6%, 화천대유는 0.9%인가 1%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찬대 위원 사실 분배구조는 의결권 기준으로 해서는 50 대 50으로 나눈 거고요. 그 50대 안에서 금융기관들은 43%를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투자자는 7%를 갖고 있는데 결국 50%의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서 얼마의 배당을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례신도시는 저희가 5%,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1100억 원의 550억을 배당받기로 약정이 돼 있었는데 비율로 약정하는 바람에 비용을 부풀려서 결국 나중에 300억밖에 안 남았다 이러는 바람에 저희가 150억밖에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5% 투자하고

50%를 받은 거지요.

아까 대장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장동도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저희가 50% 플러스 1주인데 처음 계획은 이렇게 71%를 저희가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비율하고 이익배당비율은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있는 부분인데 비율로 하지 않고 왜 고정으로 했느냐, 비율로 하면 건설사들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대출자금의 이자를 부풀리는 건 약정하면 됩니다. 1년에 이자를 50%, 30% 줄 수도 있는 거고 수수료 이름으로 막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비도 평당 500만 원인데 700만 원 계약했다고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을 다 빼면 사실 이익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익을 하게 했던 겁니다.

○박찬대 위원 오후에는 설계구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박찬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여야 위원님들과 간사님들과 상의를 했는데요. 오영훈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하고 오전 질의는, 박완주 위원님은 오후에 첫 질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주 제주시을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선출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정책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핵심 공약으로 주장을 해 왔고 여전히 그런 입장이 변치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의 기본적인 신념은 미래에 인공지능 사회로 전환될 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선순환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저는 기본소득이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 다만 지금 당장은 재정 여력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소액으로 시행해서 조금씩 늘려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2023년은 청년을 제외한 국민께 연 25만 원, 청년에게는 연 125만 원, 2024년 이후에는 청년 제외한 국민에게는 100만 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분들에게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정도, 취업의 상태, 근로의사와 구직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다 같이 준다는 얘이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소득의 개념이지요.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정강정책과 당헌 총칙에 보면 보편적 복지체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헌의 정책기조 자체가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한 다라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 수준이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었을 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작동원리, 기본소득의 작동원리와 보편적 복지의 작동원리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상충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소득의 정책이 우리 당의 정강정책과 당헌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합되게 정비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의 의견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편복지를 한다고 하는 게 보편복지 이외 일체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첫째 아닐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편복지의 개념 중에는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재벌 손자도 받지 않습니까?

○오영훈 위원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청년수당

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플러스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얹어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보편복지를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라고 볼 수도 있고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복합성이 있는 거지요.

○오영훈 위원 그 작동원리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당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비한 점이 있는지 또 조정을 해야 될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의 공약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당의 후보의 공약도 있는 것이고 당의 공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하나 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해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의견을 저는 좁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충분히 의견 나누고 또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요.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후보이셨던 이낙연 후보께서 아마 당대표 시절에 신복지 구상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훌륭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소득, 돌봄, 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의 기준 자체를 상향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실 신복지정책은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만의 공약이 아니고 더불어

민주당이 주력해서 만든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실 거의 당의 정책이기도 했고 그 내용 자체도 재원조달에 대해서 고려할 점들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래서 기본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화면을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산업연구원에서에서 제시했던 코로나19 발생이 지역별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입니다. 다행히 경기도가 가장 좋은 성적을 냈지요. 그렇지만 제주 인천 울산 충북 등은 가장 안 좋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떤든 서울 수도권이 좋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보시면 지방세 증가율을 보면 상황이 안 좋았던, 경제성장률이 안 좋았던 곳의 지방세 증가율도 여전히 낮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오영훈 위원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 지역별 지방교부세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방은 낮고 수도권은 높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을 지표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즉 지역별 이전재원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방세 증가율도 낮았고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가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던 예를 들어서 제주나 울산 이쪽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차지하게 되고 서울은 64.9% 증가, 경기는 52.3% 증가 이런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별 이전재원을 균형 있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사님 대안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제주 출신이시고 또 제주가 최근에 상황이 나빠다 보니까 아마 균형발전 문제에 관심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전국 순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현지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같이 좀 살자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국감을 와 계시지만 경기도에 약간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유독 유일하게 1년에 인구가 18만 명씩 늘어납니다. 엄청난 대규모 시 하나씩 생겨 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기반시설 부담 때문에 고통이 크지요.

그래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재원의 재분배라든지 아니면 SOC 구축이라든지 또는 정책적 배려에 있어서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나 또 가산점, 특별한 배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투자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발전 자체를 가로막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의 주요 역할이 공정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지역과 지역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방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투자나 정책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약간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도 많이 생각하시고 또 실천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또 요구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셨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영훈 위원님이 이번 국정감사 내내 지역균형발전 얘기하셨거든요. 가 봐야 한 시간 비행기 타면 가는 곳인데 이렇게 천지 차이, 저희가 금요일은 전남에 다녀왔고 신안에 있는 섬까지 다녀왔는데요. 그런 섬들이 국가 성장동력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야 없이 국회와 정부가 같이 전국에 제대로 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예산 배분을 좀 더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말씀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설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오전 질의에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경기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먼저 영화 한 편 보고 가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박재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자, 됐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신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타당하게 그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게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잠시만요, 질문 안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이 아닌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것은 아니지요.

○서범수 위원 말씀 계속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 본인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서 왜 위원 질의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박완주 위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지.

○서범수 위원 아니, 사실관계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잠시만요. 제 질문입니다, 제 질문.

○위원장 서영교 도지사님, 또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시간 다시 조정해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완수 위원 위원장님, 1분.

○서범수 위원 시간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여기서 시작했어요. 말씀하세요.

○서범수 위원 아니요, 다시 조정하세요.

○박재호 위원 뭘 다시 조정해요.

○백혜련 위원 이게 맞지요.

○서범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천화동인,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설계를 했니 안 했니, 물론 안 한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알고 있습니다만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이 민간업자들이 도대체 어떤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야 1억을 투자를 해서 1208억, 1200억을 갖고 가느냐. 그리고 그 대부분의 민간업체의 등본상 대표나 실소유주 보면 전부 우리 그분이나 또는 초기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업자들입니다.

지사님,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왜 죄악시합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불로소득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기 때문이지요.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불로소득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LH 투기 사건으로 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넘어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자는 사실은 우리 지사님 아니십니까? 이 국민들의 좌절감, 상실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현실 정치 권력 구도 때문에 실제로 공공개발 대상이 있고……

○서범수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국민들께 사과 말씀이라도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사과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위원님……

○서범수 위원 아니, 말씀만 대답만 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한 30초만 주세요.

○서범수 위원 아니아니, 30초를……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도적 한계나……

○서범수 위원 제 이야기에 대답만 하세요.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도적인 한계나 현실적인

한게 때문에……

○서범수 위원 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100%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유감스러운 겁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분노감을 자아내고 좌절감을 갖게 했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내 책임이다’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큰 정치인이 안 되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의인 머슴들끼리 잘못했으니까.

○서범수 위원 됐습니다.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만, 그만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제가 답을 하는데 국민을 대표하신다 하지만 이 일을 방해한 당사자이기도 하지요.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진행을 좀 바로합시다.

○박완수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해 주세요.

○서범수 위원 질의 좀 합시다, 질의.

○위원장 서영교 아니, 질의 능력은 위원님이 그중에서……

잠깐, 여기 끊어 주시고요.

아니, 질의하시다가 답변하라고……

○서범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동규가 구속이 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서범수 위원 구속이 되었는데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뇌물수수, 무슨 배임 이런 혐의인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이 사람이 실무자고 설계자가 우리 지사님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지사님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아까 유동규 씨와 우리 지사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옆에 계시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LH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시던데요. LH 사건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요. 저는 어떤 식으로 차이점을 찾느냐 하면 LH의…… 엘시티. 참, 엘시티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서범수 위원 엘시티의 경우에는 설계자를 비롯해서 조력자들이 다 구속이 되고 다 교도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게이트는 조력자만 구속이 되었지 설계자라고 하는 그분은 여전히 자랑을 하면서 치적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여론조사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론조사 한번 보시지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이 개입되어 있다 61%, 이재명이 책임 있다 67.7%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검 도입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61.3%, 거기서 특검 찬성이 73%, 점점점 특검 찬성에 대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서는 여태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고, 나는 잘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어떻고, 과거의 정부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특검 받으세요. 특검 하자니까요. 특검 해서 지사님이나 우리 쪽이나 탈탈 털어봅시다. 어느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서범수 위원 아니,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질문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시고 그중에……

○서범수 위원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군다나 저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자, 끝났습니다.

제 시간은 끝났습니다. 답변 안 들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답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답변하실 시간 드리기로 했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아까 영상 때문에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서범수 위원님요? 이따가 드릴 게요.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민관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확실하게 고액의 개발이익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이었고요.

민간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는 기관들, 금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들이 알려 줄 리도 없고 알려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 당사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건세력 배제 원칙 때문에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깐 그 구체적인 설계의 내용은 그분들한테 물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범수 위원 아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도읍 위원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잖아요.

○박완주 위원 특검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 할 거를 왜 증인한테 물어봐.

○김도읍 위원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본인 생각을!

○위원장 서영교 자, 조용히 하세요.

○박완주 위원 왜 자기들이 할 거를 증인한테 물어봐, 초등학교도 아니고!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지금 타이머 돌리고 있으니까요 답변 간단히 명료하게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러니까요.

○박완주 위원 여야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야가.

○김도읍 위원 여야가 아니고 민주당만 받으면 돼.

○박완주 위원 초선들도 아니고 왜 그래!

○위원장 서영교 김도읍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잠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시간 많이 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타이머하는데 몇 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도 시간 계산하고 그러니까요.

그 천화동인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 속에 숨었고 그중에서 SK 속에 숨었고 SK 안에서도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는 데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었고 그들이 알려 줄 이유도 없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유동규 얘기 자꾸 하시는데, 유동규를 뭐 사장을 만들기로 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 사장대행 3개월인가 4개월 했고요. 그 후에 제가 사장 다른 사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엘시티와 대장동을 비교하면 엘시티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구청장, 국민의힘의 시장 이런 분들이……

○서범수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부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 원가에 팔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1조 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100% 자기들이 가져 버렸고 거기다가 부산시가 1000억가량의 기반시설까지 대줬다 이게 본질이라는 것하고 그것은 대장동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분들이 자꾸 국정감사 때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장물 나눠 가진 사람이 도둑이 분명한데 시간 끌기 위해서 자꾸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범수 위원 아니아니, 그래서 지사님 의향이 어떻느냐고요.

○위원장 서영교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의견을 내 주세요, 특검에 대한 질문.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답변 끝나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서범수 위원 아니, 특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서범수 위원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어서 정치공세하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든……

○서범수 위원 그러면 반대한다는 얘기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만들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이야기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사님의 이야기는 반대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우리 위원님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생중계로 지금 시간까지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또 보고 계시고요.

여야 모두의 공통된 의견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거대하게 가져간 자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오후 질의 첫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천안시를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 오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전에 몇 가지만 오전에 지사님께서 답변한 부분 확인 차 다시 한번 여쭙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장동 4인방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

벽에 들어왔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언론 녹취록인가 보도에 보니까 ‘재선되면 유동규 개발공사 사장 시켜 준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장을 시키시지는 않았지요, 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이 유동규는 전임 사장이 그만두고……

○박완주 위원 3개월?

○경기도지사 이재명 새로 사장을 뽑는 4개월 그 기간 동안만 대행했던 것이고……

○박완주 위원 4개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재선된 후에 당연히 사장 시킨 일 없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재선 때, 성남시장 때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몇 개나 돼요? 임명권, 사장 뭐……

○경기도지사 이재명 한 대여섯 개 정도…… 서너 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거기 사장……

○박완주 위원 그래서 유동규 이분이 자꾸 지금 지사님 측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임명하는 공공기관이 몇 개나 돼요,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스물여덟……

○박완주 위원 28명이 다 측근인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다음에 또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사업이 쉬워진다’ 이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가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2014년도에 상대 후보가 누구였지요? 저쪽……

○경기도지사 이재명 민간개발을 정말 집요하게 추진하시던 신영수 의원입니다. LH에 압력 넣어서 공공개발 포기시킨 그분이지요.

○박완주 위원 그러면 남욱이라는 분은 본인이 계속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민간개발 주장해 왔다가 그다음에 시장님이 초선 될 때 바꾼 거잖아요, 민관 합동으로?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닙니다, 공공개발을……

○박완주 위원 아니, 공공개발.

그러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앞뒤가 맞나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이익 100% 가질 수 있는 민간개발을 당연히 선호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장인 제가 떨어지면 절호의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재선

선거 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아까 세 번째 답변 중에 지사님이 남욱이라는 분이 삼중으로 이렇게 장치를 해서 숨었다 그것을 좀 간단하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남욱이라는 분이 어디 언론 인터뷰인지 어디 인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 토건세력 배제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뒤에 숨었다 이런 말씀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성을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SK가 6% 가지고 있는 그 뒤에 숨었던 것이고요.

○박완주 위원 그리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안에서도 특정금전신탁이라는 형태라서 그것은 또 공개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또 숨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3중의 차단막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박완주 위원 결국은 검찰과 경찰 조사를 하면 대장동에 4인방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지켜볼 일이고요.

제가 준비한 진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단군 이래 누가 최대로 해 드셨는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잘 보셨지요?

재앙의 씨앗은 2009년 10월 7일 LH 출범식, MB 당시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하지 말고 보완해라’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만평인데요. 공익 환수하자 대장동 토건세력들이 ‘도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깜짝 놀란 사람들 옆에 있지요. 그게 바로 해운대 엘시티입니다. 자꾸 야당에서는 엘시티 우려먹는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꺼지지 않은 불입니다. 민간수익 100%, 공익환수금 0원.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실제로 대장동 공영개발 막은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이고요. 성남시의회, 여기 도표 보시면 2009년도 LH 공영개발 성남시 수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시장님이 초대 시장으로 되시잖아요. 이때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거부 세 번에 걸쳐 거부를 하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박완주 위원 여기서 그리고 한나라당 박 모 의원 공공개발 반대, 2011년—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은 같은, 이름만 다른 같은 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그리고 심지어는 2012년도 당시 새누리당, 대장동 공공개발 반대로 의회등원 거부한 적도 있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래서 사상 최초의 준예산까지 갔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리고는 2013년도 6월에 새누리당 협의회에서 조례안 효력정지 각각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각하된 사실도 있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이것 공공개발 막아서 민간업자들 돈 벌게 해줬으니깐 이것 배임죄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힘 시위에 대해서.

○박완주 위원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이게 사실입니다. 부산 엘시티, 면적은 여기는 한 2만 평 됩니다. 성남은 30만 평이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비슷합니다, 2조 원이고. 공영에서 민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공공환수 부분, 부산 엘시티 0원입니다. 1조 원 추정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추가질의 때 상세하게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희도 사실은 좀 준비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시면 엘시티는 당시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을 100%했습니다. 결론은 개발이익 100%를 민간이 한 1조 원 정도 다 가진 거지요. 성남시는 싸워서 그래도 이익을 상당 정도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가 천추의 한이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부동산 때문에 고생하시고, 우리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용도변경 하면 땅값이 그냥 오르는데 이게 누군가의 손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자체로 생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야 된다가 제 신념이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4년 동안 싸웠는데 도저히 어떻게 공공개발을 관철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좌절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어쨌든 제도나 상대 정치세력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제 잘못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지 않도록 공공개발을 통해서 100%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금 그 주장 하시지 않습니까? 왜 개발이익 민간 가지게 했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저는 앞으로 공공개발 가능하도록 개발이익 민간이 100% 못 차지하도록 하는 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개발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국민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정말 근본적 개혁을 할 때다, 부동산 불로소득 없는 나라 만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다음은 국민의힘의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 위원 ‘대장동 설계자는 나다’, 지난 9월 14일 이재명 지사께서 국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실무자 현재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쯤이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유동규가 단순 실무자라면 설계자 역시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순 실무자가 설계자의 뒤통수를 수년 동안 제대로 친 거라면 그 설계자라는 분은 호구였거나 바보였을 것 같습니다.

PPT 열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빵해 주고 몰빵받고 나눠먹은 대장동 간부들을 소개합니다. 간부대장인 유동규를 주축으로 정진상, 고재환, 김만배, 남욱 등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 유동규가 없었다면 대장동 간부가 가능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저는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서 신데렐라는 남자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다만 백마 탄 왕자가 필요하겠지요. 제 생각에는 간부대장 유동규의 백마 탄 왕자는 바로 이재명 지사셨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유동규가 임명됩니다. 혹시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나 개입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임명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임명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 위원 알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것은 2010년 성남시의회의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성남시의회의에서도 유동규에 대한 자격 논란이, 아주 비판이 거뒀던 것으로 이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동규는 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사 경력이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추진연합회 회장 경력이 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문가였거나 경제단체 임원이었거나 4급 공무원 이상 퇴직자였거나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경험 보유 등을 가진 자여야 했습니다. 어떤 것에도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유동규는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임명됐습니다.

그 당시 임명권자는 이사장 부재였기 때문에 성남시의 행정기획국장이 겸직으로 이사장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건도 아닌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로 임명을 감행해야 되는데 감히 임추위 외부 위원장이나 파견 나온 성남시 국장이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답변에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재명 왕자님을 만난 유동규는 그 후 꽃길만 걷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착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성남시가 제출한 시장 결재 문건에 따르면 지사께서는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문건에 최소 열 번 이상 서명하셨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아주 꼼꼼히 직접 승인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런데 그 당시 결재 문건에는 빠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도 일맥상통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장동 간부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 준 이른바 ‘수익 물빵’ 규정이 만들어져서 이사회에서 의결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간의 사업협약, 주주협약, 정관 체결안 등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5년 5월 29일 21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그것이 왼쪽에 있는 문건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유동규 본부장, 성남시 전형수 국장, 성남시 문경수 과장이 참석해서 대장동 개발의 사업협약 체결안이 포함된 25건의 안건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공사가 성남시에 이사회 의결사항을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안전만 쪽 빼고 25건 중 24건만을 보고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2015년 6월 18일 22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에는 동일 인물들이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대장동 개발의 주주협약, 정관 체결안이 포함된 4건의 안건이 의결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다시 성남시에 이 의결안을 보고합니다. 오른쪽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대장동에 관련된 것을 뺀 3개의 안건이 보고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거기에 사인을 하십니다. 그 결과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익배분율, 사업수행 절차, 확정배당금 내용, 주주총회 의결 조건 규정이 모두 시장님한테 보고 누락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시장께 보고가 되었는데 민간이, 즉 대장동 간부를 가능케 한 주요 사안만을 이렇게 누락한 이유가 뭘까요? 걱정하고 시장님한테 왕따를 시킨 이유가 뭘까요?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정을 해 봤습니다. 유동규와 성남시 직원들이 공모하여 시장을 속였다, 아니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아 책임의 소재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안 했다, 아니면 별도 보고도 하고 결재도 했는데 시장이 삭제했다, 아니면 은밀히 유동규 본부장이 직보를 했다. 저는 대장동 게이트가 점점 이재명 게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누락이 왜 됐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계속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기본이 100억, 1000억을 받고 있습니다. 몇천만 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목돈 받을 사람이 범인이겠지요.

지사님의 해명과 달리 앞으로 이 설계에 관여하셨거나 개입하셨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이익의 일부를 취득하셨거나 취득하실 예정이시라면 도덕적 책임을 지시고 후보직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서영교 예, 답변하시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7분을 질의하셨으면 어느 정도 답변시간을 드리자 그렇게 했으니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답변 그래도 명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첫 번째로, 이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팩트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것을 마치 민간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 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것을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 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그다음에 청렴서약서 받아서 흑역라도 부정행위 하면 나중에라도 개발이익 다 환수하는 조치 만들자, 이게 제가 한 설계입니다. 내부 설계 내용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알려 주지도 않았을 테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저보고 이익을 물빵해 줬다 이런 표현 하시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빵해서 이익 주자고 한 것은 국힘이었지요. 국힘 시의회가 민간개발 해 주자고 그렇게 4년 동안 저를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빵하자는 얘기는 국힘의 얘기였고 여러분이 소속한 과거의

국힘이 그랬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아까 정진상 얘기 자꾸 하는데 이 사람이 아파트 분양한 것 적법하게 미분양되거나 계약 취소된 것을 순서에 따라서 분양받은 거니까 자꾸 집어넣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유동규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감사인지 뭔지 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압니다.

보고 문서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은 통째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관여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아니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지휘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확정이익을 초과한 초과이익 환수를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남시의 명시적인 합동회의를 통한 방침이 비율로 정하면 장난을 친다. 그리고 로비한다, 이 부정의 소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초과이익 같은 게 아니고, 비율이 아니고 무조건 확정한다는 거였고요.

만약에 당시 기준으로 땅값이 5% 떨어졌으면 개발업자들은 1조 5000억을 투자하고 900억밖에 못 받게 되고 10%가 떨어지면 1조 5000억 투자하고 손해를 보는데 성남시의 이익은 5500억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땅값이 오를 경우에는 업자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예측 못 한 상승이 있을 경우—예측 못 한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었고 저희는 확정이익을 받게 돼 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은 투기가 아닙니다. 벤처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언제나 확정해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 고요.

○이영 위원 그런데 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보고 누락 문제는……

○이영 위원 제가 질문드린 보고 부분에서 그 2 개를 뺀 대장동 관련한 보고는 다 받으시고 사인 하셨다는 결재 서류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 지 않습니다.

보고 문제는 저는 보고가 오면 당연히 그 내용을 보지요. 보고, 당시에 제가 지휘한 대로 예를 들면 민간에 절대 맡기지 마라, 그것 제가 일부러 수기로 써 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께서

언론에 내셨는데 SPC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사 자체가 해야지 민간이 절대 못 하게 해라라고 제가 지시했고 합동회의에서도 그런 지시를 해 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아마 도시개발사업단 쪽일 텐데 제가 들은 얘기는 3개 금융기관이 경합을 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하는 쪽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선택했고 그래서 4400억 정도 확보했다, 그쪽의 개발이익은 소액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것은 맞는데 이런 세부적인 보고를 일부러 뺄 리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해관계에 있으면 부산 엘시티처럼 1000억 들여 가지고 오히려 주변 공사해 주지 왜 그 사람들보고 성남시가 할 것 추가로 하라 해 가지고 1100억을 더 환수할 것이며……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냥 민간개발에 한꺼번에 쥐 버리지 왜 합동개발 해 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겠어요? 상식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지사님 이하 공무원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질의에 앞서서 지사님, 앞서 존경하는 김용관 위원님께서 조폭 관련을 말씀하시면서 현금다발 사진까지 보여서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좀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여러분, 보도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서울지검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성남시 조폭을 데려다가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비리가 있으면 불러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미 무혐의 종결된 몇 년 전 사건들을 다 추가 기소하고, 추가 기소하고 하다가 결국 무죄도 받고 했다 그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당시에 제가 조폭 연루설로 고발을 당해 가지고 기소될 때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었고요.

이준석은 당시에 저한테 무슨 돈을 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면 기자회견 같은 것 해 주시면

제가 고발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진상을 한번 규명해 보면 좋겠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 있는 데서 쫓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방어를 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상식 밖의 주장이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렇게 전혀 없는 허구의 사실로 정치적 공세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준비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장동 관련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PPT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개발 주장은 누가 했느냐, 앞서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께서도 시의회에서의 조직적인 개발 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신영수 당시의 지역구 의원이 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고 서민 쪽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면서 손을 떼라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당시 이지송 사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우리 정관에 맞지 않는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공공개발을 저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개발 로비가 계속되면서 수원지검에서 동생을 구속하고—이 때도 남욱이 등장하지요—변호사법 위반으로 2심에서 무죄는 받습니다만 횡령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가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잘 아실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도 시장선거를 준비하던 신영수 국회의원은 자기 블로그에서 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남시는 대장동에서 322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근거가 불명확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관 LH도 사실 손을 댔 건데 성남시가 사업이익을 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5503억이라고 하는 공공이익을 환수를 한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설계와 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LH에 압력 넣어서 LH 포기시켰고 동생은 뇌물 받아서 구속됐고, 신영수 의원

이 당시에 경기 성남시 국힘 쪽의 거의 실세였는데 시의회가 신영수 의원의 호흡에, 의도에 맞춰 가지고 4년 동안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시면 그때 당시 개발 예정 이익은 3300억이었는데 지금 그 후의 결과는 약 9000억 정도 이익이 생겨서 그중에 저희가 한 5800억 정도를 환수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겠지만,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실 저로서는 주어진 조건, 환경 속에서 최대한 환수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선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대장동 공공개발 누가 되돌렸냐,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제안서에서는 사업이익을 3595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성남 도개공 지분의 50% 플러스 1주보다 훨씬 더 많은 1822억의 확정 배당액을 받았고 거기에 1공단 공원 조성 비용까지도 추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컨소시엄별로도 예상 사업이익액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탈락한 산업은행이나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도 민간 수익을 우선하는 걸로 저렇게 설계를 해왔는데 실제 성남시에서 추정하던 이익금액 6600억 중 70% 정도에 달하는 4383억 원을 선제적으로 확정된 성공적인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우선 확보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제안서에서 이미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성적·합리적 판단을 할 때는 그 시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시점, 즉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쁘고 미분양이 폭증할 시기고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설계를 해서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경기 성남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도 4400억은 지급한다, 즉 1공단 공사는 하고 1822억 원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 용지는 무조건 공급한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70% 정도를 회수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돈 한 톨 안 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예정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5%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은행 내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920억 원씩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10% 떨어지면 1800억 손해를 보게 돼서 1조 5000억을 투자하고 그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성남시의 수익은 여전히 그렇게 4400억 원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5% 오르면 1800억 예정 이익에서 920억, 10% 오르면 1800억이 늘고 지금 한 15% 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한 4000억까지, 1800억이 4000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사후 관점에서 보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아이고, 저렇게 많은 것을 민간이 다 가졌단 말이나’라고 서운하게 또 부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이나 또는 대리인, 정치인, 행정가 입장에서는 그 과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는 게 맞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70% 환수한 게 결코 잘못된 게 또는 부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호선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한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대장동 사건을 질의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합니다.

아빠 찬스로 6년 만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청년과 현장실습장이 삶의 마지막이 된 여수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과 차별의 굴레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인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당 간에, 후보 간에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선의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장동 의혹 사건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들이 공분한 겁니다. 검경 수사 논란 자초하면서 지체되고 있고요.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열리는 이 국감에 시민들이 주

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증인도 자료도 없이 공방만 오가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데요.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 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위법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판명되겠지만 드러난 상황대로라면 전방위 로비가 있었고요. 사업설계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사건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체 대장동 개발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지사님이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제가 맞지요.

○이은주 위원 잠깐만요, 지사님. 책임자 누구신지, 유동규 씨, 김만배 씨 아니잖아요. 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개발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지요.

○이은주 위원 예.

PPT 보십시오.

당시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한 승인 보고 공문서 최종 결재라인, 서명하신 것 맞고요. 지금 책임자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직접 최종 관리자이고 설계자이고 또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일인데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이고 상상을 초월한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닌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에 대해서 지휘책임자로서 책임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보고서입니다. 공사 내부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임직원 부패 위험성 10점 기준으로 5.78점 나타났어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2016년 7월 당시 이재명 시장께서 결재한 서류입니다.

2015년이면 대장동 도시개발이 시작된 바로 이 시점이고 도개공 직원들은 내부에 부패성 위험이 심각하다고 스스로 답을 한 겁니다. 지사께서 당시 엄격한 관리자, 총책임자 역할 잘 수행하셨다면 최소한 이때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이 강제

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부당이익을 안겨 준 토건 부패사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이 5000여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고 계시는데 대장동에는 공익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하지 않았습니니다. 위례 반면교사 삼았다지만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고 인허가 받았다면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되는 게 마땅하지요.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사업에 채투자되어야 할 이익이 민간 특혜로 귀결됐습니니다.

둘째로 공공이라면 토지를 강제수용했음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무주택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 했습니니다.

셋째, 임대주택 비율이 6.72%에 불과합니다. 지사께서는 이것은 후임 성남시장이 결정한 사항이다 얘기하시겠지만 도개공사 당시에 현금 배당을 선택했을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이게 어떻게 모범적 공익사업일까, 개발이익 환수율은 낮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고 임대주택은 내팽개친 민간업자 최대 이익만을 보장한 특혜사업으로 귀결이 됐다고 봅니다.

다음 표 보시지요.

지사께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치적을 홍보하고 자랑하시는데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안 된다 반성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낱알이 보여 줍니다. 법조계,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기득권 세력들이 돈을 위해서 뭉친 무한 이익 추구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H 투기사건에 이어서 시민들은 또 한 번 좌절하고 분노하고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는 명명백백 밝히고 응당한 처벌 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은주 위원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 여야 모두가 반드시 합의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는 모든 지역이 더 이상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개발의 이익은 반드시 공공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사께서도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공공개발의 원칙 재정립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이은주 위원님, 시간 남았는데 답변 원하십니까?

○이은주 위원 12초.

○경기도지사 이재명 12초가 아니라, 제가 어쨌든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말씀들이 조금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양가상한제가 안 된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제가 아니고 여기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라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했고 LH 공공개발을 대규모 포기시켰고……

이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또 개발부담금도 깎아 줬고 택지도 임의로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양가를 승인할 때 그걸 고려해서 협의할 수는 있는 수준인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제가 시장이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이게 치적이 아니라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원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수년 동안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방해하면 위원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포기하셨겠습니까, 민간개발 허가했겠습니까, 아니면 밀어 버렸겠습니까? 그래도 민간 자본이라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환수하는 게 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초과이익 환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언론들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성남시에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도 전달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보게 됐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성남시가 정하는 대로 비율로 하지 말고 고정액으로 해라, 적자가 나는 경우도 깎이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

는 것의 반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사업자가 가지는 거지요. 만약에 공모 단계에서 이미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이미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는데 그 후에 실무부서에서 ‘이것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것 일부를 우리가 가집시다’라는 내부제안을 채택 안 한 게 배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여기에 응모한 것이 소위 법적으로 따지면 낙약인데, 승낙인데 이 상태에서 집을 5억에 내놔 가지고 5억에 집 사겠다고 온 사람한테 계약해 놓고 나중에 잔금 낼 때 되니까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값 오른 것 우리가 나눠 가집시다 하면……

○박완수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

○서범수 위원 하루 종일 합시다, 하루 종일.

○박완주 위원 들어 보세요.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고, 그걸 이유로 거부를 했으면 소송을 했을 것이고, 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이미 공모하고 응모해서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정계사항이다라는 그런 감사 사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이은주 위원님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것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돌파하고 100% 환수했다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것은 제 역량 부족으로 못 한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다른 것 예를 들면 아까 아빠 찬스로 광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31살에 50억을 받고, 누구는 서른몇 살에 특별분양 받아 가지고 8억씩 남기고,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준다는 것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구요.

앞으로는 이런 민간개발업자들이 개발이익 갖지 못하도록 정말 그 제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같이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질의하지 말고 답변만 들읍시다, 그러면.

○김도읍 위원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박찬대 위원 질의자가 가만있는데 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러세요.

○김도읍 위원 며칠 안이면 드러나니까 마음껏 하세요.

○박찬대 위원 질의자가 가만히 계시는데……

○위원장 서영교 제가 시간 켜고요. 그다음에……

○박완수 위원 아니, 질의하지 않은 걸 왜 답변하고 자꾸 그래요. 질의한 것만 답변해야지.

○위원장 서영교 잠깐…… 질의하지 않은 걸 왜 답변하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우선 여야 간사님들께서 사실은 서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짧아 보이고 남이 이야기할 때는 길어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7분을 다 사실은 이야기를 질의를 통해서 하였고 그러면 일정 시간은 답변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4분 사실 했습니다.

○박완수 위원 아니, 위원장께서……

○위원장 서영교 4분 했는데 제가 다 재기는 했거든요.

우선 서로 이러실 게 아니라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아까 오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저희가 했고요, 어느 정도 답변시간은 드린다라고. 그런데 이제 또 말씀은 질의하지 않은 내용을 답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내용도 또 서로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그다음에 이야기 주시고요.

○박완수 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의 답변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박완수 간사님도 하였고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국민이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 방어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누구나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또 다 정리할 수는 없는 거고……

○박완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요.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모아서 저에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주 위원 의사진행, 간단하게.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요? 그러면 하시면 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그러면 1분씩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답변도 짧게 하시려면 운영…… 위원장님, 국회법에 보면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이게 오래된 관행이에요. 7분 중에 6분 50초 즉 장황하게 설명하고 10초 답변하세요 하면 그것은 ‘예’ 아니면 ‘노’ 하세요. 이게 국감입니까? 이게 진정한 국정감사 방식인가요?

야당, 저는 충분히 답변 짧게 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질의도 일문일답의 원칙으로 하는 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질의가 길어지면 제재해 주십시오, 똑같이. 그렇게 해야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충분하게 질의하고 충분하게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하다. 그렇게 운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박완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 박완주 위원이나 민주당 위원들도 일문일답식으로 안 했어요. 안 했고……

○박완주 위원 저는 그렇게 했어요.

○박완수 위원 지금 진행하는 것이, 물론 답변을 아예 막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여기가 경기도정 홍보장이 아니고 도지사 개인의 어떤 신상발언장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박완주 위원 위원장님 보고 정확하게 요구하세요.

○박완수 위원 남 발언할 때 조용히 하세요.

○박완주 위원 위원장님한테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저에게……

○박완수 위원 아니, 조용……

○박완주 위원 특정 위원들 서로 논쟁하는 것은 초선의원님도 안 하십니다.

○박완수 위원 또 하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저에게 말씀 주세요, 박완수 간사님.

○박완수 위원 동료 위원 발언할 때 조용히 좀 하세요, 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 예, 저한테 하시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예, 저한테 하세요.

○박완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답변하는 걸 우리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원들이 질의한 걸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왜 그런가 하면 위원들은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지사님은 답변시간을 안 정하고 지금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교 조금 더 주세요.

○박완수 위원 여기도 야당 탄압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1분씩 얘기했었습니다.

○박완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우선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고요. 국민이 경기도의 국가위임사무를 얼마나 잘 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이나 오늘 정치적인 일들이 있어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쟁점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 맞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서로 저희가 양해…… 글썄, 오늘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 시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됐을 때는 사실 좀 길게 하셨는데 4분 하셨어요. 그런데 더 길다고 느끼시는 건데 일문일답 형태로 하면 사실은 뭐이 정도는 양해된다라고 할 정도의 시간이지는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국정감사이기도 하니까 위원님들의 국정감사를 좀 잘 해아려 주시고요, 오늘 질의하는 내용에 맞게 또 답변 주시고.

그러나 또 개인적인 뭐라고 그럴까,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위원님들도 좀 양해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원만하게 잘 하고 계시니까 서로 질의하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말씀도 잘 새겨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들 말씀 또 저도 잘 새겨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의정부시울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 의정부시울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사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 또 경기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판

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전부터 대개 보면 대장동 게이트다, 특검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임이다 아니면 사퇴하라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정말 오전에 죽 보니까 지사님께서 시장 시절 때 설계자라고는 하셨지만 거기에 어떤 절차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절차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관련하여 이런 비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비리 혐의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 받은 사람들이 범인인 것이 맞는 거지요, 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예, 그래서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검은,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검찰·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중지하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결국 시간을 끝자……

○김민철 위원 그렇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정치공방을 하자, 진실보다는 공방을 하자, 본질보다는 지엽 말단을 가지고 다투자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민철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경찰 수사가 이렇게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대단위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뭐 미진한 게 있다, 정말 의혹이 있다 그랬을 때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하던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임 같은 경우는 대개 대법 판례에 보면 공직자나 선출직 정치인들의 정책적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사실 이 사건은 배임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다른 개발사업은 전부 민간에 개발 허가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공공개발을 시도했고 공공개발을 못 해서 그래도 절반의 민관 합작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했는데, 그러면 민간개발해서 100% 민간에 개발이익 가지게 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기관의 인허가권자는 다 배임죄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광이 하나 동네에 발견이 됐는데 이걸 다른 동네 사람들이 다 훔쳐 가니까 이걸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가지자 했는데 그걸 못 하게 막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그러면 반씩이라도 하자, 70%라도 내놔라 한 게 첫 사례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 마지막에 끝나실 때 이렇게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윤석열 후보의, 지금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100% 민자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이제 그 가족들이 했던 그것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가족, 양평 공흥2지구 개발지구에 관련해서 좀 내용을 아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도 보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행정 상식 이런 것들로 판단해 봤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LH에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지구 신청을 했는데 양평군수께서—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시지요—그걸 거부한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인척에게 개발사업권을 또 덜렁 주어 가지고 거기서 800억을 남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민철 위원 그 개발회사가 여기 ESI&D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그 구조를 보니까 대표이사 장남이 지분 30%, 차남이 30% 그리고 최은순 지분이 20% 또 장녀 김지영 지분 20% 그리고 김명신—지금 윤석열 부인 김건희로 개명을 했는데—이쪽까지, 사내이사까지 이렇게 역임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순수 가족회사입니다.

가족회사인데 문제는 2012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 안에, 보통 사업인가 2년 안에 실시인가를 못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은 그걸 변경을 하든 아니면 그걸 취소를 해야 되는 거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한 1년 8개월 동안 사업을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양평군에서 군수입니다. 지금 김선교 국회당 의원인데 여기에서 그 군수가 다시 변경허가안까지 2016년도에

허가를 해 줘요. 이런 부분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양평은 양평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더니 그걸 거부하고 또 여기는 허가해 주고, 이것 일단 모순된 행위고.

두 번째로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결정이 나서 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취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실효된 다음에 나중에 소급해서 연장을 해 준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정입니다.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정이지요.

○김민철 위원 예, 맞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이 의혹인데 여기에서 그 가족회사가 취한 그 차액이, 분양수익이 약 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족회사에 완전히 몰아준 거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농지도 사들이고 임야도 사들이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한 3주 만에 이렇게, LH에서 포기를 하니까 바로 3주 만에 제안서를 냅니다, 양평군에. 양평군에 내고 한 3개월 있으니까 거기에 지정을 또 해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게 지금 실무자가 준 건데 구체적 위치는 동일한 위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닌데, 하여튼 양평에 일정 정도의,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이 일정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급적 공공기관에 맡겨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행정원칙에 당연히 부합하지요.

○김민철 위원 여기가 100% 민자사업으로 다 갔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성남은 그렇지 않았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LH는 못 하게 다른 쪽은 막고 여기는 또 즉각 해 줘서 개발이익을 취하게, 분양이익을 취하게 한 것은 저는 명백히 특혜행정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간이 지남으로써 실효되어 버린 것을 나중에 보완해서 해 줬다는 것은 불법 특혜행정이지요.

○김민철 위원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답변 더 하실 것 없으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추가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 개발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개, 큰 이권 뒤에는 정치세력들, 관료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있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은 돈을 나누어 갖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지요. 지금 돈 사용처를 찾아보니 50억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 고문료 받은 사람은 원내대표, 원내대표 부인, 국힘이 추천한 무슨 특검, 국힘이 추천한 공수처장후보 이런 분들인데 일단 드러난 걸로 보면 그분에 대해서……

○서범수 위원 그것 질문한 거예요?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신 약속을 지켜 주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충분히 수사를 빨리 엄밀하게 해야 된다. 이 문제도, 저는 양평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신 말씀을……

○서범수 위원 특검합시다, 그래.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1조 중에 9700억 찾으면 돼요.

○위원장 서영교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 지사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신 것 일단 축하드리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오영환 위원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아침에 달려 오는데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는 시간 동안 뉴스를 보는데 남욱 변호사 입국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고 배당수익을 1000억대 가까이 갖고 갖고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뉴스 메인에 뜬다는 것은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는 거고 분노가 크다는 거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오영환 위원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수많은 의혹들 가운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사실 개발 민간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간 것 그리고 그 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진행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 로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정치·법조 세력들과의 유착 의혹, 그냥 모든 부정부패 비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오영환 위원 저는 많은 위원들께서 세부적인 내용들, 아주 복잡한 내용까지도 상세히 설명을 주셨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 보면, 결국은 불법적으로 돈 번 놈들 그리고 그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 놈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놈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천하동인, 김만배, 남옥, 유동규, 정영학 이런 토건세력들 그리고 공영개발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밀어붙이려 했던 과거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뇌물까지 받은 일부 부패 공직자들, 설계를 주도했다고 이런 주장이 있는 유동규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특혜를 주었는지 어쨌는지 많은 의혹들 속에서 광상도 의원의 경우에는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게 사실로 밝혀져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돈 받은 사람들도 광상도 박영수 최재경 권순일, 거기다가 자문변호사들을 살펴보면 박근혜정부 임명 고위법조인들이고요.

검정 수사가 이제 슬슬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얽힌 불법적으로 돈 번 놈들, 돈 벌게 해 준 놈들 그리고 돈 받은 놈들, 범죄 카르텔 정말 발본색원해서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오영환 위원 방금 지사께서 우리나라 개발 부정 비리가 너무 많다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다가 중단되었는데, 대체 그런 것들을 뿌리 뽑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앞서서 자칫 대장동 사업개발이 아직 의혹들이 수사가 철저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칫 민간개발의 형태로 갔다면 방금 김민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흥2지구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엘시티라든지 그리고 부산 송도의 이진베 이시티라든지 이런 수많은 불법 토건비리들이 판친 그것의 재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개발 부정 비리들을 막을 수 있는 지사님만의 생각과 방법, 고민하신 바가 있다면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보여 드리려다가 못 보여 드렸는데 잠깐 보시면 2015년, 10년부터 15년 당시에 우리 유력 언론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보시면 민영개발 해 줘라, 공공개발 절대 하지 마라, 적자 난다,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 이게 당시 언론의 주류적인 입장이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 이쪽이 분양가제한 폐지하고 그다음에 택지도 개발자가 택지 분양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까지 할 수 있게 해 주고 개발부담금도 줄여 주고 온갖 특혜들을 줘서 민간개발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왔다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그것을 악용해서 만든 게 대장동 아니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절반의 성공을 한 거지요, 방해 때문에. 공공개발을 했더라면 이런 얘기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렇다면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지사께서는 그러면 모든 개발사업들을 전부다 공공개발로써 주도해야 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계를 좀 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이 자기 토지 가지고 그 용도 상태에서 그냥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든지 이런 건 건설이익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 인허가권을 행사해 가지고 토지의 용도를 바꾼다든지 용적률을 많이 올려 준다든지 주변에 산업단지를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자동 개발이익 증가분은 환수해야 되고.

환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를 들면 지방공사 같은 곳이 지방채 발행 제한을 해 놔는데 이런 사업성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 주고 개발이익도 25%의 절반을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 줬는데, 박근혜 정부든가? 그런 것도 많이 올려서 70~80% 이상 환수하게 하고 또 회계 조작도 못 하게 막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환 위원 지사님, 알겠습니다.

최대한의 공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셨다는 부분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산업재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작년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화재 사고도 있었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오영환 위원 서른여덟 분이 사망을 하신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고 연달아서 용인에서도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고 평택항에서 올해 4월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또 젊은 청년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드디어 올 1월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7월 2차 추경에서도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전히 올해 상반기에만 341건이 발생하고 345명이 사망을 했지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가……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한 노력들, 신규자를 더욱더 많이 배치하려고 한다 그리고 청산율 제고를 위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크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만족도도 낮은 상황이고요.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고용부에 집중되어 있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가 나눠 받아야 된다, 마치 노동경찰제도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 단속을 늘려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19년도에 노동국을 신설 하시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도 하셨고 또 다양한 제안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다가 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고민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시겠지만 저 자신이 산재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하지 못한, 보호받지 못한 작업장에서 젊은이들을 포함한 우리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장애를 입고 부상을 입습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산재로 사람이 죽었을 때 부담하는

비용, 제재 이것보다 죽었을 경우에…… 평소에 위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산재사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한 경우에 제재를, 형사처벌을 영구적으로 아주 세게 하고 또 민사 배상도 징벌배상을 시켜서 고의적으로 위법을 방치해서 사람이 죽으면 배상액을 몇 배, 몇십 배 부과해서 다시는 위반을 통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고.

세 번째는 일상적으로 근로감독 현장, 노동환경 감독을 정부에서 잘하면 이런 위반사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중대재해 처벌법도 사실은 매우 구멍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상도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세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특히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수가 2900명, 그것도 많이 늘려서 2900명 수준인데 이 숫자로만 약 400만 개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부에도 위임을 받아서 같이 근로감독, 노동환경 감독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있는 중입니다.

○오영환 위원 추가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균의 국민의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지사님, 대장동 설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셨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 과정에 대한 것 많이 나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장동 게이트의 단초 제공은 또 문제의 근원적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평가 용역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대장동 용역 어디에서 진행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알지 못합니다.

○최춘식 위원 잘 모르십니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성남시에 있는 건데 기억 안 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 성 모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이 연구원 자체를 모릅니다.

○최춘식 위원 전혀 모르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최춘식 위원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보이시지요? 저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 있는 분이, 구체적인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성 모 씨고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사진 찍고 할 때 서로 인사 나누고 누구라고 명함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잘 기억 못하는 사람입니다.

○최춘식 위원 전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1조 5000억이 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용역 진행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모릅니다.

○최춘식 위원 모르십니까?

3주 걸렸습니다, 3주. 14년 12월 31일 날 진행을 해 가지고 15년 1월 22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14년에서 15년이면 1년 넘는 것 아닌가요?

○최춘식 위원 14년 12월 31일 날.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 12월 31일 날.

○최춘식 위원 그래서 그다음 해 1월 22일 날 끝났으니까 3주 걸렸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최춘식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그 보고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겁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못 봤습니다.

○최춘식 위원 1조 5000억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인데 두께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이십니까? 상당히 졸속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게 몇 년도라고요? 2014년 12월.

대장동 관련 개발사업의 연구 조사 내용은 LH가 이미 사업을 할 때 조사를 했고……

○최춘식 위원 지사님, 그것은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3주 만에 끝났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따져 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졸속 처리됐습니까? 3주……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H에서 삼백몇십억인가 남는다고 했고 여기서는 사전타당성 조사입니까? 그 조사를 했을 텐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한 것이고……

○최춘식 위원 지사님,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저 7분밖에 없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최춘식 위원 자꾸 제 시간을 까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혹시 지사께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어떤 용역을 의뢰했을 때 3주 만에 납품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용역 기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졸속 처리됐고, 그다음에 성 모 씨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사님이 2010년도 7월 달에 당선되어 가지고 업무가 시작됐을 때 그해 12월에 바로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지사님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성남정책포럼이……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선거를 도와준 거라고 하던가요?

○최춘식 위원 이것은 친민주당 성향의 특히 이것은 나중에 성공포럼으로 또 연결됩니다. 현직 국회의원도 여기 공동대표 맡았었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공포럼요?

○최춘식 위원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공포럼은 국회의원들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춘식 위원 그 당시에는 지역위원장이었지요, 그분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분요?

○최춘식 위원 아니요. 지금 그 성공포럼의 대표고 정책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요, 현직.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분하고 아는 사이라고……

○최춘식 위원 아실 겁니다, 아마.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원에서 이렇게 맡게 된 것은 바로 이 성 모 씨가 연구원의 총괄본부장으로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 나중에 또 보시면 알지만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아주 유착관계를 가지면서 모든 용역에 대해서 이 쪽으로 몰아주면서 바로 성남시의 입맛에 맞는, 지사님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결과보고서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남시 도공의 의사가 결국 자꾸 말 나오지만 유동규 생각이고 유동규 생각이 지사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졸속 보고서 말씀을 하는데 사업은 이 보고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부 판단용이고 민간의 사업에 참여하는 쪽이 용역을 해서 들어오겠지요.

○최춘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게 뭐 있었지요?

○최춘식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좀 보세요.

시장님이 이때 당선이 되시고, 여기 제가 인사 문제 하나 다루려고 합니다.

분당구청장으로 계시던 분이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그해 8월 달에 바로 성남시 국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2011년 말, 약 1년 2개월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10년도 8월 달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디론가 취직을 했는데 어디 있나 가 보니까 이 대장동 용역팀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2019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발하면서부터,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13년도에 출발하지요. 이때부터 이 대장동 용역팀, 소위 말하면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아주 밀접한 그런 업무협조가 이루어 집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2014년도 12월에 대장동 용역 발주가 되고 3주 만에 그 용역 결과서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착 관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시장님이 이 국장을 자동으로 퇴직시켜 가지고 여기다 파견하신 것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게요, 위원님, 제가 이것을 보고 아무리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하고 연결을 해 보려고 해도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좀 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저하고 관계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최춘식 위원 여기 이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 국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A국장이 A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건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불법 행위도 아닌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춘식 위원 분당구청장 하다가 국장으로 바로 시장 되시면서 발령시킨 사람 기억 안 납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최춘식 위원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생각 안 납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런 사람 있었지요. 그런데 그분 사실…… 위원님, 저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하는 분을 국장으로 도로 불렀겠지요.

○최춘식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가서 보직 발령을 받고 나서 계속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이렇게 유착관계를 가지면서 일을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분이, 제가 10년이 넘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임 시장이 임명하신 구청장을 제가 아마 시장이 되면서 국장으로 도로 이렇게 소위 좌천을 시켰던 모양인데 그분 퇴직한 후에는 제가 일체 한 번 본 일도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 심하게 연결지으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최춘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분도 지금 사실은 조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한번 알아보시지요.

○최춘식 위원 바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공동 책임질 생각 있으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뭘 공동 책임을 집니까?

○최춘식 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서로 유착관계가 인정이 되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뭘 유착합니까?

○최춘식 위원 이런 것, 용역을 주고받은 거 나……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게 무슨 유착입니까?

○최춘식 위원 주고받는 관계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게 무슨 유착인지 제가 납득을 못 해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최춘식 위원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런…… 자꾸 대장동 게이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요 화천대유 게이트입니다. 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번 엄청난 돈을 정치적으로 나눠 가지고 그 배후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자체가 화천대유 게이트지.

개발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을 지금 받고 있고 제가 보기에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저로서도 참 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심정이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은 이 거대한 개발사업의 한 부분을 맡은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되찾아 오는데 그중의 일부가 소위 참 돈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한테 오염이 돼서 나쁜 짓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전체 기획,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이 첫 시도 그래도 70%, 60% 환수한 그 전체가 다 잘못 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설계는 그 비리를 설계한 게 아니고, 제가 비리를 설계했으면 제가 비리 설계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공공환수 설계를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민간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 그것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끌지는 그 안의 은행, 투자자, 출자자 이분들이 결정하실 일이지요. 그것을 저한테 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하시는 데 좀 자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를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대 위원 경기 광명시의 양기대 위원입니

다.

지사님,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신 것 축하드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양기대 위원 특히 경기도지사 출신이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더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며칠쯤 퇴임하실 계획이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일단 국감이 끝나고 또 이게 제가 가진 공직이 그냥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 그것은 정하실 나름이고요.

도지사직 수행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다 그런 점 하나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쉬운 점은 많지요.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한계나 정부와의 협상 등에서 조금 곤란을 겪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나 또는 청년지원사업들을 제대로 제가 기도했던 것만큼 못 한 것들도 좀 아쉽고 뭐 많습니다.

○양기대 위원 그렇지요. 좀 더 했으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챙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역시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또 많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광명시장을 8년 해 봐서 아는데 국민들은 늘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은 그런 개발업자들이 정관계 돈로비를 통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차적인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규명돼 갈 것인지 검찰 수사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지사께서 아침에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 사업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국감장에서도 인사를 잘못했다 하면서 일부 직원이 오염돼서 부패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씨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공직자의 청렴을 유독 강조해 오신 이 지사께서 다른 길로 가는 유동규 씨에 대한 심정을 애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제 측근이나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측근이 법률상 개념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정의는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저의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성남시 업무 또는 경기도 업무에 일부 사용한,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인 것은 맞지요.

그러나 저희가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무슨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고 경기도 관광공사도 380억의 영화투자자금을 출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좀 의심, 걱정이 돼서 이것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해서 제가 그것을 거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가 버리고 그 후에도 무슨 일에 관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일을 맡겼던 부하 직원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 각별히 제가 수없이 공개석상에서 ‘돈은 마귀다. 이게 본인도 모르게 오염된다. 정말 마음 추슬러야 된다. 이 돈이 관계된 일은 나중에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에도 특수부 수사를 수없이 반복해서 받게 되니까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나 주변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수치스럽게도 제가 청렴을 그렇게 강조하고 저 자신은 정말 노력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측근들은 없지만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되는 것이지요.

○양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사님 심정에 어느 정도 이해 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들께서도 일부 지적을 했지만 요즘 언론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핵심으로 오르내리는 관계자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지사께서 기자간담회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인터뷰하러 왔던 분이어서 전화번호부에 기록을 해 놓았고 그 이후에 한 번 본 것이다’ 이것 맞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실제로 인터뷰했다는 얘기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론에 써서 알았고, 전화번호는 제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 다 입력을 해 놓기 때문에. 만난 일은 없습니다.

○양기대 위원 그다음에 요즘 김만배, 유동규 씨와의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낸 정영학 회계사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혀 모릅니다.

○양기대 위원 예, 그러실 겁니다.

또 오늘 미국에서 귀국한 화천대유 4호 주인인 남욱 변호사도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모릅니다.

○양기대 위원 그리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전 국민의힘 비서관 출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볼 일이 전혀 없는데 저희가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성남시 개발사업이 대장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현동, 동원동, 위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전문가를 특채를 했는데 대장동 개발회의를 여러 차례 합동회의를 여러 명이 할 때 그때 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기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왜냐하면 담당 실무 책임자였으니까요.

○양기대 위원 저는 이 지사께서 다 그런 분들 하고 큰 관련이 없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양기대 위원 이 지사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원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후보직 사퇴는 물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응분의 책임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하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말을 가지고 ‘그러면 1원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받았단 말이나’ 이래서 하여튼 제가 개발사업자들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양기대 위원 예,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목숨 걸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저희 형님과 아마 김용관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던 그 욕설 사건, 그 욕설 사건의 계기도 사실은 제 형님의 시정 개입의 문제 때문에 충돌을 하다

가……

○김도읍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발언 총량 한번 보세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런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주변을 나름 정말 철저히 관리했고, 제가 소위 국민의힘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 왔기 때문에 제가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히 나름은 노력해 왔는데 이런 부족함이 생긴 것이지요.

국민들께서 공분하시는 것 정말로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은 참 속 쓰릴 때가 있거든요. 누구는 돈 한푼 안 들이고 대장지구뿐만 아니라 파크뷰에서 무슨 몇억씩, 몇천억씩 심지어 조 단위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그때 ‘20억 주겠다’ 협박해서 가스충도 뒤에 차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아주 지독한 세상이었어서 정말로 나름은 조심했는데 주변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오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완벽하게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너 왜 못 막았어, 100% 환수해야지’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정치인이고 책임자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못 하게 막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부정한 자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 돈을 취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PT 한번 넘겨 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9월 4일입니다. 유동규 아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당연히 알지요.

○김형동 위원 당연히 알지요. 이날, 유동규가 9

월 4일 날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닙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신문 봤습니다.

○김형동 위원 신문으로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언론,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김형동 위원 혹시 정진상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신문…… 언론에 나온 것을 봤다니깐요.

○김형동 위원 백종선 수행비서로부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화 안 했습니다.

○김형동 위원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이 부분을 언론 말고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런 것은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요.

○김형동 위원 이것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을……

○김형동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을 경기도의 공식 업무도 아닌데 보고를……

○김형동 위원 전화로 방금 말씀드린 유동규·정진상·백종선으로부터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경기도지사 이재명 유동규는……

○김형동 위원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관광공사……

○김형동 위원 정진상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지요.

○김형동 위원 보고받으셨단 말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닙니다. 그것은……

○김형동 위원 전화받으신 적 있습니까, 9월 4일 저녁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통화는 제가…… 아까 누구, 누구였지요?

○김형동 위원 정진상.

○경기도지사 이재명 정진상 말고 아까 1명……

○김형동 위원 백종선.

○경기도지사 이재명 백종선 거기도 통화한 일이 없고요.

○김형동 위원 다른 누구로부터도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모르겠는데요. 그 신문에……

○김형동 위원 모르는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 언론에 다 나온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무슨……

○김형동 위원 아니,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것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형동 위원 기억이 없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형동 위원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고 아침에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왜……

○김형동 위원 제가 보고받았는지 여쭙봤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진상이나 백종선하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이것을 왜 대책회의를 합니까?

○김형동 위원 그 이후에 이것으로 통화한 적도 없습니까?

대화가 길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저는 지사님의 변호사 비용 대납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 여당 의원이 지사님의 사건이 공익사건이다 그랬는데 공익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희가 민변 회원을 한 지가……

○김형동 위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민변 회원으로……

○김형동 위원 답하기 어려우시면 그다음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활동한 지가 수십 년인데……

○김형동 위원 이후에 답해 주시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공익사건으로 같이 활동하고 문제 있는 것은 같이 한 게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뒤에 ‘변호인’ 올려 주십시오.

저는 단문 단답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지사님이 무려 5건, 여기에 다른 것은 헌법소원인데, 심급별로 대리하는 것 맞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지요.

○김형동 위원 그렇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심급별로 해 보니까 여기 나온 것만 해도 12명 내지 13명 해서 50명이 대리를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지사님이 4명 정도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 한번 보십시오.

○김형동 위원 들어 보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엘케이비엔파트너스는 1개 법인인데 참여한 자가 8명입니다.

○김형동 위원 들어 보세요.

4명 정도는 그냥 아는 지인이니까 무료로 사인해 줬다 그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지요. 위원님……

○김형동 위원 변호사비로 2억 5000만 원 내지 2억 8000만 원을 썼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을…… 아니, 위원님 질문 자체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김형동 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무료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그것이 어떤 선의나 시혜로 인정될 수 있지만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후원·기부·증여 할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법은 알고 있지요.

○김형동 위원 그리고 밑에 형사처벌 조항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형동 위원**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또 지사님도 유능한 변호사님이시니까 4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2억 8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2억 오천몇백만 원입니다.

○**김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이것은 최근에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쪽에서 고발한 것인데, 이럴 리는 없겠지만 이른바 제삼자 뇌물, 뇌물죄 수수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넘겨 봐 주세요.

모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변호를 해 주고 제삼자인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약속 내지 지원받았다는 취지입니다.

넘겨 봐 주십시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왜 영어의 몸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중의 한 사건이 삼성전자가 이른바 소송비 대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해하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영어의 몸이 됐을 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엄격한 판단을 해 줘서, 기대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뒤에 넘겨 봐 주세요. 이것은 녹취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이 소송이 계속됐을 때 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5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어떤 5억 얘기하는 겁니까?

○**김형동 위원** 여기에 보면 재산 현황 2018·19년 비고란에 채무 5억 발생, 채권 5억 500만 원 해서 신고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 주식 매각 대금이고.

○**김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한 내역을 한번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뒷장 넘겨 봐 주십시오.

변호사들은 항상 사건 수임을 하면 대한변협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세무서에도 그 비용받은 것이 신고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5억 원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 하니……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라니까요, 말을 끊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언제 주식 투자했다고 했습니까?

○**김형동 위원** 주식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다시 한번, 주식을 많이 하는데……

○**김형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을 매각해서, 백지신탁 때문에……

○**위원장 서영교** 제가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자꾸…… 아니, 억지 주장을 하시니까……

○**김형동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5억 500만 원을 제가 빌려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형동 위원** 누구한테 빌려줬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것은 저기 통장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차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사해 가지고 지금 제 계좌 다 뒤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다 송금했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5억을 빌렸다가 다시 이것은 갚은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형동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변동 내역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그것은 뭐……

○**백혜련 위원** 아니, 그것 개인정보인데 무슨……

○**박찬대 위원** 아니, 경기도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뭐 그거야 위원님 요구 사항이고, 그것 요구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김형동 위원 저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한 번 더 정리 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억 설, 뭐 많은데……

○김형동 위원 제 질의에 정리할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단문 단답,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첫 번째……

○위원장 서영교 예, 답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정리할게요.

5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심급 대리니까 5개의 재판이 있었고……

○김형동 위원 그러면 설명하시려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김형동 위원 유동규가 2시간 동안 통화했을 때 그때부터 답을 다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우선 답변 듣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자꾸 그러시지 말고……

○위원장 서영교 공격적인 질문을 하셨으면 또 답변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경기도지사 이재명 변호사비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제가 아까 오전 발언한 것 중에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얘기하다 약간 헷갈린 게 있던데 다시 정리할게요.

수사, 1심·2심·3심, 헌법재판소 5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 그리고 그 외에 사임한 법무법인 1개, 김철준 변호사입니다. 전직 민변회장 세 분, 전직 민변에는 송두환 인권위원장님을 포함한 세 분은 변론에 실제 참여한 게 아니고 전통에 따라서 연명해 줬습니다, 연명을 해 줬고.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송금된 금액은 경찰이 다 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경찰·검찰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조회 다 동의합니다. 저는 6개월에 한 10통씩 받습니다, 계좌 조회했다고.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2억 오천몇백만 원을 제가 지급했고 아까 보시

면 다 연수원 동기들, 대학 친구 이런 분들, 민변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지급했다.

그리고 20억 원 전환사채, 3억 어찌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이태형 변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 봤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경찰에서 확인될 거고 이것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판에 관여한 분들이 아까 보신대로 그렇게 법무법인·개인, 10개나 되는데 그중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거기다가 23억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일단 주장하고 보고 혹시나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사려고 하는 이런 것 좀…… 이런 게 좀 구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요, 그러면 1분 정도 하시겠습니까?

○박재호 위원 예, 1분만…… 30초 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 어쨌든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거든요,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생활이나 개인 생활 이런 문제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후보 할 때 하시고……

○김민철 위원 위원장님이 제지해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사실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부분의 화천대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좀 사적인 부분들은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박재호 간사님 말씀을 들어서 또한 모든 위원님들께 국정감사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도 사실은 되게 많이……

○서범수 위원 후보가 아니지요, 도지사지.

○위원장 서영교 아니, 도지사님께서 계좌 추적을 내내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무분별한 폭로 그리고 또 계좌 추적이 뭐 영장이 나오니까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로부터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당하면 다음에 또 상대가 당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당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나 감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박재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했으니까 저도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서영교 예.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사진행 잘하고 계신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어떤 부분이나 하면 이재명 지사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는 6개월에 한 번인가 뭐 계좌 추적 당했다고 통보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야 본인 자유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실 여부를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사실로 기정사실화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계좌 추적이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예,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이재명 지사 말뿐이지 그게 확인도 안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토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서영교 우선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님만이 아니라 어쨌든 무분별한…… 제 소신이기도 하고 우리 행안위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엄청난 수사력 자체를 소진시키고 그리고 또 이것이 엄청난 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 의사진행발언으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를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 한병도 위원입니다.

지사님뿐만 아니고 부지사님, 특히 이번에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번 국감 특히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국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들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진실은 밝혀지고 결론은 난다고 확신합니다. 자금 추적하면 다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설왕설래, 뭐가 어떻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금 추적하면 이것 다 밝혀집니다. 지금 추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세간이 시끄러운데 남욱 천화동인 대표, 이 사람이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이런 관계자들 해서 계좌 다 추적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조만간에 반드시 규명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 적반하장 비유하셨는데 저는 오늘 국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점잖게 표현하면 ‘방귀 똥 사람이 화를 낸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해 놓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화를 내는 꼴이 아닌가 그런 것을 저는 오늘 혼자 연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진실이 드러날까 봐. 계좌 추적하면 진실은 반드시 곧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시작이 민간업자들끼리 돈 문제로 출발을 해서 이익 배당을 놓고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뜻밖에 아파트 분양 수익금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움 난 사건이에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맞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리고 이익 정산을 앞두고 서로 소요된 경비로 ‘내가 얼마 썼네, 아니야 내가 로비자금에 얼마 투여를 했네, 개발업자들의 증빙되지 않는 정·관계 로비자금 지출이 이곳저곳에서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발각 사건이 부각이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요약하자면 성남시는 사업협약 맺은 대로 약속된 확정수익을 보장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이익이 예상되니까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법적 의무 권한 없는 920억 원을 추가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1100억 원입니다. 200억 더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아, 1100억인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한병도 위원 즉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은 성남시가 최초 결합개발이라는 도시개발 방식을 적용해서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의 기부채납 의무 부과에 더해서 추가로 5503억 원, 이것은 맞나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거액의 공공의 자금을 회수시킨 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수차례 이야기 나왔지만 이 사건의 내용과 함께 대비되는 것이 부산 엘시티,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이익을 민간이 자체 가져간, 아주 대조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이 났지만 전 국민의힘 당에서, 모든 과정들에 보면 국민의힘 당에서 민간 개발토록 하고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수익구조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패널을 들어 보이며)

부산 엘시티하고 비교가 이렇게합니다.

○한병도 위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사건의 내용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놓고 누가 돈을 받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반 동안 일단 지사님이 돈 받았다는 뉴스나 언론은 1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민주당 관계자나 어느 누구도 언론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실제 없습니다.

○한병도 위원 모두 이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와 관련이 있는 듯했는데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첫 번째 갑자기 광상도 의원 아들 50억이 덜컥 나왔어요. ‘어,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뒤에 또 5명 언급된 것도 전부 국민의힘 관계된 분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 이후에 남옥……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제가 거기다 하나만 좀 추가를 해 드리면 김만배 씨의 말에서 국힘 관련된 5~6명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한병도 위원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김만배 씨 얘기를 취재한 언론에 의하면, 보도된 것인데 정영학도 50억씩 6명한테 줄 사람이 있다. 누구냐, 최소 2명 이상의 국힘 현직 의원을 포함해서 5~6명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보도된 일도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분 얘기는 서로 ‘나도 이렇게 돈 썼다. 너도 돈 썼느냐?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얘기여서 신빙성 자체는 잘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9000억을 찾아야 돼. 그것 다 해 봐야 1000억도 안 돼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9000억 중에 5500억은 성남시에 와 있고요. 또 은행 이런 데 다 배당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그것 말고, 그것 말고.

○한병도 위원 지금 제 질의시간입니다.

9000억, 4000억 얘기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계좌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추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개된 50억 클럽의 로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6명 인사도 박근혜정부 출신 국민의힘 측 인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향후 리스트도 속속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국민의힘 관계자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올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민의힘은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할 개발이익금이 국민의힘 인사들 몫으로 들어갔는지 이것을 먼저 설명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특검합시다.

○한병도 위원 그리고 또 특검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청와대 근무하고 지금 수석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특검하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계속 카운팅이 안 될 정도로 특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경찰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검찰수사 주장하고, 검찰수사가 불만이면 공수처 하라고 하고, 검경 모두 불만이면 특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열세 번…… 특검, 특검 하는데 바로 특검부터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 판단 후에 특검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좌 추적 다 하고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물론 여러 문제 제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 계좌 추적 수없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름대로 사건을 정리해 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 차원에서 정리한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시
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용판 위원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받은
통지서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수시로 이렇게 통
지서……

○김용판 위원 그것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용판 위원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하시라고 한 애
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가진 자가 범인 맞습니다. 그것은 계좌
추적을 하든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다 밝혀
질 일이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국민의힘이
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더라는 점 분명하고
요.

○박완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기 전에 10초만
의사진행발언하고 할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왜 이쪽에 많이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민간개발을 막아서 개발이익
다 가지지 못하는 쪽이었고, 저를 억압을 해 가
지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고 또 반민반관이라도 해
서 일부라도 개발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든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쪽이 보상을 하는 게 상
식적으로도 맞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그 명단 중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
니까? 광상도 의원 아들은 50억 받았고, 박영수
특검은 딸이 아파트 특별분양 받았고, 퇴직금도
많이 받을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고 또 100억을
아는 친척한테 줬는데 그 100억 중의 일부가 박
영수 특검에게 갔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원유철 의원 감옥 가니까 부인이 대신해서까지
고문료 받았는데 부인이 뭘 고문을 하겠어요? 나
머지 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또는 국민의힘과 관
련된 인물이 드러났고 저와 관계된 사람 뇌물 받
았다는 그 사람 말고 없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없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 준 사람이 다 측근들이 아니요,

준 사람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준 사람들이……

○김도읍 위원 그리고 박영수는 당시에 야당이
했어요.

○위원장 서영교 말씀 마저 하시고 끝내시지요,
이제.

○김도읍 위원 지사님, 박영수는 당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걸.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래요? 제가 언론에서 보
기에는 여당이 추천……

○김도읍 위원 어허, 특검법 보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어쨌든 위원님이 자꾸 저
러셔서 제가 혼선이 오는데 분명한 것은 이익을
나눈 자가 범인이다, 이익을 나눌 수 있게 만들
어 준 사람이 공범이다, 이익을 못 가지도록 막
은 사람은 적군이다, 제가 그 적군에 해당된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위원장 서영교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박완수 위원 20초만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하
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 말씀하시기 전에?

○박완수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예, 20초만 의사진행발언하고
하십시오.

저한테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박완수 위원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나 답변하
는 이재명 지사께서 과거의 사람들을 국민의힘
당원이다, 국민의힘 쪽에서 만든 거다, 자꾸 이러
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국민의힘에다가 모든 걸
갖다 붙이고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고,
위증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
닌데 국민의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민철 위원 김선교 의원은 맞아요. 현역 의
원이네요.

○박완수 위원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그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지요.

○백혜련 위원 우리가 추천한 것 아니에요, 국
민의당에서 했었지. 우리는 그때 다른 검사를 추
천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국민의힘 전신인데 새누리, 자유한국당 이런 이름인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박완수 위원 팩트니까, 팩트.

○위원장 서영교 그다음에 팩트는 박영수 특검은 어디에서 추천했는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은 아니다 이거고요.

○백혜련 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특검도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정리는 실무진 여러분이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어디서 추천했는지. 그렇게 팩트를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지사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잘한 것은 내가 다 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밑의 부하 직원들이나 산하기관이 다 한 것이다 또 밖에서 잘못된 것은 전부 국민의힘에서 잘못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은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수익을 내도록 사업구조를 누가 설계했나 이게 핵심입니다. 지사님께서 본인이 설계했다고 백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핵심은 지사님한테 있다. 왜 그러나 하면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그것은 수사 과정에 나올 것이고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을 제가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대장동 개발 때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지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예요. 도시개발 주요 사업의 결재권자입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공기업이고 전 과정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대장동 개발의 잘못된 것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 잘못된 개발 방식입니다. 자꾸 공영, 민영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초기에 원주민들 환지 방식으로 민영개발 했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왜 원주민들 환지 방식 안 하도록 해 가지고 시장 취임하고 나서 LH,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영개발 하려는 것 막고 SPC를, 민간개발로 만든 게 바로 지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차는 성남개발공사가 리스크 다 안아 가면서 진행하고 수익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다 누렸다. 아마 지금 서류를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다 시장님 결재하신 사항일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 수익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180 대 1 경쟁입찰로 택지를 공급했는데 화천대유 수익계약으로 다섯 필지 공급하는 바람에 수익 4500억 원 그냥 준 거지요. 이 도시개발 수익계약 택지 공급하는 것은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게, 지정권자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어쨌든 택지를 이렇게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천대유는 택지 수익계약으로 얻은 게 4500억, 배당수익 4040억, 합계 8500억 원의 수익을 아무 리스크 없이 가져갔다.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초과이익 환수 규정 이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당초 실무팀이 보고할 때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촉진법에는 6% 이내의 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도시에 따라서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익 배분은 도시개발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재를 했거나 저는 보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장에 시장의 관리 감독권에 보면 성남개발공사 정관에 중요재산 취득, 처분, 분양가격 모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지휘·감독을 성남개발공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잘못된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평가 문제입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했는데 절대평가 공사 임직원 유한기, 김문기, 정민용, 그것도 지금 실무직원도 아니고 임직원이 3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상대평가에도 유한기, 김문기 두 사람은 똑같이 들어가고 외부 세 사람이 4시간 만에 끝냈지요.

원래 1차 평가 참여자는 2차 평가에 배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유한기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모두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전에 이미 내정해 놓고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안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1차 심사 결과 이 자료에 봤듯이 성남의뜰은 390점 만점에 가산점 4점까지 보태 가지고 만점보다 더 많이 받았고 나머지 컨소시엄은 한참 적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 이익 배분과 의결권 문제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은, 투자는 50%, 금융권하고 93% 투자했지요. 화천대유는 1%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성남개발공사가 금융권하고 31%,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함께 68%, 심지어 70%까지 이익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공공개발에 보통주, 우선주 이것 도입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보통주, 우선주를 도입해 가지고 성남개발공사는 50% 이상 투자했는데 의결권이 없어요. 화천대유는 1% 투자했는데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배분에 성남개발공사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화천대유 마음대로 해요. 성남개발공사는 이익을 25% 내지 30%밖에 안 가지고 가는데 화천대유는 2만% 내지 4만%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도대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도지사께서 경기도가 환수했다고 5000억 개발이익 주장하시는데 도시개발법에 보면 사업자는 공원 조성이나 지하주차장, 관련 도로, 이는 기반시설로서 민간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부채납입니다. 이걸 환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지요.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건세력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야말로 1조 원이 넘는 토건사업 설계하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풀어 준, 몰아준 왕 토건세력 아닙니까?

자꾸 지사님께서 이 사업은 내가 잘 모른다, 실무적으로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시장이고 보고를 받는 사람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모든 서류가 지금 성남시에 아마 전자결재시스템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수사하면 이것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지사께서는 대장동 개발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데 노력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장님,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거꾸로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환수한 공원은 원래 당연히 하는 기부채납이다. 위원님, 시장을 하셨을 텐데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것은 지구 내의 공원이 아니고 본 시가지에 있는 공원이고 지구 내의 공원은 당연히 52%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 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이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법률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것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개발 방식을 했던 것이고 결합개발 방식을 할 때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1공단도 역시 주상복합 지어 분양하려는 토건 투기세력이 있어서 저희가 공원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또 싸워 가지고 결국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소송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기부채납 받는 것을 제가 거짓말한다 이런 취지는 옳지 않다 이 말씀드리고요.

앞 부분에서 환지해서 했으면 됐지 왜 굳이 수용 방식으로 했느냐, 환지하면 남는 게 없고 환지하면 원 소유자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주로 이 환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에서는 환지 방식은 아예 못 하게 막았습니다. 아마 양기대 시장님 아실 텐데 광명 그 지구도 주민들이 환지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환지는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 이익을 주자라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인데 그건 타당치 않다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부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리스크는 땅값이 예상수익률로 가면 업자는 1780억이 남지만 땅값이 예정보다 더 오르면 5%당 920억의 이익이 더 생기고 만약에 땅값이 떨어지면, 경기도가 나빠지면 920억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10%만 땅값이 예상보다 떨어져도 무려 1840억을 손해 보게 되고 그러면 1조 5000억을 투자한 민간업자들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럴 때도 성남시는 4600억, 나중에 1100억 부과한 게 더 있으니까 5500억은 그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성남시에 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완수 위원 민간사업자 입장을 왜 고려합니까?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지.

○경기도지사 이재명 수의계약을 왜 했냐, 이것 수의계약을 하게 한 것은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제가 아까 만들어 드렸는데도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사업자의 택지 수의계약 취득을 허용한 게 2012년 4월입니다.

○박완수 위원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요, 원칙적으로.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조치를 했고 국토부 회신에 의하면 당초 사업제안서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수의계약 해 주는 게 옳다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 이 택지는 85㎡ 이하 주택용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가격으로 팔게 되어 있어서 이 관련 업체는 어디에 팔든지 입찰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추첨을 하는 건데 그 이익의 증감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가사항이라는데 인가사항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있으면 그대로 해 주라는 게 국토부의 해석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원의 징계 사유로 취급될 정도로 애초에 공모한 내용과 또 승인한 사업 신청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다음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라고 합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통제 좀 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면 초과이익 조항을 왜 안 만들었냐, 이것은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김도읍 위원 시계만 들면 뭐합니까, 한정 없이 시간 주면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

평가 얘기하시는데 절대평가 3인, 상대평가 5인이라고 하는데 외부 3인은 그때 관련 업체가 아침에 와서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니까 저도 헛갈리는데 제가 받은 보고서에는 위원장은 유한기 씨가 아니고 외부 인사였다고 합니다. 받은 자료 있으실 텐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익 배분이 왜 민간투자자 내부에서 많이 투자한 사람은 적고 적게 투자한 사람이 많느냐, 이걸 저한테 묻지 말고 주관사인 하나은행, 참여사인 하나은행 계열사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화천대유, SK증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지분과 이익 배분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위례신도시에도 5% 투자하고 이익 50% 받기로 약조한 일도 있고 여기도 우리는 50% 플러스 1주지만 이익은 확정적으로 공원 조성비와 1820억을 받는다, 얼마 남든지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는 옳지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정리하셨습니다. 답변도 다 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실제로 제가 바로 시간 체크는 했는데요. 이번은 조금 길게 하기는 하셨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7분 질문하셨고 5분 55초 답변하셨는데요. 어쨌든 5분 정도 내로 답변하시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동안 답변하신 건 제가 시간을 다 썼는데요. 3분 정도였는데 이 질의에서는 어쨌든 답변하실 게 좀 많으셨는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완수 위원 그러면 저도 질의시간을 더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좀 더 드릴까요? 그러면 오후에 조금 더 하시는 걸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나중에 이재명 지사 발언 총량, 전체 회의시간 따져 봐야 돼요.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CCTV 다 체크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질의했으면 답변도 할 시간은 일정 정도 있어야 되고 또 내용이 다른 때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 지사님, 참 고생 많으시지요.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지방대학 나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지사님이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후보가 되셨는데 각오도 새로울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나 여야가 많은 이야기를 어떤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보다 제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는 50억을 받아도 별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평생 살면서 50억이라는 돈을 모아 보지도 못했지만 뭐 다 쓰면 한 50억 안 됐겠어요, 다 쓴 것 이러면? 참, 저는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한 90% 이상의 분들은 50억이라는 돈을 평생 한 번 보지도 못할 겁니다. 통장에 꽂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고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육칠십 년을, 제가 볼 때는요 권력, 기득권을 가진 카르텔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부 잘나가는 판사들, 일부 검사들, 일부 잘나가는 언론들 이렇게 뭉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기소도 안 되니까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사생활,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국가를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공직에 있으면서 그만두면 퇴직금도 받지요. 그런데 퇴직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들한테는. 이런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의 범죄가 엄청납니다, 액수로 따지면. 이런 세상 이제는 바뀌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용도변경 안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줄 압니까? 재벌이든 누구든, 재단이든 사학재단이든 또는 종교재단이든 전부 다 전 산에 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우연한 기회에 땅값이 오를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용도만 변경되면 때돈을 벌니다. 쓸 땅도 아니에요.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 사학재단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인지, 종교재단이 갖고 있는 땅이 어떤 건지 내가 전부 다 한번 조사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용도가 변경되면 그 용도에 맞게 개발이 됐을 때 이익금을 어쨌든 국가가 환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나라는 땅 투기꾼 됩니다. 맞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맞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가 또 여야가 논의해야 될 것은요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 돈을 환수해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느냐 하는 정책논의를 하는 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맞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땅을 가진 사람도 그야말로 서민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우연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러나 진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유착되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의 가족·친구, 고위 정치인에 또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대기업…… 그제 더 문제지요.

○박재호 위원 지사님,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지사님이 어쨌든 후보로 나오실 때 정확한 공약을 해서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꾸만 화천대유 게이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출마할 거니까 돈이 미리 필요할 거다. 그래서 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것 보고, 그쪽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선거할 때 돈이 별로 필요 없다는 것 다 알잖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돈이 남았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제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서 그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우리 당 모 국회의원께서 다섯 분을 이야기하면서 한 분을 모 언론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 났습니다. 머니투데이 홍선근이라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났는데,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 할 때는 자기가 신세진 분, 몇 십 년 동안 신세를 졌든지, 진짜 나이가 좀 많아서 존경하든지 이런 분이 그분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아니, 그분이라는 것은, 한번 만나 갖고 아무 관계없는 데 그분이라 해요? 우리 대통령도 어디 가면 평범한 말을 하잖아요, 그분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계속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누구냐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국민들이 그 점을 다 살펴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은 이익을, 혜택을……

○박재호 위원 받은 사람이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본 사람이겠지요, 아니면 신세를 진 사람이거나.

○박재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이라도 계좌 추적하고 수사를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특검을 한다 이래 버리면 수사하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서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특검이 수사 다 하고 나서…… 검찰이든 누구든 수사 다 하고 나서 만약에 미진하다, 그때 특검 가면 됩니다. 만약에 양당의 어떤 누가 대통령 돼도 이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같 것 아닙니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특검하자는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사님, 특검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면 되겠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연하지요.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박재호 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오늘 제가 7분 질문의 마지막인데요,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땅 문제 또 지금 대선에 임박해서 이런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우선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지금 국가총생산의 20%에 달한다고 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꿈이 건물주 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금융대출도 많이 해 주고 취득도 쉽게 해 주고 충분히 주택도 공급하고 해야 되지만 투기용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재를 가해서 보유세도 많이 증가시키고, 그것 저항할 테니까 국민에게 모두 나눠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개인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게, 그러면 손해 보게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못 갖게 해야, 가지지 못하게 해야 부동산 투기나 이런 불로소득이 원천적으로 좀 어렵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보수 야당 쪽이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김도읍 위원 민주당이 더 많아요,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전부 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민간개발에 이익 되도록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김도읍 위원 안 그런 척하면서 민주당이 많아.

○백혜련 위원 거기가 많지. 한무경 씨가 농지법만 해도…… 우리 것 다 쳐도 그만큼 안 될 것 같은데.

○박완수 위원 발언을, 이상한 발언을 하고 있네.

○김도읍 위원 마음껏 떠들어 봐요, 마음껏.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리고 자꾸……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제 제가 조금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당시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에서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국민의당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김도읍 위원 정의당도 들어가 있어요, 정의당도 들어가 있어.

○위원장 서영교 예, 그런데 그때 교섭단체 추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팩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야당이 추천한 거예요, 그 당시.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우리는 다른 후보 했어요.

○김도읍 위원 그리고 민주당은 조승식인가 그 사람 추천하고.

○위원장 서영교 예, 그래서 둘 추천안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찍은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도읍 위원 둘 중에 한 명밖에 택할 수 없잖아.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틀어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오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을 시행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갖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여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고 국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이익의 일부를 공공으로 환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위원장 서영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엘시티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개발이익이 약 1조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민간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성남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 중에 공공 환수가 기부채납 7000억을 빼고 5500억 정도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십억을 받았다고 하는 50억 클럽 이야기도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나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해 있다. 그리고 엄청난 부당이익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해 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질문하려

면 위원장석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이것 하고……

○서범수 위원 그러면 발언을 마사지하면 안 되지요.

○백혜련 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정치권도 그리고 또 도지사님도 그리고 또 공직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눈 부릅뜨고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다음 넘겨 봐 주세요.

우선 경기도가 그동안 잘 해 왔다라고 하는 것 중에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또 넘겨 봐 주세요. 청년면접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질문입니까, 지금?

○위원장 서영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나와서 하세요, 앞으로.

○박찬대 위원 나와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 나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서범수 위원 찾아볼게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국민의힘 위원장님들도 다 저기 앉아서 해요.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청년면접수당,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어떤든 이런 과정 속에서 서민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숨통이 트였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동수당을 여야가 다 같이 동의해서 보편적 지급을 하듯이 정치권은 국민의 세금을 다시 국민께 이렇게 잘 돌려드리는 일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청년소득을, 청년수당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은 ‘저것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것 아니야’라고 했지만 어떤든 지금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왔던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청년들에게 어떤 뜻에서 그런 수당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주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이고 이 양극화로 인해서 성장률은 정체되고 있고 이 성장률 정체에 따라서 기회 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 초년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년세대들의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결국은 기회 총량 부족에 따라 경쟁이 전쟁이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적이 되는 이런 암담한 상황인데 여하튼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 대해서 미래와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서, 꿈을 심어 주기 위해서 역량 발굴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알바를 대체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소위 부분적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도입한 게 누구냐, 누가 가장 먼저 주장했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모두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 그게 노인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조금만 떠나고 국가와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이런 기본소득이든 이런 제도들도 신속하게 도입되고 국민의 가처분소득도 좀 늘어나고 경제도 좀 다시 살아나고 불평등도 완화되는 그런 합리적인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렇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잘 돌려드리는 일들을 여야 모두 같이 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도지사님, 팩트 체크하실 것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까 어떤 위원님이신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박완수 위원님 같습니

다.

최초 절대평가는 직원 3명이 참여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에는 5명이 참여했는데 3명이 다 들어갔다 또 위원장도 직원이었다 이렇게, 유한기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공된 자료에, 위원님도 가시고 계신 제공된 자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3명 중에 2명이 직원이고 3명은 외부인사인데 외부인사 중에 민 모라고 하는 한성대 교수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기초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민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꼭 간절하신 겁니까?

○민형배 위원 예, 아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위원장 서영교 30초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제 질의 가운데 활용한 한경닷컴 부동산연구소장 작성 ‘성남 대장지구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본질’이라는 보고서는 이 연구소가 속한 언론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알려 왔습니다. 소장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분석 결과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 보고서는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건설 전문기자인 소장분이 자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경닷컴이라는 언론사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공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공개 범위에 대한 소통에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어서 보충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울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못 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11월 달에 이른바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PFV 이강길 대표에게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조카 조우형을 소개합니다. 조우형은 토지매입자금 불법대출을 알선하고요. 부산저축은행은 1155억을 대장PFV에 대출하게 됩니다. 조우형은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수수하죠. 2011년도에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게 되고 이것이 아주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되지요. 이때 주임검사가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지하시다시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는데 42명이 구속기소가 되고 76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대출 알선자 조우형은 그냥 참고인 조사만 받습니다. 바로 그냥 덮어 버린 거지요.

그 뒤 PPT, 다음 넘겨 주세요.

인물관계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조우형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는데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씨입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은 주지하시다시피 너무나 가까운 형제와도 같은 사이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김만배 씨 누나 천화동인 3호 김명옥 씨는 아주 우연히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집을 사 줍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또 놀라운 사실은 조우형을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PFV 이강길에게 소개하고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와 남옥은 대장PFV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윤석열 전 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조우형 등을 엄벌하고 그리고 불법 대출금을 환수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천문학적인 돈잔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두 번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습니다. 너무 명백한 대출비리 사건인데 이것을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당시 주임검사로써 답변하라’라는 말씀을 두 차례 드렸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야말로 개발이익의 공공환수제 또는 국민환수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오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를 단순히 소유한 것만으로는 개발이익을 취할 수가 없고 거기에는 정·관계 유력자들의 지원과 도움이 불가피한데 여기도 보면 1차에서 살아남게 된 원인은 윤석열 후보의 수사 제외가 원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회수했다라면 이 사람들은 공중분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수원지검 수사 때도 역시 배제된 게 문제고.

세 번째는 공공개발을 했으면 이런 것 다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제도적으로도 봉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려고 하는 성남시의 시도를 당시 국민의힘, 지금도 국민의힘이 맞지요.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당론으로 막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해식 위원 다음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잠깐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초과이익을 왜 환수하지 못 했느냐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사실 짜여진 상황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다시 계약을 하고자 하면 손실부담약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사전확정이익, 550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전확정이익을 대폭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라면 당연히 초과이익이 예상되면 초과이익에 대해서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관청의 일방적 행정처분이 아니고 민간과 협상을 통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상대는 확정이익을 최대치로 준다는 전제에서 계획을 짰고 또 그 전제로 응모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나중에 이익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부를 더 내놔라 하는 것은

공모 조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일단 부당한 주장이고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초과이익에 대해서, 즉 땅값이 예상보다 더 오를 경우에 이익을 나누자고 하면 그러면 땅값이 예상보다 떨어질 경우에 부담을 당신들도 해라라고 하면 저희가 확정이익을 취한다는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상대도 동의할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였던 거지요.

○위원장 서영교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울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이재명 지사께서 대통령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당과 캠프에서 경기도 국감을 수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지사께서 수감을 하기로 결정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결정 잘했다고 보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예.

지금 시원하십니까? 민주당 위원들한테 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답변 잘하고 하니까 시원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이 질문해 달라고 요청한 일은 없고요.

○김도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한 겁니다.

○김도읍 위원 예, 시장님. 사이다는 시원합니다, 먹을 때. 그런데 몸에 안 좋다는 말이 많지요.

지금 시장님, 오늘 종일……

(「지사님」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지사님, 오늘 종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사님이 어떤 말을 하실지 다 예상을 하고 실시간으로 그것을 답변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지금 언론에 풀고 있어요, 반박 자료와 함께. 근거 자료, 통계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추진 못 했다, 그래서 민관 합동 개발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

셨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게 사실입니다.

○김도읍 위원 예,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성남시의회는 새천년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에요, 그것은.

○김도읍 위원 들어보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어요.

○김도읍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도 팩트 체크 한번 하게 자료 좀 뽑아 주세요.

○김도읍 위원 민주당 의원이 이랬어요. ‘LH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 민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자료하고 다 봤어요. 이 속기록만 보면 알아요.

그다음에 오늘 지사님께서 ‘민간이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다. 알려주지도 않고 그 설계 내용은 그분들에게서 들어라’ 이렇게 답변한 것 확실하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분들한테 들어야지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지사께서는 지난 9월 14일 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들 측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확보해야겠다고 해 가지고 1000억 원을 더 받아라. 그래서 제가 시켰는데 920억 더 받았다, 인가 조건 바꿨다’ 오늘도 이 말씀 하셨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실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이 내용을, 그 사람들이 얼마를 가져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말이 바뀌는 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기,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 잠시만 들어봐요. 지난 10월 9일 날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나면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 땅값 올랐다고 잔금 더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또 발언하셨습니다. 그게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또 12일 날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10월 12일 날 기자회견에서 ‘2018년 3월 경기도지사선거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2018년 이후 개발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안타깝게도 없었다’

뭐 이런 거예요. 말이 자꾸 바뀌어요.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권한이 없었다면서 지난 10월 6일에는 경기도가 성남시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플러스 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 추가 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문을 왜 보냈습니까, 이거? 초과이익 더 들어간 것은, 땅값 올랐다고 잔금 더 달라고 하는 것하고 부당하다고 해 놓고.

지금 지사님의 오늘 많은 말씀, 저희들이 가만 두고 보는 것이요, 그게 지사님한테 덧이고 높이 된다. 그래서 지금 캠프에서 이 대장동 Q&A 만 들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제가 81쪽짜리 자료를 만들었어요. 아마 보시면 좀 부끄러울 거예요.

이것 전 언론에다가 제가 뿌릴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게 얼마나 무안할지 그것은 지사님께서 아마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오늘 국감을 잘 하셨습니다.

김용관 위원께서 지금 국제마피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료를 저도 제보를 받았어요. 똑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보를 하면서 어쩌냐, 자기 부친께서 성남시에 정치를 오래하신 누구다. 그 아들인 나는 누구다.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와 내 삶을 걸고 이제는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제보를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장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위원장 서영교 예,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팩트에 기반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다수당이 새정치국민연합이었다 명백한 허위입니다.

○김도읍 위원 아, 그래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2010년에 그쪽 의석이 4석인가 5석인가 더 많았고요.

○김도읍 위원 아니, 2015년.

○경기도지사 이재명 2012년 얘기한 거지요.

○김도읍 위원 성남의뜰 할 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후는 그렇지요, 그 후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2010년도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잠깐만. 저의 발언 좀 하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서영교 예,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성남의뜰이 컨소시엄할 때 2015년 당시 말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팩트는 2010년 당시에 여당이 많았고 그래서 의장 최윤길이라는 사람을 포함한 그쪽일 때였는데 후반기에 의장이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하고 의장이 됐고, 그다음 재선 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게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맞습니다. 2010년도는 뭐하러요, 2015년 성남의뜰 할 때 이야기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두 번째로는.....

이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이제 발언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리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말이 바뀌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게 마치 성남시, 그러니까 공사가 투자하는 법인에게 하라고 하더니 SPC로 하라고 말이 바뀌었다 이것하고 아주 수준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남시가 투자한 법인이 특수목적법인 SPC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바꿨다 하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추가 환수 얘기도 내부에 그들의, 그들 내부의 분배액이 어쨌다는 것을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 한 블록, 성남시 한 블록 사이에 이 71 대 29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민간의 불확정이익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민간 몫이 좀 줄어들도록 저희가 추가 환수를 했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지분을 알아서’는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사퇴 후여서 권한이 없었다’ 사실이지요. 2018년 3월 7일 날 제가 도지사선거를 하기 위해 성남시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제가 2017년 6월인가 7월에 1100억을 추가 부과시키고 2018년 3월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경우 부동산, 예를 들면 분양가

심사를 통해서 분양가를 통제할 여지도 좀 있고, 좀 심하게 하면 제가 920억을 추가 부담시킨 것도 권한에 없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권한이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그때 조치를 못 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번에 했느냐 이것도 또 역시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불합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지도·권고 권한에 의해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부정부패 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게 이번에 최근이기 때문에 그 사정에서 기초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건 아니니까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그것을 지시할 수 있었냐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익이 큰 데다가 부정부패를 했으니까 도지사 권한을 행사하는 게 기존의 입장과는 배치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덧을 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덧을 한번 피해 보도록 할 텐데 아마 국민의힘이 그 덧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만드셨다는데 자료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주시면 제가 볼 텐데요.

오늘 제가 국감에 왜 응했냐,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부정하거나 아니면 제가 질문을 골라내서 답을 못 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해도 될 이 국감에 일부러 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잘된 것이고 역시 잘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리고 조폭 얘기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이 한 페이지에 말 바꾸기는 따로 정리해 뒀으니까 보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부끄러운 줄 알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직 안 부끄러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폭 얘기는 이게 위원님, 누구의 일방적 주장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자회견이나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할 테고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텐데요.

○김도읍 위원 적당한 시기에 할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까 나왔던 그 마피아의

대두목이 이준석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이 최근에 얼마 전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그 이준석이 양심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장이 서울지검장을 할 때 강력부에서 이준석을 잡아 조사를 하면서 ‘자, 이재명이 부패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불러라’ 안 하니까 6년 전에 불기소했던 것 꺼내 가지고 추가 기소하고 또 덮어났던 것 또 기소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진짜로 돈을 주거나 했으면 그때 얘기했겠지요. 그런데 그 두목은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도 얘기 못 한 것을 제삼자가 보고 ‘아, 했다더라’ 그런 게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그때는 못 하고 이제 하겠습니까, 이제.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주 위원 이따 남부지청 가서 고발을 하세요. 그러면 됐지, 뭘.

○위원장 서영교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시율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오늘 수차례에 걸쳐서 이 공영개발을 막은 것은 당시의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성남시 의원들이라는 게 몇 번에 밝혀졌지만 또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10월 7일 날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다음날 이지송 LH 사장은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한다’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남 국회의원이시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통령께 말씀했고 사장도 취임하면서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 않냐’ 이러면서 사업 포기를 종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장동 공영개발은 무산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취임을 하고 공영개발을 추진 또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수당을 점한 성남시의회에서……

그다음 PPT 넘겨 주세요.

그 공영개발을 막기 위해서 했던 발언들과 모

든 행동들은 지금 많이 시의회 의사록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을 소개를 하면 2012년 2월 24일 새누리당 박영일 시의원은 ‘대장동은 민영개발이 원칙, 민영개발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남든 허가를 내줘야 한다. 관이 관여할 바는 없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로 당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공영개발을 반대했는지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이만큼 하고요.

그 마피아 관련한 부분 영상 한번 들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피의자를 불러서 압박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종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뭐냐,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진 못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제가 검찰에서 얼마나 이 이준석 대표를 과잉 수사했는지 찾아보니까 당시에 서른한 번이나 이준석 대표를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단순 도박 불법 사이트 운영한 사람을 이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그 진술을 얻어 내기 위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몇 년 지난 사건까지 탈탈 털어서 가족까지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하고…… 다 무죄났어요, 다 무죄났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것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정말 기자회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인권 침해 사례로 지금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는 징계가 될 것이라고, 이 담당 검사는 징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언론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저는 이재명 지사님 피해자다. 이것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이 정말 압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는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언론이, 당시 국민의힘, 사실 이름 바꿨다고 다른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과거 이름이 새누리, 한나라당 이랬다는 것인데 거기서 방해한 사실은 객관적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그때 당시에 민영개발을 주장했던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드리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도 여기 하나 준비는 해 왔는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부결했고요, 도시공사 설립 3년 가까이 막았고, 심지어 이것 포기 안 하면 예산 의결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 의결을 못 해 가지고 준예산 사태까지 겪었던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해 주신 이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하고 정치 공세를 하신다고 해도 팩트에 기반해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 제시하신 무슨 국제마피아파인지 뭔지 대표가 이준석이라는 것인데 이준석을 통해서 저의 선거를 돕고 뭐 25억을 주었고 그랬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사진, 그 돈을 사진을 찍어 봤다 이런 것인데 만약에…… 그분 그때 제가 사진 한 번 찍은 게 다인데 그 사람하고 인연이라면, 기부를 많이 하니까 저는 다 사진 찍어 왔습니다, 원하면.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징역을 엄청 살게 되고 옛날 사건까지, 무혐의 된 것까지 털어서 막 기소하고 가족들 압박하고 했는데도, 만약에 사실이었으면 당연히 거래하고 얘기하고 협조하고 처벌을 경하게 받았을 텐데 결국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가지고 정말 전혀 터무니없는 이런 허위 주장을 이렇게 국가권력을 활용해서 제기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영교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고 하는 대장동 8500억 먹은 사건, 이 사건 관련해서 자꾸 옛날 이야기, 옛날에는 어땠다, 누가 뭐 한나라당이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 당시에 누가 책임자였느냐,

누가 시장이었느냐, 누가 결재했느냐, 누가 이 틀을 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초에 짤 때 딱 한 조항, 딱 한 조항만 넣었으면 이 일 없습니다. 그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입니다. 왜 이 조항을 안 넣고,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을 쓸데없이 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대장동 게이트 관련된 핵심적인 5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대장동 게이트 복잡해 보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해서 그 차익을 먹은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원주민의 고향을 착취한 것인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1조 이상 들 거라고 봤습니다, 땅 보상해 주는 데. 그런데 3차 협약에 나와 있는 실보상비는 6894억이라서 저기서 이미 3000억이 비는 겁니다. 원주민들 원성 아주 치열합니다. 저한테 찾아오고 김은혜 의원 찾아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입니다.

지금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 평균 분양가 2500만 원에 B1 부지는 3600만 원, 판교에서도 제일 비싼 가격으로 지금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이 개발했으면, 싸게 땅을 수용했으면 싸게 공급을 해야지 이렇게 비싸게 공급해서 고향을 빨아 먹고 있는, 원주민도 고생, 들어간 분도 고생하는 이 구조가 막대한 8500억의 원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대선 공약 중에 100만 호 임대주택 짓겠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신데요. 실제 보시면 법상 25%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서에는 15.3% 짓겠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또 변경을 해 가지고 6.7%밖에 지금 짓지를 않았습시다. 말씀으로는 임대주택 100만 호 짓겠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하시면서 실제로 나온 것은 저기서부터 줄이고 계신데 어떻게 100만 호를 짓겠습니까? 6.7%,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의 53%,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면적이 53%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사실 그 옆에 광교신도시, 광교신도시는 무려 72%가 공공시설 용

지면적입니다. 이렇게 20%p나 차이 나는 것을, 공공시설 용지를 적게 하고 나머지를 팔아먹어서 수익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전부 지금 난리인 겁니다. 편의시설 없다, 공원 없다, 교육시설도 모자라다, 주차장도 없다, 동사무소 지으려고 돈을 주고 땅을 더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의 차이, 이 퍼센트의 차이가 대장동이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려 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나온 수치였습니다.

그다음에 5503억을 공공환수를 했다 이렇게 주사를 하시는데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은 건설사업해 본 사람은 다 알고, 저처럼 공직 30년 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터널은 920억, 이것 5503억 다 부풀려져 있는데 터널은 920억이 아니고 230억이라는 게 지난번 지사님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지요. 공원 지하주차장, 공원 조성 이것 원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업자한테 부담이 되어서 기반시설 하라고 조건만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저 공원은 신흥동 지구에 떨어진 데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더 문제입니다. 대장동에서 번 돈은 대장동에 써야지 왜 엉뚱한 동네 가서 씹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에 지금 기반시설이 모자라고 공원이 모자라고 주차장이 모자라고 하는 불만이 입주한 주민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배당이익 1822억 이것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사님 말씀하시는 임대주택, 1안·2안·3안으로 보고했더니 임대주택 용지는 사지 말고 배당이익은 성남시 정책 방향에 따라 활용하자 해서 주민들 다 나눠 주지 않았습니까? 1000억 나눠 주셨다면서요. 임대주택 지을 돈 그것을 받아 가지고 주민 나눠 줬는데 이게 수익입니까? 1822억은 배당수익이 아닙니다. 배당수익이 아니라 이것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가야 될 땅을 지사님이 뺏어 와서 선거에 활용하신 거예요.

5503억, 전체적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공원조성비 1400억을 군인공제회에 보상했고 조성하는데는 300억 정도 든다고 하니 주차장 포함해도 돈이 많이 빡니다. 이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5503억, 부풀려져 있기도 하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여기 경기도 국장들·실장들 다 나와 있지만 이게 어떻게 환수한 이익입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 그 부관에 조건에 넣으면 되는 것을 억지로 뺏아 와서 이것

다 넣어도 56%밖에 안 됩니다. 광고신도시 72% 따라가려면 신흥동 공원 넣어도 56%밖에 안 됩니다. 훨씬 적게 공공용지 확보한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꾸 옛날 얘기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현재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개발이익 민간이 100% 갖는 민간개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결합개발 방식 또는 민관 합동 방식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에 언론에 칭찬도 많았지만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대적으로 벤치마킹을 수십 곳이 했고 중국의 영현시도 와서 이것 벤치마킹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초과이익 조항을 왜 안 넣었느냐, 이것은 제가 아까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례신도시에서 2억 5000 투자, 5% 투자해서 1100억으로 예정된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했더니 나중에는 300억으로 줄어 가지고, 분양가는 240만 원이 더 올랐는데 300억밖에 안 남았다면서 150억밖에 저희가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비용 부풀리기나 아니면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서 고정해라, 땅값이 떨어지든 사업이 망하든 적자가 나든 관계없이 일정액을 확보해라 이렇게 방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수영 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제가 마저 드릴게요.

○박수영 위원 답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주민에 대해서 보상을 싸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상 가격은 제가 또는 성남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 수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시가를 보상하지요.

그리고 개발사업에는 이주대책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주대책 내용은 장기 거주자, 장기 토지 소유자 이런 우선으로 차등적으로 하라고 지시해서 이 보상 문제 때문에 성남시에 와서 데모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양가 통제를 못 하게 막은 게 바로 국민의

힘 아닙니까? 2015년 4월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가지고 민간에서 분양을 할 때 가격을 통제할 길을 봉쇄했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 그 민간개발 안 했어야지!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을 민간개발을 하게 강제한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제가 공공개발 하려고 했잖아요.

○김도읍 위원 무슨 소리예요? 이 자료에 다 들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서영교 마저 더 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방해하지 마시고요.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거짓말했잖아요! 성남의뜰 컨소시엄 할 때 새천년민주당이 훨씬 많았는데 왜 한나라당 핑계를 대!

○위원장 서영교 김도읍 위원님……

○백혜련 위원 계약 시점으로 따져야지, 계약시점, 법률가면!

○김도읍 위원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경기도지사 이재명 공공개발을 하는 것을 민선……

○김도읍 위원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어.

○경기도지사 이재명 첫 임기 때는 국민의힘이 막았고, 재선 때는 성남시 구조는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정부 방침이 이런 식으로 민간에다 맡겨라고 할 텐데 저희가 어떻게 그 사업을 합니까? 지방채를……

○김도읍 위원 아니, 성남의뜰 대장동 사업할 때의 이야기예요!

○위원장 서영교 김도읍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질의고요. 박수영 위원님께서 질문에 따라 답변달라고 해서 갖고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지.

○경기도지사 이재명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간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토지보상비를 가져야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성남시 예산 규모가 2조 원~3조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조달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 가능성을 해결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못 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개발을 할 수밖에 없게 한 게 국민의힘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 임대주택 비중 얘기는 아까 본인이 만드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만드신 자료 자체에 보니까 그 임대 비율을 낮춘 게 2019년이네요. 제가 그때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거기가 도청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고요. 전국 평균, 전국 평균 토지 비율은 공공택지가 48%, 보통 52% 정도를 분양하는데 여기는 반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이것을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보여 드린 것처럼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에 귀속된 액수는 약 7000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1공단은 이 사업부지 내가 아니라 10km가 떨어져 있는 본시가지입니다. 이 본시가지에……

○박완수 위원 지사님,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기부채납할 수 있어요, 그 지역 아니라도 돼요.

○김도읍 위원 여기 창원시장 출신이에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본시가지에 공원을……

○위원장 서영교 우선…… 이래야지 답변이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지사님.

○박완수 위원 엉터리로 이야기하니까, 엉터리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 계세요, 그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마무리해 주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진실이 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는 거라는 주장은 모르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인 것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사업지구 내고 1공단 부지는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원래는 결합개발을 해서 동시에 하려고 했지만 그게 소송 문제 때문에 분리해서 여기 수익금으로 1공단을 사업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에 의한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군인공제회가 얼마를 보상받았는데 2700억이 어떻게 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해당 지역의 토지는 군인공제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많고 토지 보상액은 2300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 통장 조회해 보면 될 테니까 그 나머지 돈 어디 갔느냐 이런…… 그런 좀 그렇게…… 그런 의혹 제기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나머지는 돈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 마시고, 임대주택을 했어야 된다, 왜 현금으로 받았느냐 이 말씀인데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고 성남시는 이익 배분의 하나의 방식으로 1번, 공원 조성 외의 임대주택 용지 A10 필지를 주거나……

○김도읍 위원 질문한 분이 좀 막아요, 저걸. 반박도 하고……

○김형동 위원 박수영 위원님, 발언권을 달라 그래요.

○박수영 위원 위원장님, 질문은 5분 했는데 답은 도대체 몇 분 하는 겁니까, 지금?

○김형동 위원 발언권을 달라 그러세요, 발언권을.

○경기도지사 이재명 두 번째, 현금 1822억 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협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성남시 예산이 800억 정도가 추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형동 위원 너무하네……

○박수영 위원 위원장님, 너무하시네. 이거 몇 분 됐어요,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성남시의 재정으로 당시에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1830억을 주고 LH에 팔아가지고 LH가 공공주택하고 임대주택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도 안 줘 놓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자료는……

○김도읍 위원 백날 떠들어 보세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니까.

○위원장 서영교 잠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떠들지는 않았습나다.

○위원장 서영교 서로 용어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시간 조절 좀 제대로 하세요, 좀!

○박완수 위원 5분 질문에 7분 답변하고 이게 뭐예요!

○**김도읍 위원**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김민철 위원** 많이 물어보니까 그렇지요, 많이 물어보니까 답변해야지.

○**위원장 서영교** 국민의힘 위원님, 우선 박수영 위원님께서……

○**김도읍 위원** 오늘 이재명 지사의 발언 총량을 우리가 분명히 비교할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김도읍 위원님, 우선 박수영 위원님이 질의를 여러 가지 하시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라고 사실은 말씀을 시작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사님 또한 이쪽 질의도 있고 답변도 사실은 조금 적당히 그리고 명쾌하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또 위원님들은 답변하는 와중에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끊기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서는 답변을 조금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시는 분들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간을 조금 더 조절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답변하는 시간에 서로 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조절을, 시간 조율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주 광산구를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저는 아주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아직도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 봐서 다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개발이익 공익환수 설계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란 것이고 화천대유 게이트의 주역들이 한 민간사업자들의 불로소득 취득 및 배분 설계, 제가도둑설계라고 규정하는 이 설계는 지사님이 아예 개입할 수 없는 구조였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하고도 아무 관련이 있을 수가 없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설계했다고 9·11 테러 설계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재명 지사

가 아닙니다. 그분은 저쪽에 있습니다. 돈 받기로 한 그들에게 그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국감에서 말을 했고 김만배 씨조차도 이재명 시장을 인터뷰한 것 외에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은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이재명 지사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국민의힘이 조작된 표적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만배 씨가 기자 시절에 쓴 칼럼을 분석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왼쪽부터 3개를 제시했는데 사적 친분이 없으면 그냥 직책으로 부릅니다.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과 친분이 있으면 ‘그’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칼럼에서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친분이 없을 때는 ‘조훈현 9단’ 이렇게 부르다가 친분이 생기면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는 습관인 것 잘 아실 겁니다. 그 습관은 글을 통해서 고스란히 물어나게 돼 있습니다. 친분조차 없는 이재명 지사를 김만배 씨가 그 혹은 그분이라고 부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둘러싸고 ‘곽’ 설, ‘홍’ 설, ‘김’ 설 등이 돌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오늘 자주 보이는 얼굴들인데요. 달갑지도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사실은 이 명단은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를 했는데 전방을 향해서 던진 수류탄이 참호 안에서 터진 격이지요. 소위 50억 클럽 명단입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광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천문학적 금액인 50억을 받았다 이것은 너무나무나 널리 알려져서요, 분노를 불러일으켰지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제보가 하나 근래에 들어왔어요. 지난 2013년 6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때 역대 최대 규모인 71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그중에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이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곽 수석이 현지에서 발생한 김 회장의 아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대장동 개발에 함께 할 금융사 혹은 돈줄이 필요했던 김만배 씨는 곽 의원의 소개로 김 회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김 회장이 중국 방문 당시에 진 신세를 갚았다는 그런 제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대학 동문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 수석을 청와대에 천거한 이가 바로 최순실이라는 건데요. 초기 대장동 사건에서 등장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변호인 박영수, 수사검사 윤석열입니다. 대장동의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이때 둘이서 사건을 축소해 덮었다 이런 설이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이 박영수와 윤석열을 연결한 고리가 또 김만배 씨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몸통이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상도 패밀리가 바로 그분이라고 아까 백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패밀리 가운데 그분이 있다는 거지요. 수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돈 받은 자들에게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범인도 모두 다 저쪽에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좇아야 합니다. 도대체 김만배가 챙겨야 할 광상도 패밀리는 누군인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이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단초입니다.

수사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쪽, 그쪽에 범인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지사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지사님은 아무리 봐도 그분일 수가 없는 거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그랬으면 광상도 이런 분한테 돈 드렸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대장동 사업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저 스크린에 보이는 청렴서약서 마련하셨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민형배 위원 그래서 그분일 수가 없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또 돈 받았거나 받기로 한 자가 그분인 겁니다.

지사님, 지난 9일에 지금 보시는 저 청렴 서약 위반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배당금을 환수하는 게 좋겠다고 성남시에 권고하셨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민형배 위원 배당 중단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경기도지사 이재명 일단 미배당이……

○민형배 위원 가능한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법률상으로 가능합니다.

○민형배 위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미배당된 게 있으면 성남 의회에서 투자자에게 지급을 안 하면 되고, 이미 지급한 게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가압류 조치 같은 걸 해서 자금 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대응하라고 한 겁니다.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과 관련해서 좀 추가하면 이게 실체는 한 번도 이런 게 실행된 일이 없는데 청렴 서약을 하고 청렴 서약을 어기면 계약을, 협약을 해지한다 이게 실제로 실행된 예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냥 다 넘어갔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걸 사실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당시 지방 공기업은 대상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게 됐고 그걸 활용해서 부패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즉각적으로 그날 밤에 이 공문을 만들어서 야밤에 보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약을 해지하게 되면 법이론적으로 기존의 협약, 얼마를 나눈다 이게 전부 무효가 돼 버리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라도 나머지 개발이익은 성남의뜰에 다 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성남시 것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만 하면 전부 환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돈을 다 다른 데 써 버렸다면 그것들은 신용불량이 되겠지요, 돌려주지 않고 다른 데로 은닉했다면.

그리고 설게 얘기 자꾸 하시는데 아까 말씀처럼 하나은행이 주관사인데, 제일 돈도 많이 대고 거기 참여사들이 금융기관인데 돈은 당신들이 다 대고 왜 그 안에서 이익 배분을 1% 또는 6%에 게 이렇게 몰아 뒀느냐를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하나은행에 물어야 한대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불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민간이 이득을 가져다면 그것을 다 환수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야가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의힘의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돈다발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저 돈다발은 아까 전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했는데 불과 열흘 전에 공익 제보한 박철민이가 친필로 적은 원본을 보여 줬습니다. 본인하고 친구가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어떻게 전달했느냐, 5만 원과 1만 원짜리 현금 뭉치 5000만 원을 코마트레이드 본사 앞에서 이 지사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 지사 차에 실어 줬다. 가방은 은색 화장품 가방이라고까지 진술하고 있어요. 장 모 씨는, 5만 원권과 1만 원짜리 해서 1억 원입니다.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진술하고 그리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지사의 측근 계좌에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혜련 위원님하고 임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본말이 호도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해서 알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이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술서에 나오듯이 이재명 지사를 국제마피아파에서 보스라고 불려요, 보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씨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의리를 지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씨가 그 마피아파의 총두목이 아니에요. 중간급에 불과하고, 코마트레이드의 대표는 맞고, 여기에 박철민이가 가까운…… 같은 조직원이면서도 밑에 있어요. 박철민이가 지금 양심선언을 하고 공익 제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수사팀이 강압 수사를 해서 얻으려 했던 것을 지금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새로운 의기에 차서,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미안함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까 전에

김도읍 위원님 그대로입니다. 진술서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족 문제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그렇게도 얻고 싶어 했던 그것을 지금 제보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공익 제보로.

그 진술서가 그냥 사본이 아니고 바로 확인된 원본 진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글썄요, 지난번에는 없는 것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재명 지사를 지켜 줄 거라고 믿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참 큰 착각일 수 있다, 사실 큰 위험이 턱 밑에 와 있다 이걸 인식해야 되고.

저보고 면책특권 그러는데 지금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보한 박철민 측과 변호사 측에서 고발 조치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제대로 된 진술 하면 됩니다. 진술하면 되고.

다시 거듭 말하지만 검찰에서 강압했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것을 못 얻었는데 바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서 이제는 터질 때가 되었다라고 공감대가 돼서 이걸 제보한 것이다 이걸 아시면 되고,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걸고 실명과 얼굴을 다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니까 지켜보면 압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세요.

박철민 씨라는 사람이 그러면 허언증이 있어 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국제마피아파가 와해된 것은 사실 이 박철민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는데 그것에 감화를 받아서 내부 제보를 해서 와해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도 광수대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언증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젊은이로서 새롭게…… 12년간 했지만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새롭게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의기 있는 젊은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 장.

아까 전에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했던 이태호가 이준석보다 훨씬 상위에 있어요. 저 이태호 씨가 이준석 씨를 지사님께 소개했다고 아까 진술서에 나옵니다. 그러고 잘 모시고 선거에 도와주라고 상세히 지시를 했지요, 제대로 잘 스폰서도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저걸 잘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볼 때 이준석 씨도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준석과

이태호 이것 보고 있을 거예요. ‘야, 거짓말해도 너무 뻔뻔스럽다’ 열받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덕풍만리’라고 저게 지사님의 좌우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는 덕풍만리가 아니라 ‘악취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옛날 속담에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나랴. 너무나도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퍼지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의 신작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20억 계좌로 제 측근한테 준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용판 위원 그렇게 주장하니까 지켜보면 되겠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요, 말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국회의 품격……

○김용판 위원 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래요.

○위원장 서영교 말씀하실 기회를 확실하게 드리는 것으로 서로 하시지요.

○김용판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래도 국회가 품격을 좀 유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술서를 빼곡하게 쓰고 사진도 찍고 이럴 정성이면 그냥 계좌 탁 주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있다고 하면서 안 주는 걸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본인도 아실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김도읍 위원님께…… 김도읍 위원님, 만약에 이것 사실이다 확신이 드시면 면책특권 뒤에서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하시고 기자회견 하든지 면책특권 밖에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이고, 저런 분이 대통령 한다고…… 고소 대마왕 또 고소고발하려고……

○박완주 위원 들어 보세요.

○이해식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김도읍 위원 참 저런 웅졸한 분이 대통령 한다고 나서……

○박완주 위원 3선 의원씩이나 되어 가지고……

○김도읍 위원 타이밍 봐서 기자회견 할 거예요, 내가.

○박완주 위원 예의를 갖추세요!

○이해식 위원 조용히 해요, 조용히!

○박재호 위원 도지사한테 예의를 갖추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은 경찰에 있을 때 국정원 댓글사건 혐의 없다 이렇게 발표하신 전력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김형동 위원 내용과 관계없는 답변입니다. 의혹 제기와 관계없는 답변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보, 이런 근거 없는 것 가지고……

○박완주 위원 위원장님, 경고하세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민주주의 질서 훼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판 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분 주세요.

○박완주 위원 잘했습니다.

○김용판 위원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김도읍 위원 신상발언 해야 돼요.

○김용판 위원 지금은 허위를 말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김민철 위원 마무리 발언이에요.

○박완주 위원 신상발언.

○김형동 위원 신상발언 해야 됩니다.

○김민철 위원 마무리 발언이니까 진행해 주세요.

○김용판 위원 신상발언 1분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신상발언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떻든……

○김용판 위원 이것은 이 지사께서 정말 제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했습니다.

○박재호 위원 왜 마이크를 쥐요?

○위원장 서영교 잠깐 계세요, 내가……

○박재호 위원 마이크를 주라고 해야 주지, 왜 쥐?

○김용판 위원 저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중간 수사 결과……

이것 1분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김용판 위원님. 시간 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내가 얘기하면 넣으세요.

○김용판 위원 당시 민주당의 고발에 의해서……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이 사람이…… 잠깐……

○박재호 위원 주지 말라니까.

○김용판 위원 윤석열 수사……

이것 뭘니까?

○박재호 위원 위원장님이 주라고 할 때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내가 시간을 넣으라고 하면 넣으라고요.

○박재호 위원 제가 먼저 발언 한번 합시다.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우선 지금 발언은 길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실 기회는 드려야 합니다. 돈 얘기, 조폭 얘기 이렇게 하는데 하는 게 맞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게 있고 그리고 또 김용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도 해야 돼요, 저도.

○위원장 서영교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우리도 들으면 상처 입는데 피감기관이지만 들으면 상처를 다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 나가면 좋겠고, 국정감사의 내용에 한해서 가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거니까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 이 지사께서는 사과하세요. 제가 마치 국정원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1심, 2심, 3심 다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고발에 의해서 윤석열 검사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당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듯이 방금 말한 것은 이것은 심각한 국회의원의 모독이다, 사과하세요.

○박완수 위원 사과하세요!

○김용판 위원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발언 잠깐……

그러면 다 말씀하셨습니다?

○김용판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서영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

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 서영교 그 내용은 아니셨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께서 죄가 있다 없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찰청장 하고 계실 때 국정원 댓글사건을 초기에 혐의 없다고 수사할 잠재된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용판 위원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이야기, 저것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혐의 없다는 말 한 적이 없고…… 1분 더 주셔야 돼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아까 발언은……

○박완수 위원 다른 내용이야, 다른 내용.

○김용판 위원 다른 내용이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발언 내용은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용판 위원 저것은 완전 잘못된 내용이에요.

○박재호 위원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김형동 위원 발언하게 해 주세요.

○김용판 위원 들으세요.

○박완주 위원 20분 뒤에 속기록 확인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쪽 들어요.

○위원장 서영교 속기록 이따가……

○박재호 위원 확인해 가지고 하세요, 확인해서.

○김용판 위원 아니에요, 이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박완주 위원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지금 혼자만 있습니까?

○김용판 위원 혼자만이 아니라 호도하잖아요, 사실을!

○박완주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발언했는지는 녹취가 있으니 기다리시면 돼. 발언은 그때 10분이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김용판 위원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유죄 받았다 그랬는데……

○김도읍 위원 언제, 언제? 지금 바로 바로잡아야지!

○김용판 위원 그것은 국정원 댓글사건이고……

○박완주 위원 위원 발언 듣고 속기록 풀어 주시면 되지.

○**김용판 위원** 1분 주세요. 안 됩니다.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박완주 위원** 뭘 저렇게 자꾸……
안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우선 이재명 지사께서 아까 발언하실 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허위사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들으시면서 그래도 신상발언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린 건데……

○**박완주 위원** 침소봉대하지 마세요.

○**김용판 위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혐의 없다고 발표했는데 나중에 유죄로 발표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위원장 서영교** 다시 한번……

○**김민철 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김용판 위원** 우리는 혐의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서영교** 김용판 위원님 그러면 간단히 30초……

○**김용판 위원** 잘 들으세요. 중간에 우리가 수사한 데서……

○**위원장 서영교** 1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드리세요.

○**김용판 위원** 그것은 지사께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확실히 아십시오.

국정원 댓글사건하고 김용판 댓글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댓글사건은 국정원에서 댓글사건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분석했을 때 과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의 수사였습니다, 국정원 전체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그때 해 보니까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그렇게 댓글, 게시글을 단 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고 그러나 수사를 계속한다 이게 중간 수사결과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제가 했다는 식으로 민주당과 당시에 검찰이 짹짹 됐지요. 그래서 제가 기소되고 1심, 2심, 3심 무죄된 건 아닙니까?

국정원 전체 사건하고 제 사건은 전혀 다르다, 오해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오해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서영교** 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

까 말씀은.

○**김용판 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위원장 서영교** 되셨고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잠깐, 되셨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아까 그런 문제는 신상적인 문제고 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책을 갖고 대장동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일방적인 증언을 듣고 그게 마치 이런 양, 텔레비전 다 보는데 그런 것은 서로 예의 예도 안 맞는 것이고 또 어쨌든 다른 당의 대통령후보로 지금 결정되신 분인데 말도 조금 조심하는 게 안 좋겠느냐. 만약에 우리도 윤석열 후보가 또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그렇게 하면 서로가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문제만큼은 조금 자체를 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저도 신상발언 해야 돼요.

○**위원장 서영교** 신상발언……

아니, 여러분……

○**김도읍 위원** 전혀 관계없이 제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들으면 아프시잖아요. 도지사도 피감기관이지만 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깐……

들으면 또 우리도 사실은 답변을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처럼 되니까 말씀을 전부 다 국정감사, 사실은 제가 정책국감 합시다라고 하고 싶은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1분 하시고 이쪽에서 1분 하시고, 딱 1분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것은……

○**박완수 위원** 아니, 저기는 더 했잖아요, 발언을.

○**박재호 위원** 저쪽 했잖아요. 김용판 위원 했으니까 내가 하잖아요.

○**박완수 위원** 김용판은 신상발언이지.

○**박재호 위원** 나도 똑같아요.

○**김도읍 위원** 나도 신상발언이에요.

○박완수 위원 그러면 나도 하겠어.
 ○박재호 위원 그러면 나도 또 해야겠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지 마시고요.
 ○박완수 위원 저기는 의사진행발언했잖아. 의사진행발언했고 신상발언 아니잖아.
 ○위원장 서영교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김도읍 위원님 1분 하시고 여당에서 1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그러면 나도 1분 하겠어요.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위원님 질의할 시간 많이 남아 계신데 그때 하시면 되지요.
 ○박재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고 끝내세요, 그러면.
 ○박찬대 위원 왜 제 질의시간 앞에서 그러세요? 행안위가 원래 이렇습니까?
 ○박완수 위원 행안위 뭐하러 와 가지고 그래요, 안 오면 되지.
 ○박찬대 위원 처음 왔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박완수 위원 행안위에 왜 왔어요, 안 오면 되지?
 ○위원장 서영교 사실은 이렇게 발언하시면 지사님도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
 ○박찬대 위원 그만하시고요, 제가 기분 전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도읍 위원님 1분, 신상발언하시는 거지요? 1분 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이 지사께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오진 정회를 할 때도 김용환 위원에게 국제마피아 이 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라, 대응하겠다고……
 ○김민철 위원 위원장님 보고 하세요.
 ○김도읍 위원 신상발언이니까요. 김민철 위원님, 신상발언 하나까요.
 조금 전에 제가 또 국제마피아 이야기를 하니까 또 기자회견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의 별명을 고소대마왕이라고 붙여드렸어요.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신상발언만 하세요.
 ○이해식 위원 본인 말씀을 하세요, 본인 말씀을!
 ○김도읍 위원 기자회견을 하면 또 고소하시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참 웅졸하십니다.
 ○박완주 위원 아니, 웅졸이라니요!
 ○백혜련 위원 돈 몇십억을 받았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재호 위원 신상발언 하세요.
 ○이해식 위원 본인 얘기를 해야지. 신상발언이 신상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민형배 위원 자기 얘기 하세요, 자기 얘기.
 ○김도읍 위원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웅졸하기 짝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서울동부구치소 관인이 찍힌 이 진술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박완주 위원 그게 질의지, 신상발언입니까?
 위원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 하시라……
 ○박재호 위원 그게 어떻게 신상발언이예요?
 ○박완주 위원 아니, 웅졸하다니!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서……
 ○김도읍 위원 그렇게 웅졸해 가지고……
 ○박완주 위원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신상발언을 하세요, 위원님.
 ○위원장 서영교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그렇게 웅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적절한 타이밍 봐 가지고……
 ○백혜련 위원 KBS 뉴스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박완주 위원 국감 방해 행위입니다.
 ○김도읍 위원 이 사실 그대로 공개를 할게요.
 ○박완주 위원 공개하세요!
 ○김도읍 위원 타이밍 봐서 기자회견 할게요. 그때 고소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타이밍 보셔서……
 ○김도읍 위원 웅졸하기 짝이 없어, 웅졸하기 짝이 없어요.
 ○위원장 서영교 김도읍 위원님, 그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지 않아야 되는 데……
 ○박찬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니, 아까 신상발언 이쪽에서 하실 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박완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완수 위원 그쪽 하면 이쪽도 해야 돼.
 ○박완주 위원 싫습니다.

○박재호 위원 하지 맙시다.

○박완주 위원 제대로, 저렇게 표현 쓰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안 한다는데 또 뭘 줘요?

○박완주 위원 그쪽이 1분 하면 나도 해야 돼.

○위원장 서영교 ‘옹졸하다’ 이런 표현은 국감장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김도읍 위원 이재명 지사 하는 것에 비하면 점잖은 이야기지요, 제가.

○박재호 위원 어허, 참 진짜……

○박완주 위원 아따, 정말!

○백혜련 위원 그만 좀 합시다!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여야 간사님이 합의하셔서 그런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완주 위원 제대로 된 국감 준비를 해야지 무슨 표현을 갖고서 졸렬하게 정말!

○김도읍 위원 서영교 위원장, 그것 월권이에요.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속기록에서 삭제하세요.

○김도읍 위원 위원이 자기 책임하에 발언하는 것을 왜 위원장이 왈가왈부해?

○박완주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적당히 하세요! 무슨 옹졸하다니 이런 걸 가지고……

○위원장 서영교 신상발언 하신다고 했는데……

○김도읍 위원 신상발언에 대해서 왜 위원장이 왈가왈부하시냐고!

○위원장 서영교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시는 게 맞지요.

○한병도 위원 회의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대 위원 박찬대입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상발언이라 그래서 기대했는데 아무리 봐도 오래되신 분 같아요. 신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작가 회의를 한다 그래서 출판기념회를 갔는데 작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출판기념회 다시 한다 그래서 보니까 재관입니다. 오전과 오후가 질문이 같았던 건 좀 아쉽고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일단 저 만평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에서 돈 보파리를 들고 있는데 눈 작고 머리 해야신 분, 안경은 안 쓰셨네요. 저분이 공익환수금을 당기니까 도둑이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해운대 엘시티가 깜짝 놀라지요. 민간수익 100%, 1조 원이고 공익환수금 0원입니다.

지금 설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준 높은 질문을 쫓아올 수 있을지, 야당의 위원님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칸 밑으로 보시게 되면 최초 2015년도입니다. 성남이 받을 이익을 봤더니 우선주가 1800억이 있고요. 우선주 이전에 원가가 공원이 2600억이 있습니다. 2개 합치니까 성남은 4400억을 가져올 수 있고 민간은 1800억을 예상해서 6200억 중에서 성남이 가져갈 부분이 70%의 환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우선주도 이익이 나야 가져가는 것인데 원가 1로 되어 있는 공원부지 약 2600억은 이익과 관계없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공익환수에 있어서 최우선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익이 나면 우선주로 1800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여기 계신 지사님께서 성남 시장 시절에 다시 1100억을 추가로 가져가는데 터널 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주차장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우선주 1800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남은 5500억을 가져가고 민간은 1800억을 예상했는데 조금의 이익이 늘어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비율은 75% 됩니다.

여기까지 지사님이 설계하신 거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 여기까지가 지사님 설계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박찬대 위원 그렇습니다, 공공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2021년도에 민간 쪽에서 배당 가져간 금액을 보니까 민간, 을로 되어 있는 그 칸을 보게 되면 1800억에서 4000억으로 늘어나게 되지요. 얼마가 늘어나나 봤더니 2200억이 늘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공공 부분은 봤더니 5500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70%에서 58%로 떨어졌지요.

그런데 이 2200억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나 생각해 봤더니 이것은 대장동지역 28만 평에 평당 손익이 100만 원만 변동하면 늘기도 하고 줄어드기도 하기 때문에 평당 100만 원의 이익이 플러스되느냐 마이너스되느냐 정도의 수준이에요.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28만 평에 평당 100만 원이 플러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냐면 2800억의 이익이 발생을 하겠지요? 그러면 1800억에 2800억을 더 하면 민간이 가져갈 금액은 4600억. 그런데 우리는 고정적으로 5500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로 떨어지냐면 55%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시장께서 최초의 공익설계를 할 때 7 대 3으로 설계했던 것이 또 7.5 대 2.5로 갔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6 대 4 정도로 변동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당 100만 원 정도 손실을 본다고 보게 되면 얼마의 손실이 발생하냐면 2800억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민간이익은 1800억 원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이익은 뺏아집니다. 그리고 성남에서는 원래 우선주 1800억 중에서 1000억을 부담하다 보니까 800억이 발생을 해서 성남의 이익은 4500억 그리고 민간의 이익은 뺏, 총계는 4500억, 공공이익은 100% 환수가 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체로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전제가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은 1800억 이익이 남은 경우에 우선주로 받는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최초의 공모된 내용과 협의된 내용은 그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822억은 최저보장치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성남시는 땅 A10 필지 땅 자체 또는 1822억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가 나든지 수익이 확 줄어들면 수익의 얼마가 아니고 1822억 원 이하로 이 토지의 가격이 떨어지면 저희는 1822억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땅값이 오르면 1822억 이상

그들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팔아서 그 대금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적자가 나거나 불리할 경우에는 1822억 원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그것은 최저보장액이기 때문에 오르면 땅을 가지고 떨어지면 1822억은 우선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연히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지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땅값 오르는 줄 알았으면 전 재산 투자에서 땅 샀겠지요, 집 사 냈겠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나쁠 때라서, 제가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어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시의 합리적 예측치에 따라서 하되 더 나빠질 경우의 위험도 피하고 더 올라갈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익을 갖는 것을 전제로 확정이익을 최대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찬대 위원 이것을 가지고 야당에서 몰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민간업자한테 몰빵인가요? 전혀 아니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몰빵은 부산 엘시티 같은 게 몰빵이지요.

○박찬대 위원 이것을 배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면 민간개발 해 가지고 100% 개발이익 가지라고 허가한 모든 단체장들은 배임죄가 되겠지요.

○위원장 서영교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영훈 위원님은 뒤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율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 양평 공흥2지구 개발 특혜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빵은 양평 공흥2지구가 몰빵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ESI&D, 윤석열 장모의 가족회사가 인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2010년도에

변경까지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 줘야, 보면. 그런데 소급 적용까지 이렇게 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수사까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 씨,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 그리고 그 가족회사 간에 부동산 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나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매입을 하지 못하니까 그 장모 명의로 매입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가족회사, 자녀 회사에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 2006년도에 공시지가로 매입했던 금액을 그 당시에, 8년 이후에도 그 금액에 넘깁니다. 그러다 보면 편법증여 의혹도 있고 취·등록세 탈루 의혹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박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민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양평군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민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요.

또 오전에 이렇게 보시면 사퇴 요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보면 고발 사주 사건 그리고 그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그리고 장모 불법 요양, 여기는 이미 3년 실형을 받았지요, 1심에서. 그리고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장모 사건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 있을 때 장모 사건 대응 변호 문건 작성 의혹까지 지금 이렇게 죽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까지 포함된, 본인 플러스 가족까지 이렇게 다 포함된 이런 후보가 먼저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사퇴를 하고 다른 데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심지어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그 군수도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런 다음에 사퇴 요구를 해야지.

이 부분 연루가 됐다고 그래서 오전부터,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 제기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일단 공홍지구는 저희 법률상으로 행정상으로 보면 이게 행정처분의 기한이라는 겁니다, 기한. 기한은 시간이 지나면 실효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효된 다음에 그걸 소급해서 인가를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철 위원 양평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감사 착수를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해서 경기도에서도 문제 있다면 고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사퇴하기 전에 감사 지시는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좀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님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저는 경선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세히 못 했는데 서울지검 지검장을 하실 때 이준석을 압박해서 이재명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먼지털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무혐의 처분돼서 몇 년 전에 기록보존계로 넘어가서 먼지가 쌓이고 있는 사건을 재기해 가지고 다시 하려면 당연히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결재를 받고 보고를 하겠지요.

이미 다 무혐의 처분한 걸 다시 새로 꺼내서 하는데 상급 결재라인이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아까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찰이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서울지검 전체를 저는 지금 당장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민철 위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연루된 의원들이 지금 보면 광안도 의원 아들 50억 그리고 윤희숙 부친 농지법, 다 관련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용인의 정찬민, 인허가 관련해서 뇌물수수 의혹, 이 의원들이 전부 국민의당 의원들이었다는 것은 아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당」 하는 위원 있음)

○김민철 위원 아, 국민의힘.

(「국민의당」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지사 이재명 국민의당이 아니고 국민의 힘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박재호 김민철 위원 질문 마쳤으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호 그만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지사님, 문주현 회장이라고 아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분은 제가 파크뷰……

○서범수 위원 우리나라 굴지의 부동산개발업체 회장으로 계십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파크뷰 특혜분양을 제가 폭로한 사건 때문에 구속됐던 분이지요, 저 때문에.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분이 우리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성남시에 판교 푸르지오월드마크라든지 판교 M타워, 신야탑 푸르지오시티 이런 개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2019년에 동탄2신도시 부지를 매입했고 2020년도에는 파주 운정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동산개발업체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늘상 우리 지사님께서 토건세력의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하시면서 고액 후원금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이 회한하게도 후원금은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도지사한테만 보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또 신경도 안 써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에게만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 아시지요? 2016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 논문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범수 위원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서범수 위원 그때 한창 논란이 있다가 가천대에서 부정 여부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논문 표

절 심사조차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덮어 버렸어요. 그런데 회한하게도 이 문주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그 다음해에 가천대학교에 발전기금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사님과 문주현 회장 그리고 가천대학교에 기부한 시점, 발전기금을 기부한 시점 등을 고려해 보면 뭔가 관계가 있다, 개연성이 있다. 가천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조치를 해 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부가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늘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토건세력 척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부동산개발업자와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내로남불이고 어불성설이고 공염불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답하시고요.

그다음에 국감을 보다가 어떤 분이 도저히 열이 받아서 못 참겠다고 하면서 전달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틀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위원장대리 박재호 서범수 위원님, 그것 트는 것은요 그것은 미리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중단시켜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재호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틀 수가 없어요.

○박완수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재호 아니, 아니요.

○김도읍 위원 조용히 하세요, 줘.

(「마이크를 꺼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재호 사전에 트는 것은 녹음은 안 하기로 했어요.

○박완수 위원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

(「마이크 꺼 주세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재호 질의시간이라도 녹음은 안 하기로 했단니까요. 그러면 상대가 어떤 욕을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지요.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박완수 위원 이것은 질의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질의이고 위원 질의시간이야.

○위원장대리 박재호 아닙니다. 마이크 꺼 주세요.

○박완수 위원 질의시간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장대리 박재호 아니, 질의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해 주면 그것을……

○박완수 위원 아니, 위원 질의 내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재호 아니, 질의 내용이 아니지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서범수 위원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

○위원장대리 박재호 아니, 시간이 아니지요.

○박완주 위원 아니, 여야 합의한 거잖아!

○위원장대리 박재호 그것은 예의에 안 맞는 겁니다.

○박완주 위원 정대택이 다시 부릅시다, 그러면.

○위원장대리 박재호 그것은 말로 하세요, 말로. 말로 하세요.

○박완주 위원 말로 하세요, 말로.

○위원장대리 박재호 말로 하세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호 예, 말로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박완수 위원 시간 더 없어 줘.

(「뭘 줘요, 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재호 아니요, 시간 그대로 줘요. 그대로 줘요. 내가 위원장이야.

○서범수 위원 자, 틀어 주세요. 그러면 말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호 말로 하세요.

○서범수 위원 예.

‘제가 국정감사를 보다가 이 인터뷰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김부선을 우습게 안 것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이 속으리라는 그 무모한,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 위험한 발상이 저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명 씨,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 그 정도로 후진 놈이었어? 나는 당신에게 유명이야.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 순간순간은 진

실이었어. 더 이상 초라하고 구차해지지 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충고 한마디 하는 거야. 당신 63년 토끼띠였다고 분명히 나에게 이야기했지. 당신 조직도 없고 힘도 없고 뺨도 없다고 정치 못하겠다고 평평 올렸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한테 솔직하게 했던 것처럼 전 국민한테 솔직하게 고백해. 그러면 나 당신 용서할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호 질의 마치셨지요?

(「그게 뭐 질의야!」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국정감사하고 아무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김도읍 위원 왜 관계가 없어, 도덕성 이야기하는데.

○위원장대리 박재호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정치의 장에서 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여기가 정치의 장 아닙니까, 여기가?

○위원장대리 박재호 이재명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그게 국정감사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경기도정하고 무슨 상관있냐고!

○위원장대리 박재호 조용히 해 주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첫 번째……

○이해식 위원 아유, 정말. 좀 채신머리 있는 질의를 하세요. 체통을 지키세요, 좀.

○박완수 위원 조용히 하세요. 동료 위원 질의에 왜 그래.

○위원장대리 박재호 그만하고, 시작하세요.

○이해식 위원 그게 국가위임사무예요!

○위원장대리 박재호 아니,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해도해도 너무하잖아!

○위원장대리 박재호 지사님 말씀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들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우선은 문주현 무슨 부동산 하시는 분 말씀이신데요. 일단 이분은 분당의 정자동 지역 용도변경으로 주상복합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을 제가 막다가, 제가 그때 검사 사칭하는 걸 옆에서 도와줬다는 해괴한 제목으로 구속됐던 그 사건에서 분양대행업을 했다가 구속된 분이십니다. 저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한데, 이분이 검정고시 동문회 총회장을 지금도 아주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런데 지금 후원을 했더니 사실은 후원 목록을 뒤져보지 않아서 이분이 했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서범수 위원 정확하게 나옵니다, 2014년, 19년.
○경기도지사 이재명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맞겠지요.

그런데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논문 얘기는, 저는 부정부패…… 제가 쓴 논문 제목이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극복방안 연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분당 정자 용도변경 사건 반대운동을 하다 구속된 후에 도대체 우리 사회에 부동산 부조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도대체 이 사회의 밑바닥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대학원 2년 6개월 다니고 이 부분을 집중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게 2012년에 소위 국정원 분이 가천대를 가가지고 ‘이재명 논문 내놔라, 표절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그 논문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저 이 논문 필요 없습니다. 취소해 주세요’라고 가천대로 제가 송부했습니다. 제가 표절을, 인용 표시를 제대로 못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표절을 인정하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가천대 입장에서 이것 심사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담당 교수는 이 정도면 야간대학원 논문으로는 충분하다 이러면서 심사를 안 해서 지금 학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이력 사항, 제 경력사항에는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2013년 이후로 다 지웠고요.

그런데 이분이 가천대에 기부를 했는지는 제가 전혀 알 수 없고 그것하고, 저는 ‘논문 취소해 주세요. 저 논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력에서 싹 다 지우고 학교로 반납을 했는데 그것하고 이분이 학교에 돈 낸 거하고 뭘 상관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씀이 되는 것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내 소란)

○김도읍 위원 아니, 논문이 반납이 됩니까? 물건입니까?

○서범수 위원 시기적으로 논문 반납이 됩니까, 그게? 지사님, 논문 반납이 되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김도읍 위원 아니, 배웠다는 분이 논문을 반납한다니 그게 뭘 말이에요, 그게?

○위원장대리 박재호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질의하고 답변 됐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 이상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상한 답변을. 논문 반납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무슨 반납을 한단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재호 아니, 이상한 답변 하면 다음에 또 질의시간에 하세요.

○김도읍 위원 논문이 반납이 됩니까, 무슨 물건도 아니고?

○민형배 위원 논문이 취소가 왜 안 돼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반납했다고 그러잖아요?

○서범수 위원 반납했다고, 취소가 아니고.

○민형배 위원 학술지에 다 게재했다 취소하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건데.

○김도읍 위원 반납했다고 그러잖아.

○위원장대리 박재호 보세요!

조용히, 조용히, 지금 회의 중입니다. 우리 국정감사 중입니다.

다음 충북의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석사학위 논문 반납, 취소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천대학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정감사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인사청문회장으로 잘못 방향이 잡히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장동 질의 부족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계시는데 이것이 대단히 모범 사례인 것이 의왕 백운지구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규모나 시기가 대단히 비슷한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이점이 있다면 대장동지구는 사업이익을 먼저 받는 우선주를 택했고 의왕 백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받는 보통주를 택했습니다. 이게 확정이익이나 지분별 배분이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의왕 백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140억 손해를 보는 걸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도 아예 금감원에 들어가서 재무제표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더니 2019년에 407억 배당결의가 됐는데 지분율에 따라서 의왕도시공사에 210억, 고양도시공사에 4.3억 해 가지고 했는데 미지급금이 175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이 여러 개발 사례 중에서 비교 불가하게 비교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판교·하남·위례하고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판교·위례·하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보통주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래가 불확정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를 사전확정 방식으로 정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국민 여러분들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실 바가 있으신 거고요.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민형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에 청렴서약 위반으로 환수조치 권고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간략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환수는 사실 사례가 없고, 청렴서약은 당시 지방공기업은 대상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공무원을 매수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계약협약을 다 해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제 든 비용밖에는 그들은 못 가져가는 것이고 더 가져가는 게 있다면 다 돌려 받게 됩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경기도지사 이재명 실제 성남에서 이미 TF팀을 만들어서 실무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해 가지고 특혜 시비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특혜가 없었다 저희들은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공모지침서에 보니까 하나은행, 메리츠중금, 산업은행 3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임호선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확정이익 부분이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1800억에 대해서 임대주택 용지 제공을 제시했고 부족하면 은행이 책임지겠다. 메리츠중금 같은 경우에 1500억을 제시하면서 부족하면 상호 책임을 하겠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확정액을 낮추자. 누가 봐도 하나은행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부분이 배임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이사회 구성 특혜 부분을 일부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메리츠증권도 3인 이사회를 제시했고 산업은행만이 4인 이사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시했는데 민간에게 유리했다면 2017년도에 1100억의 추가 환수가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특혜 논란도 결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환수한 내용에 비추어서 특혜가 아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본질과 줄기를 자꾸 흔들어서 오해를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공개경쟁 공모를 했기 때문에 하나은행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있었다면 이분들은 배제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1800억을 적자가 나더라도 땅을 주고 금액으로는 이익 중에서 무조건 최우선으로 1800억을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경기가 나빠져서 이익규모가 줄어들면 우리는 1800억을 보장받지만 그들은 적자가 나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된 것이고요. 다른 데는……

혹시 특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임대주택 부지와 현금 우선 지급되는 금액의 관계를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일부 언론도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협약 내용은 땅을 가지든지 1822억 원

을 가지든지 선택한다, 선택은 성남시가 한다, 땅 값이 오르면 우리는 땅을 가지면 되고 땅값이 떨어지면 1822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최종 처리는 저희가 땅을 선택해 가지고 LH에 팔고 1822억 더하기 8억 해서 1830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맞고요.

○위원장대리 박재호 지사님, 이야기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알겠습니다, 질문 중에 있는 거여서.

의왕 백운밸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성남 위례신도시는 약정을 했더니, 비율로 했더니 이렇게 이익이 줄었고 백운밸리는 아까 말씀하신 비율약정의 문제도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사가 아니고 건설사들에게 사업권을 줬기 때문에 건설사가 자금 동원을 못 해 가지고 PF가 늦어졌고 의왕도 시공사가 이것을 보증까지 하면서 미분양분 인수 책임까지 지면서 결국 이렇게 적자가 나 버린 겁니다. 그 점에 비하면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한 게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호 지사님, 이야기 그만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 위원 제가 준비한 질의 전에 아까 지사님께서 애매하게 답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짧게 확인드릴 테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에 있어 지사님은 어떤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시가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영 위원 아니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인사에 있어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세상에는 OX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영 위원 아니, 인사에 있어서 어떤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나 없나의 말을 왜 못 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특정 간부, 그러니까 산하기관 간부 1명을 뽑는데……

○이영 위원 아니, 본인이 그런 중차대한 인사에 개입을 했나 안 했냐를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건 중차대한 일 아닙니다. 산하기관의 본부장을 뽑는 게……

○이영 위원 아니, 인사 개입을 보통 평상시에 하십니까, 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어떤 걸요?

○이영 위원 임용에 있어서 인사 개입을 자주 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인사 개입이 아니라 인사권을 행사하지요.

○이영 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 채용에 있어서, 임명에 있어서 지시나 의견을 전달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임명권자, 본부장 임명권자가 시장인지 공사 사장인지 제가 그것 자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영 위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공사 사장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지사 이재명 공사 사장입니까?

○이영 위원 인사에 개입하셨다고밖에 안 들리고요.

두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개입이 아니라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라니까요.

○이영 위원 아니, 임용이 되는 과정에서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는데, 채용에 관여를 했나라고 물었는데 왜 그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누가 채용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10년 지난 일에……

○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사회 의결사항인 사업협약, 주주협약, 정관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영 위원 따라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런 식으로……

○이영 위원 아니, 못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세부……

○이영 위원 끝까지 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민간의 개발이익 규모나 초과이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것처럼 세상에는 OX만 있는 게 아니고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영 위원 아니, 조금 전까지 제가 7분이나 썼을 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구체적 세부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이영 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의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략적 내용은 당연히 저희가 결과 보고를 구두로라도 받지요, 도시개발사업단이 담당이니까.

○이영 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보여드렸냐면 보통 공사에서 이사회 의결을 하면 성남시 보고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동에 대한 기록물만 빠져 있어서 여쭙봤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모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게 자꾸 저를 왜곡해가지고 말꼬리 잡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이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영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러세요.

○이영 위원 결론적으로 화천대유 설계를 포함한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모든 것은 유동규가 지사님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 거다, 이것은 맞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유동규가……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앞뒤를 빼고 중간을 얘기하면 곡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영 위원 아니, 여기 한글로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화천대유 설계, 대장동 게이트 이것 관련해서 유동규가 지사님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질문 안에 너무 많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모르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예, 아니요’로 합니까? 하나씩 물어보세요, 하나씩.

○이영 위원 그러면, 다시 말을 바꾸시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 때 분명히 이사회는 했지만 그 문건만 쏙 빼서 보고가 안 됐었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협약, 주주협약, 정관 체결에 대한 내용 한 번이라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 기억에는 그런 구체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하나은행이 됐고 거기서 이러이런 정도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 정도……

○이영 위원 그러면 민간의 개발이익 규모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모르시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시에는 몰랐지요. 당시에는 모르고……

○이영 위원 모르셨는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이번에 보도가 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자료로 보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르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민간의 개발이익 규모나 초과이익 설계에 있어서 유동규 혼자 진행했다, 맞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게 유동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이영 위원 아니, 지사님만 참여를 했냐, 안 했냐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 지금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영 위원 제가 1분짜리 질문을 왜 5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 남았는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영 위원 화천대유 설계에 참여하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걸 어떻게 제가 참여했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일을.

○이영 위원 참여 안 하셨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이영 위원 그러면 이 개발이익 규모나 초과이익에 대해서 설계에 참여하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초과이익 설계도 제가 모르는 일이고, 제가 한 일은……

이제 발언 시간이 끝나셨으니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쪼가리를 만들어서 다른 것 만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례신도시에서 우리가 사업을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비율로 정하지 마라. 두 번째, 먹튀 막기 위해서 부제소합의해서 소송 못 하게 해라. 세 번째, 금융사로 선정을 해라. 건설사들이 좀 장난친다. 네 번째, 청렴서약서 받아라, 공개 공모해라. 이런 장치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단과 공사가 있는 합동회의를 제 기억에는 최소 두 번 이상 해 가지고 제가 그것은 지침으로 지시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언론에 제공하신 것 중에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법인 SPC가 해라’라고 명시한 것도 혹시 위탁받아 가지고 민간에다가 허가해 줄까 봐 제가 그것을 방어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세부 내용을 보고할 의무도 없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진행 경과가, 그러니까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영 위원 지사님, 했으면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했으면 안 했지……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답변하는 시간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박재호 답변하세요.

○이영 위원 설명이 너무 깁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사회자가 정하실 일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호 자, 답변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질문을 하셨으니 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들이 무슨 뭐 초과이익 조항을 제안을 했는데 무슨 그것을 채택을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처음 안 사실이고, 저는 당연히 최초 시가 정한 방침대로 고정이익 사전 확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하나은행이, 3개 컨소시엄이 경쟁해서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큰 금융기관이 됐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고 그 후에는 잘 진행됐는 줄 알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에 제가 욕

심을 좀 내 가지고 ‘한 1000억 추가 부과시킬 방법을 찾아라’라고 해서 2년 후 2017년에 1100억 정도 추가 부담시킨 게 그게 다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호 예, 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2018년에 퇴직했고요.

○위원장대리 박재호 지사님, 답변 됐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14시 16분…… 아니, 16시 16분에 ‘거짓이면 벌 받겠다’ 이재명 조폭 연루 제기한 조직원 스스로 얼굴 공개, 조선일보에 나왔고요. 블로그에 저게 막 퍼져 있습니다, 자술서가 벌써. 전 국민한테 제의한 거니까 이것은 국민의힘……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 줄 때도 있었다’ 그리고 아까 현금 뭐 국감장에 했는데 이것을 또 우리 검찰 출신 김도읍 위원님하고 경찰 출신 김용관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세계 해서 오늘 아침 9시부터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김도읍 위원 제보가 왔어.

○박완주 위원 예, 제보.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간단하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검찰도 경찰도 아닌데 현금으로 맞출 때도 있으면 안 맞출 때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계좌 넣어 준 데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좌 추적하고 고발하면 돈 받은 놈이 범인이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계좌를 보여 주시면 되지요.

○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본격 아침에 하던 것.

이 표 중에 사전기대수익 부산 엘시티 7000억, 대장동 6300억. 공공환수 0원, 성남 대장동은 5503억 원 외 플러스 7630, 기부채납했다 이게 아까 자꾸 공공환수가 기부채납이다 주장을 했는데 뒤에 한번 볼게요.

뒷장에 부산 엘시티 토지 헐값 매각한 것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수용을, 여기도 강제수용 2330억에 6억 남겨서 넘겼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걸 안 했다고 지금 지적을 받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토지 폭리 매각했다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짧게.

○경기도지사 이재명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안 했으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이런 얘기도 없었겠지요.

○박완주 위원 자, 토지 용도변경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원래 이게 공공개발할 때 이게 관광지구로 개발하려고, 해운대라 중심미관 여기는 절대로 주거시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시티가 1차 협상 대상되고 이것 중심미관, 일반미관 두 개가 있는데 몽땅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내용이 고도제한을 60m 해제를 400m까지 해요. 처음으로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런 게 배임죄입니다.

○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아까 다 설명을 했지만, 왜 사전이익 확정 방식으로 하셨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자꾸 비율로 해 놓으니깐 비용을 부풀려서 이익을 줄이니깐요.

○박완주 위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남은 4300억, 최소 1800억 받는 방식으로 했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박완주 위원 자,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롯데월드라는 서면평가 8번, 본평가 2번, 환경평가만 1년 10번 받았어요. 아니, 이런 게 특혜 아닌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것 수사하면 아마 대한민국 난리날 겁니다.

○박완주 위원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내부 자료예요. E등급에 F등급, 여기에 왜 침묵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기반시설 부산 시민 혈세 1000억 든 것 이것 뒤에서 한번 밝힐게요. 나머지 중에 토지 폭리 말고는 사전초과이익 특정 블록 이것 한 번 더, 화천대유 수의계약 왜 주셨어요, 다섯 군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국민의힘 정권의 법률 개정이 있었고 그것은 국토부 방침에 따라서 사업협약서에 최초에 제시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완주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세요, 시간이 없지만.

보통주 사후…… 이것은 사후 결과를 갖고 주장을 하는데 성남 위례시 한번 보세요. 7400억에 PFV 50억 50억, 의왕 백운밸리 2조 원 사업 보

통주 50%, 성남 대장동 우선주 50%. 그래서 예상내역 이렇게 됐는데 실제 공공환수 보이시지요? 성남 위례시 150억, 위례 0원, 성남 5500억.

혹시 그것 아세요? 2000년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21년 동안 환수이익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1700억이었다고 합니다, 전국 다 합쳐서.

○박완주 위원 맞습니다. 1768억. 아니, 이것을 잘못했다고 공격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다음 한번 보실게요.

누가 특혜를 줬는지 한번 보세요.

조금 전 얘기했던 대장동 기부채납 얼마 받으셨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도 부지 내가 7000억 이 넘는다고 하고 그 외에……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완주 위원 아까 주장한 5503억 이거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업지구 내.

○박완주 위원 지구 내에 이미 한 것이고 이쪽 1산업단지는 별도잖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협약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완주 위원 이런 것도 모르고 가짜뉴스를 계속 만들잖아요.

○김도읍 위원 전문가들이 들으면 웃는다.

○박완주 위원 잘 들어보세요. 배워 보세요.

부산 엘시티 어떻게 했냐고요. 땅 200평 기부채납했어요. 그러면 누가 특혜 비리 종합세트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부산 엘시티가 문제지요.

○위원장대리 박재호 박완주 위원님 질의시간 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답을 간단하게 좀, 저도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재호 끝내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기회를 잠깐 주시고……

○박완주 위원 저쪽은 많이 주셨는데…… 한 장이 남아 있는데.

○서범수 위원 우리도 많이 남아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재호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

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만 해요, 그만해, 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돈 먹은 자가 범인인데 누구인지 한번 의견을 대주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성남 위례신도시는 지분 5%, 2억 5000 투자해서 1100억의 절반을 받기로 했는데 비용 부풀리기 같은 것 때문에 나중에 300억밖에 안 남는다. 분양가가 평당 240만 원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저희가 소액의 배당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으로 저희가 하게 됐고요.

의왕 백운밸리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것 손실이고.

성남 판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내의 공공시설은 당연히 기부채납받고 이것 말고 개발이익 중에 4300억, 2500억 원은 1공단 부지 매입 및 조성. 1800억 또는 그 땅 임대부지 둘 선택하는 것 합친 1822억 이것은 확보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제가 ‘1100억 더 내라’ 압박하고 인가조건 붙이고 압박해서 더 받아 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법률상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 추가이익을 제가 환수했는데,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저보고 ‘왜 당신 것 아니냐’ 이러면 제가 저한테 뺏었다, 제가 제 돈을 훔쳤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 좀 상식에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호 지사님,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다음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지사님, 제가 이번에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표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 111건에 이어서 경기도 위반 건수 104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100건 넘게 위반한 자치단체 두 곳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처럼 자치단체 스스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고 또 게다가 이 적

은 과태료마저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건 이것은 법이 정한 최소한만 하겠다는 것. 그런데 아까 오전에 답변 때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소신 발언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데 왜 오늘 이 질의를 하나면, 지사께서 평소에 산재 예방을 위해서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 주장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안전 감독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엄정성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자치단체가 산업안전 감독에 이렇게 무감각하면서…… 그러면 지방 유력 기업 대상으로 어떻게 엄격한 감독을 할 수 있을까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지사께서 지자체의 감독권 공유에 앞서서 자치단체 산안법 위반 어떻게 잡을지 대책을 먼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근 경기 지노위랑 중노위에서 산하기관인 경기아트센터 직원 3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사건 아시지요? 아시지요, 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 그래요. 부당해고라고 중노위까지 판정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사측 여기에 불복해서 그분들한테 1인당 940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사님이 누구보다 이 부당해고 당사자의 고통과 어려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할 공공기관이 이렇게 노동위 결정까지 불복하면서 재판 가고 시민의 혈세로 이행강제금까지 내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다음은 저 PPT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랑 올해 전국의 지자체가 자체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약 10조 7000억 원 정도를 편성했어요. 이것은 중앙 매칭 사업비 빼고 순수한 자체 코로나 대응 예산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총 4조 4213억 원, 아까 제가 전체 자치단체 코로나 예산 10조라 그랬지요? 4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큼니다.

저는 코로나 재난 시기 무엇보다 정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경기도 적극재정 잘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경기도와 기초단체 코로나 예산의 95.8%가 기본소득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합금지시설 지원예산 등은 사실 전무해요. ‘없음,

없음, 없음' 보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대응 예산을 많이 쓴 다섯 자치단체를 좀 비교해 봤는데 팬데믹 초기에는 대구나 경북, 서울, 기본소득 제공했어요. 하지만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이나 집합금지업종 지원에 주력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경기도가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난 시기에 재정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아주 구체적인 피해집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소득 상위 12%에다가 돈을 더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그것은 혹시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은 아니었는지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상위 소득자에게 재정을 우선 사용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짚막짚막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 비율이 좀 많다, 그러니까……

○이은주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반.

○경기도지사 이재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위원님 아까 제시하신 그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면 충남이 53건, 경기도가 104건 그런데 사업장 규모나 인구를 대비하면 아마 5, 6배쯤 될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서울은 61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서울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숫자로 따져 한번 판단해 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부당하고 문제는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다 산하기관이지만 독립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노동과 인권의 존중, 시장님의

도정 철학……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또 구체적 현안에 따라 조금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해고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조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가 3조…… 저희가 기본소득 지원해 드린 게 한 2조 6000억 정도고 차액, 상위 소득자 제외된 분들 지원한 게 한 사오천억 이렇게 해서 대개 한 3조 원 좀 넘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은주 위원 아니, 예산 자료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 내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이 어떤 게 옳으냐는 사실은 어떤 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요. 아닌데 다만 저는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러나 경제정책이거나 다른 목표의 정책이라면 그 반사적 혜택은 모두가 누리는 게 맞다. 그리고 특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이 아니라면 상위 소득자, 즉 고액의 세금을 납부한 분들을 제외하는 것은 우리 사회 통합과 연대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위 소득자들도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 10초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재호 아니, 지금 답변 다 끝났고 또 다른 분 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보고 하세요.

○이은주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호 다음은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 지나고 6시간 넘게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에 관한 공방들만 대부분 차지함으로써 물론 설명하시는 지사님도 지치시겠지만 도정에 관련한 정책국감 준비하신 공직자분들 얼마나 참 지치고 계실까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지치고 분노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불법적으로 돈 번 사람이나 벌게 만들고 특혜 주고 개입한 사람들이나 불법 대가로 돈 받은 사람들 수사 중이니까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말씀처럼 진실은 드러나서 불법적인 의혹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재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산안법 위반에 관련한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아까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부분 말씀드렸습시다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력과 예산에도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결코 산업재해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만의 눈높이에서 보면 안 되지 않을까. 대선후보로 선출도 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인력·예산의 한계까지도 넓게 살펴서 국가 위주의 중앙정부 주도의 근로감독, 산업재해를…… 산업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추가로 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 이야기를 하는 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 그리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메가시티, 초광역 행정 협력들이 최근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메가시티 전략들이 결국은 단일 자치행정의 한계, 인구·산업·경제 모든 면에서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오영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경기도는 저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만 따로 떼어 봐도 인구가 국가의 26%가 집중되어 있지요. 1350만이 넘는 인구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49%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 사실상 30% 초반대에서 20% 후반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지사 재임하시는 동안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지속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메가시티 전략들이 이런 발전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거라면 경기도 역시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경기북부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말씀으로 SOC 예산 투입을 하고 또 정책예산에 가점을 주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런 말씀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깨진 독에다가 물 붓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지 않나. 산업 유치나 발전에 있어서 어쩌면 불모지 같은 지역인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중첩 규제로 인해서 불가능한 지역인데,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물고기, 식량 나눠 주듯이 이렇게…… 이런 정책으로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낚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지사와 많이 경쟁을 함께 하신 이낙연 전 대표님과 정세균 전 총리께서 경기북부 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이렇게 분도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중첩 규제 때문이라고 지사께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접경지역이고 수도권정비법 중첩 규제들로 묶여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에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생각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가시티 전략과 더불어서 경기도는 또 국가 차원에서는 수도권이란 이름으로 더 이상 과밀화 되는 것을 이제는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역도 따로 떼어 내서 분도를 하고 그 접경지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이제는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 의견, 지금까지는 많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하셨으면 이제는 그 장기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 아닌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말씀 중에 근로감독을 지방정부한테 위임하면 경기도처럼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경우는 많이 관리하고 다른 데는 안 하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준은 전국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안 지키는 상황이 지금 현재 문제인데 경기도만 더 많이 기준대로 잘 지키면 문제다 이것은 다른 도시에는 도둑이 많은데 이쪽 지역만 도둑을 많이 잡으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제 의견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은 최대한 능력 되는 대로 지켜 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분도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너무 규모가 크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통신과 교통의 발전 때문에 사실은 메가시티로 초광역화하는 게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다행히 이게 너무 대규모이긴 해도 굳이 이것을 쪼개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부분을 일단 고려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경기남부의 재원을 북부지역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SOC 투자 예산도 6 대 4로 북부가 많은 상태고 또 북부의 시민 1인당 재정 사용액도 남부에서 한 십몇 % 이상 떨어져 북부에다 지원하고 있어서 북부가 그나마 견디지만 사실은 분리해 버리면 북부의 재정 상태가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 아까 하신 것처럼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북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 교부세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의, 시도의 재정을 줄여야 됩니다. 거기서 저항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고, 약 8000억 정도의 교부세 지원 대상이 되게 되는데 현재 상태로 갈라 놓으면 그러면 다른 지방정부가 동의하기 어려운데다가 각 시군별로 약 4000억 정도의 재정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규제 완화를 위해서 분도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규제는 분도와 관계없이 수도권정비법이나 아니면 상수원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도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현재 상태로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주민들은 자체 시의 재정이 악화되고, 남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면 북부가 어려워지고, 산업 배치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남부의 개발을 북부 개발과 연계해서 남부 개발 이익을 북부로 넘겨서 파주 산단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는 주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이것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은 승진 기회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는 실제 지금 상태로는 분도가 혜택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를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대 위원 경기 광명시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행정1부지사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 지사님 사퇴하면 권한대행 되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현재 상태로 그러겠지요.

○양기대 위원 그러겠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데 아무래도 지사님 사퇴하고 그러면 정부직 공무원들도 많이 퇴직하고 또 그동안 지사께서 추진해 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라든지 경기지역화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핵심 정책들도 잘 추진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을 텐데 지사님 퇴임 후에 경기도도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기도행정1부지사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병권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양기대 위원 짧게.

○경기도행정1부지사 오병권 저희 경기도 모든 공직자들과 잘 준비해 가지고 경기도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 예, 잘해 주세요.

본 위원도 광명시장을 하면서 40년 버려진 폐광인 광명동굴을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만들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역시 시민들은 단체장이나 또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거나 꼭 필요한 것들을 해 주기를 바라고 또 미래에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나중에 지사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무려 4414억 원을 예산으로 정했습니다. 2만 278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큰 금액

이지요. 또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서 광명과 시흥에서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의 기아차 소하리 공장,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라고 합니다. 이 기아차 소하리 공장이 공장 전체를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그린벨트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공장이 그린벨트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마침 올 2월 무려 384만 평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정되어서 기아차 소하리 공장을 이 신도시에 약 30만 평 규모로 옮겨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지자체 또 기아차 회사 노조 등도 긍정적인 반응이고 문제인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처 장관이나 실무 책임자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인허가뿐 아니라 수많은 제약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을 혁명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할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친환경차 사업은 국가 산업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경기도가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동안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이런 분야도 좀 더 큰 프로젝트 속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국회와 정부 또 관련 기관들, 기업 모두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 또 이런 친환경차를 만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경기도와 또 앞으로의 경기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께서 광명시장을 재선 하셨지요. 재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방행정에 대해서 매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경기도의 상황을 정말 잘 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대대적인 산업 재편을 해야 되고 신산업도 발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학습 시스템도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되고, 기초과학이나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대대적으로 늘려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역시 인프라 구축이지요. 새로운 산업 체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인데 그중의 하나가 전기차 충전소 문제라든지 또는 산업 전환을 위해서 예를 들어 쌍용차 이런 경우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소하리의 기아차 문제도 경기도가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업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양기대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 기업을 보통 유치한다고 하지 납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뭔가 혜택을 줘야지요. 법인세를 감면하든지, 지금 하는 것처럼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토지의 용도를 바꿔 준다든지, 임대료를 적정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 주면 특혜를 줬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와 산업, 경제를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그런 것 안 하면 좋겠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저희가 이제 이 질의를 다 끝내고 나면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 최춘식입니다.

지사님, 아까 답변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서 질의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중에 돈 받은 국민의힘 연루된 사람들 자체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50억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50억 클럽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50억 굉장히 큰돈입니다. 저는 아마 평생 이것 만져 보지 못할 것 같은데요.

50억씩 받은 것이 물론 아주 잘못됐지요. 그런데 이 돈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수천억 원,

1조 원에 가까운 이 돈을 가지고 쓰면서 50억씩 쥐 가지고 10명을 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00억인데 1조 원을 다루는 사람이 500억을 과연 돈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줄 수 있는 돈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돈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숫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실제 이 몸통이 누구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 돈의 액수를 한번 따져 보면 지극히 미미한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질의에 연결하겠습니다.

지사님, 초대 성남도시공사 사장 황무성 씨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최춘식 위원 황무성 씨 임기가 3년인 것도 알고 계시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중도에 그만두셨던 것 같네요.

○최춘식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1년 2개월 하고 그만뒀는데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 시장님이 그만두게 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그분이 계속 계시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셨고 또 유한기 본부장도 사실은 일부러 저희가 채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잘하기를 바랐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어제 채널A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퇴를 종용했다’ ‘누가 했느냐?’ ‘유한기가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명권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다’라는 그 진술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성남시의회 행감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다면서요, 그만둘 때. 마지막 인사를 ‘좋은 사람 골라서 써라’, 기억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네요.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 말이 그대로 나와 있다면 이것은 지사께서 유한기 내지는 유동규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만두게 종용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극상이지요. 위로 총질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아래위가 없는 이런 일들이 성남도시공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던 것이 뭐냐 하면 건의사항을 하나 내게 됩니다. 제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사업 추진하고, 이게 바로 용역인데 결론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 놔습니다. 세 가지를 냈는데 민원 발생 예상 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사업계획 작성 이런 것은 사업의 검토……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안 들려서……

○최춘식 위원 검토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구역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사장에 대한 퇴임 문제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 지사님이 잘라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데 하도 빨리 말씀하시고 발음이 잘 안 들려서 무슨 말씀……

○최춘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걸 한번 하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한번……

○최춘식 위원 그래서 유한기 사장이 여기에서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갑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갔다가 도시공사를 창립해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연관성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한기 사장이 도시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벌써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포천시 내촌면 내리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여기서 거론하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설립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출자금도 논의하고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연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유한기라는 사람은 사실 포천하고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라기는 광주에서 자랐고 지금 거주하는 데는 일산이고 사업은 모든 부분을 성남에서 했어요.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이 어떻게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 가면서 갈 수 있느냐.

또 이력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인 소개에서 본인 소개를 할 때 대장동의 성공적인 사업의 성과를 아주 기가 차게 기록을 해 놔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전제가 되고 성과가 되고 또는 공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장 채점 전형표 보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 심지어 어떤 분은 100점까지 줬습니다, 100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랬을 때 과연 지사님이 거기 가서 똑같은 사업 하라고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일단 포천도시공사는 경기도나 성남시와는 독립된 자치정부이기 때문에 포천도시공사 문제는 포천도시공사 또는 포천시에 다 여쭙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도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엽말단을 왜곡해서 공격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전국적인 경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도시개발 전문가 또는 도시공사 종사자들이 호평했던 일이고요. 포천도시공사도 아마 자체적으로 공사를 만들어서 대장동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관내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 일 이후에 경기도의 각 시군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생겼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유한기 씨의 문제는…… 저는 황무성도 그렇고 유한기 씨도 그렇고 다 외부 전문가를 일종의 영입한 것인데 역량을 평가받아서 포천에 가서 잘 하셨으면 그것도 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율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반전이 자꾸 일어납니다, 반전이. 첫 번째 반전이 처음 화천대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부 의혹 제기가 이재명 지사가 몸통

이고 마치 돈을 지사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문제 제기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딱 이루어진 게 국힘 광상도 아들이 포함되고 이후에 밝혀지는 게 김만배, 박근혜정부 인사들의 50억 클럽 명단이 나오면서 ‘이게 뭐지?’라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최근에 시끄러웠던 게 그분입니다. 그분의 반전이 일어나지요. 그분에 대한 녹취가 공개된 후에 모든 언론 또 야당에서 그분 이재명이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병도 위원 또 그분이 누구냐, 언론에 의혹 제기가 막 퍼졌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법사위 국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이재명이 아니다 해서 반전이 일어나서 요즘 좀 조용해지는가 싶는데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했다가 진실이 하나둘씩 어떤 반전의 계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보면 국제마피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그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시겠어요? 화면이 안 띄워지는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방금 전에 나와서 뭔가 유착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시장님, 2018년 11월 달에 혹시 시장…… 아니셨잖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시장 아니었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을 때입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데 이 사람…… 저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냐면요 시장님도 아니었던 2018년 11월 21일 자, 저 조폭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백혜련 위원 김용환 위원님이 아까 올린 사진이네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네요.

○한병도 위원 올린 사진이,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에 내가 돈 좀 벌었다, 사채업 하고 렌터카 해서 내가 돈 이렇게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올린 사진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렇군요.

○서범수 위원 다르지요. 사진이 다르지. 사진이

달라요. 명함 보세요. 명함 놓여진 위치를 보세요, 명함 놓여진 위치.

○한병도 위원 제가 왜 반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보십시오. 이게……

○박완수 위원 2018년 몇 월이에요?

○한병도 위원 11월 21일입니다.

○박완수 위원 그때는 도지사지, 그때는.

○서범수 위원 돈 위에 올려진 명함 위치를 봐요, 다르지.

○한병도 위원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사실이 아니니까 또 목소리를 높이는구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반전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제가 세 가지 건만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사진이 달라요.

○한병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게 참 답답한 게 이런 식으로 정치공격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사실이 아닌 게 사실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면책특권 제한하는 게 제 목표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면책특권을 명백히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는 처벌하고 배상책임 지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도 위원 방금 전에 띄운 사진 그게 페이스북에 띄운 사진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띄운 사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전에 2018년 11월 21일 본인이 페이스북에 띄웠던 사진은 제가 전에 보인 거고요.

자, 이 사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진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똑같네요.

○한병도 위원 이게 참 답답하고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도…… 처음에 화천대유가 마치고 돈 받은 것을 다 주장을 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 이재명 지사가 관련됐는데 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왜 광상도 이름이 나오지?’ 너무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뒤에 죽 나오니까 이제…… 자, 이렇고.

그다음에 그분도 정말 마치 기정사실화돼서 난리가 났는데 최근 또 반전이 되고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공방들이 이루어지면서 정치 현장에 있

으면서 너무 안타깝고 이런 정치 현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역시, 한병도 위원님께서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세상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전자파일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가 다 나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가짜인 거지요. 참 무모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화천대유 누구 거냐고 전국의 도로가에 현수막을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이재명 상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짝 거뒀어요. 왜 거뒀냐……

○서범수 위원 답변 좀 조절합시다, 위원장님.

○한병도 위원 제가 질의했잖아요.

답변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왜 거뒀느냐 하면 화천대유가……

○김민철 위원 질의자가 듣고 싶대요.

○박완수 위원 듣고 싶어도 끊어야 돼, 위원장이.

○위원장 서영교 지금 엄청난 다른 사진, 그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답변할 시간은 쥐야지요. 이것만 듣고 넘어가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돈을 받은 게 광상도니 원유철이니 그쪽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얼른 치운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장물 나눈 자가 도둑이지요. 이 점들을 우리가 좀 해 주면 좋겠고.

이것은 정말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국민의힘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주질의 할 때 제가 지사님께 통화 내역하고 변호사비 사용 내역하고, 그다음에 통화 내역 관련해서 그 당사자들 표시된 것 제출해 주시라고 위원장께 제출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 것어요?

○김형동 위원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 것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김형동 위원 오전에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 불법으로 구하신 거예요?

○김형동 위원 아니요, 구한 게 아니고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제가 불법 하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 제 것을 달라고요?

○김형동 위원 저는 합법만 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폐북 관련해서는 이게 작성일이 18년 이지 올린 게시물 사진이 몇 년도인지는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혜련 위원 아니, 그때 찍었는데…… 그러면 없이 찍었다는 거예요?

○김형동 위원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백혜련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김형동 위원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돈 벌었다고 올린 거예요, 돈 벌었다고.

○김형동 위원 저 시간 30초 더 주세요.

왜 그러세요?

PT 사진 좀 올려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요.

민간이익 극대화 구조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다 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넘겨 보시지요.

지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12년, 14년, 17년 언론에 등장하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허위사실 공표는 국감장이라도 하시면 안 되는데요.

민간이익 극대화 설계를 내가 했다고 언제 제가 말했습니까?

○김형동 위원 알겠습니다.

‘노른자 땅의 절반은 화천대유가’ 그쪽 제목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이것은 언론사가 뽑은 제목인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김형동 위원 5개 블록을……

제가 질문하는 것 답만 해 주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왜 사실이 아닌 걸 이렇게 화면에 띄워서……

○김형동 위원 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의 명예를 훼손하십니까?

○김형동 위원 지사님, 그냥 그 앞의 것은 철회하고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됐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형동 위원 5개 블록 쪽에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화천대유가? 지사님, 저것 보고받았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전혀 모르지요. 지금 처음 봅니다.

○김형동 위원 처음 본 겁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형동 위원 법률상 토지공급계획은 시장님이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법 읽어 보셨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형동 위원 도시개발법 28조 모르세요?

이 사업의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업의 지정권자는 제가 맞는데……

○김형동 위원 토지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받게 되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 그림은 제가 처음 보고……

○김형동 위원 처음 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다섯 필지를 그들이 수의 계약……

○김형동 위원 앞의 사진 좀 넘겨줘 보세요, 앞에. 여기 보면 다 그림이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림은 있는데……

○김형동 위원 시장님 처음 보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개발계획도의 그림이고……

○김형동 위원 아까 그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개만 묻겠습니다. 지사님, 더 많이 묻지 않을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그러세요.

○김형동 위원 조성된 토지공급계획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아파……

○**김형동 위원** 다섯 블록에 대해서 화천대유에 주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구체적 보고는 기억이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다섯 블록이 화천대유로 넘어갔다는 것은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이번에 제가 알게 됐고요.

○**김형동 위원** 이번에 알게 됐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 2012년부터 지사님이 꾸준히 해왔던 부분인데 다섯 블록이 화천대유로 넘어갔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세부 토지 필지의 매각은 제가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제가 관심 가지는 것은……

○**김형동 위원** 이게 세부입니까? 세대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가 얼마나 이익을 확보할지였습니다.

○**김형동 위원**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사업협약에 따라서 5개 블록이 넘어갔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제 봤습니다.

○**김형동 위원**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다, 어제 알았다.

주주 간 협약서도 본 적이 없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주주 간 협약서는 제가 저번 재판 때 봤습니다.

○**김형동 위원** 사업협약도 본 적이 없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도 재판 때 봤습니다.

○**김형동 위원** 5개 블록에 대해서 화천대유한테 사용하겠다, 출자자가 사용하겠다라는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보고는 받은 일이 없고……

○**김형동 위원** 없지요?

도시개발법 28조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제가 여쭙볼 게 세 개……

○**경기도지사 이재명**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면 나중에 또 뭐 위증을 했느니 그럴 수 있느냐……

○**김형동 위원** 안 그럴게요.

도시개발법 28조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뒷 부분은 얘기를 들으시든지 해야지……

○**김형동 위원** 50만 이상 되는 시장한테 토지 공급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사님, 그 조문을 모르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 개발을 설계하거나 주도하신 분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저도 할 말을 하고 답을 할 수 있게……

○**김형동 위원**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2016년 11월 이 대장동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사용하도록 하는 데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보신 적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결재를 하는데 표지나 제목을 보고……

○**김형동 위원**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지금 사용했다라는 걸 최근에 알았다, 맞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최근에 구체적 필지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형동 위원** 언론보도 보고?

이상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위원장 서영교**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요?

○**김형동 위원** 답변하시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죽 물으셨으니까 답변하실 기회는 줘야지요.

○**김형동 위원** 아니지요. 저는 시간을 딱 지켜서 얘기합니다.

○**서범수 위원** 답변은 다 했지요.

○**위원장 서영교** 답변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규칙은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던가 비슷한데,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성남시가 어떻게 이익을 고정적으로 안전하게 확실하게 확보하느냐고 그 외에 그 토지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실무부서도 있는 것이고 또 담당하는 도시공사도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의해서 다 업무 처리가 됩니다.

박완수 위원님은 시장을 해 보셔서 알 텐데 하루에 보고받는 문서나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은 실무부서, 국·과로 다 위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 있는 부분을 보고, 예를 들면 결재서류가 올라와도 그걸 일일이 다 읽어 보는 게 아니고 계선 라인을 믿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결재권자가 하는 일이지 그 내용을 실무자처럼 다 읽어서 하지는 않잖아요.

○서범수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뭘 책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불법도 아니고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있더라라는 것이고.

제가 재판을 할 때 이 관련 서류 일부를 봤는데 그때는 가짜다, 5503억 확보했다는 것 거짓말이다 이렇게 기소됐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법정에서 화천대유 사장 이 모라는 분이 나왔을 때 저런 회사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분이 와 가지고 저보고 이분이 법에도 없는 920억 강제로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공산당이라고 욕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처분 내역 그런 걸 시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다 했습니다.

○김형동 위원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아니, 시간이……

○김형동 위원 아니, 30초만 주십시오.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백혜련 위원 그러면 다 30초 줘.

○김형동 위원 질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30초만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지금 경기남부·북부 경찰청 다 기다립니다, 오늘. 다 기다리니까 다음에 하시고요.

○김형동 위원 30초만 주세요, 30초만. 30초만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다음에 하세요.

○김형동 위원 제가 언제 시간 어긋 적이 있습니까? 30초만 주세요. 30초만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아이, 위원님.

30초입니다.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 그건 안 됩니다. 공정에 반합니다.

○김형동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는 겁니다, 백혜련 위원님.

○위원장 서영교 30초 하고 끝내세요.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주지 마세요. 그것은 공정에 진짜 반하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 됐습니다. 30초 벌써 지나갔습니다.

○백혜련 위원 다 5분에서 마이크 꺼졌어요.

○김형동 위원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 서영교 30초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지사님께서는 고향 선배님인데 연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대신 고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신 질문했다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Q&A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못 봤습니다.

○김형동 위원 유능한 법률가시니까…… Q&A 잘못됐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서 5개 블록을 이미 수의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 자료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장님, 자꾸 팩트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위원장 서영교 질문하셨으니까 그 팩트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시개발법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사실 계속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경기남부·북부도 그렇겠지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위원장 서영교 아니, 하십시오. 질문하신 것에 대한 팩트 체크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팩트는 국토부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관련 조항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그 택지를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이 명박.....

○**김형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Q&A, 지사님 캠프가 만들어 낸 Q&A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여기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622호, 이게 지금 2015년 3월 17일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박완수 위원** 내가 먼저 해야지 왜 그쪽이 먼저 해?

○**위원장 서영교** 이쪽에서 오영훈 위원님이 빠지시면서 한 분씩 올라갔는데,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그런 정도는 제가 또 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 아까 주질의 때 지사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다른 지역이니까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다, 이것 아닙니다. 개발이익을 받은 사업자는 구역 밖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의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팩트는 개발 방식을 왜 환지 방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인에게 이익을 몰아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주민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면 자손 대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익, 오히려 성남시 입장에서는 유리하지요. 그런데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놓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사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왜 화천대유에 이렇게 이익을 많이 줬나, 왜 초과이익 환수를 결정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깐 도지사님 답변이 그러면 사업자가 손해 보면 어쩌나 이렇게 이야기하

셨는데, 지사님은 공익보다 화천대유 사익을 더 중요시합니까?

요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 사업자 손해 보는 것 절대 보상 안 해줍니다. 사업자가 위험을 당연히 안고 들어오는 것이고 초과이익만 환수하는 것이지 사업자 손해 보는 부분까지 사업협약서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경기도나 성남시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고려했다는 것은 지사님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형동 위원께서 이야기한 수의계약 문제, 화천대유에 다섯 필지 준 것,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그러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들어 있어야 돼요. 경기도가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수의계약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어긋나는 것이예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지사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제가 설계자고 그 개발 과정이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익 배분 계획, 개발계획 이런 것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핵심사항입니다.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결재 사항이고, 시장님이 아까 결재하실 때 일일이 다 못 보고 결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사실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모르고 그냥 결재를 했다 하면 그건 지사님 시장 시절의 책임인 것이고, 성남도시개발 공사도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분양가격 결정 다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오늘 하루 종일 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 모르는 내용이다, 이것은 국감장에서 위증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사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기부채납을 1공단 부지의 10km 떨어진 곳에 ‘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에요,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누가 그런 것 수천억 줘가면서 법률상 의무도 아닌 것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게 했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부채납 형식이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도시계

확사업을 여기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 하나 드리고요.

환지를 왜 안 했느냐, 환지 하면 환지 소유자들이 이익은 보는데 공공환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이고.

세 번째, 왜 화천대유에……

○박완수 위원 환지를 해도 공공환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답을 할 때는 답할 기회를 좀 주세요.

○박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하는 데 제가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몰아준 것은, 몰아주라고 강요한 것은 국민의힘인데 저는 몰아주지 않고 그중에 2015년 기준으로……

○박완수 위원 토지이용계획은 시장의 결재사항이고 시장이 모를 리가 없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2015년 기준으로……

○박완수 위원 수의계약을 한 것도 시장님이 결재한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70%를 환수했다, 현재 기준으로 60%를 환수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박완수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성남개발공사에 대해서 성남시장님이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사항을. 그러면 시장님이 몰랐다 하는 것은 시장님이 직무를 유기했거나 태만히 했거나 그 결과인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신 거고 두 가지 중의 하나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고정하기로 해서 70%가 넘는 예정이익을 시장 환수를 했는데……

○박완수 위원 아니, 이것 사업자의 손해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환수했는데……

○박완수 위원 사업자의 손해를, 손해가 났을 때 어떨 것이냐 그걸 지금 지사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은 맞지……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정된 1773억이 1조 5000억 투자한 민간업자 몫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 있었었는데 이때 기준으로는 저희가 70% 가까이 환수했고, 2017년 6월에 1120억을 추가 환수하면서 거의 한 80% 가까이 육박한 것 같고요.

최근에 땅값이 오른 걸 다 고려해도, 성남시가

취득한 공원부지는 땅값이 안 올랐다고 치고 그렇게 할 경우는 저희가 60% 정도를 환수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미 공모와 응모 그다음에 협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당신들의 몫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 그것도 추가로 나누자고 하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 시도 책임져라라고 할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완수 위원 협약이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협약서에 따라서 하는 건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협약을 하는 과정이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다음에 사익을 우선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제가 사익을 우선했다면 그냥 민간개발 허가해 주고 맡아 버렸지요. 2017년에 1100억 추가 환수 안 했지요. 부산 엘시티처럼 차라리 성남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부대시설 막 해 줬겠지요. 이게 반대이기 때문에 사익 우선했다는 것은 아니고 사익 우선을 하려고 강요한 집단은 국민의힘이었다.

그다음에 경쟁입찰 어찌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원래 도시개발법에요 85㎡ 이하,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 부지는 입찰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감정가로 추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경쟁입찰을 해요? 왜냐하면 경쟁입찰로 부지 가격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겁니다.

○박완수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자는 왜 경쟁입찰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쟁입찰……

○박완수 위원 왜 화천대유만 수의계약을 했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85…… 본인이 아까……

○박완수 위원 모르겠다가 말이 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박완수 위원 아니, 답변이 다르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게.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추첨 경쟁률이 백몇 대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완수 위원 그러면 지사님, 다른 것 다 봐두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갑자기 입찰 얘기를 하시잖아요.

○박완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잠깐 제가 말씀 마저 드리고 하시지요.

원래 규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가격 경쟁을 못 하게 감정가격으로 추첨하게 돼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오늘 말하는 게 다 위증이 될 수가 있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그 5개 필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서 수의계약을 해도 추첨하는 경우와 똑같이 감정가격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박완수 위원 지사님, 그러면 실시계획인가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세요,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왜 제출합니까? 이미 제출된 자료에 다 있어요.

○김형동 위원 없어요.

○박완수 위원 거기에 수의계약이 없대도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규정에.

○박완수 위원 그러면 위증한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85㎡ 이하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책 한번 찾아보면 금방인데 수의계약……

○박완수 위원 아니,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받은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감정가격으로 팔게 돼 있어요. 가격 경쟁이 금지돼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뒤를 돌아보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김형동 위원 아까 하신 답변하고 다른 내용에요, 방금 하신 말씀이.

○박완수 위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 주세요, 실시계획인가 고시.

○위원장 서영교 제가 아까 들은 답변하고는 같은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김형동 위원 달라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좀 찾아서 드리고 팩트 체크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수 간사님, 사실은 박완수 간사님께서 박완수 간사님 질의시간에 이렇게 딱 답변시간을 주셔 가지고 질의시간은 많이 좀 줄었는데……

○박완수 위원 아니,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것 자료를 내 달라고……

○위원장 서영교 예, 자료를 좀 챙겨서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성남시에 요청하십시오. 경기도가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완수 위원 경기도 국감입니다, 경기도 국감. 성남시가 경기도 산하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에다 요청하세요. 왜 자꾸 저희한테 달라고 그러십니까?

○박완수 위원 아니, 성남시가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시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성남시에 요청하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달이야 해 드리지요.

○위원장 서영교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 성남시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성남시에 요청해 주셔서 그렇게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 지금 국감 마지막 질의지요?

○위원장 서영교 예.

○박재호 위원 오늘 모두 여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아까 사진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조금 더 조심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1조라는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당에서 계속 1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도 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고 그것은 국민들이 다 지

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장님께서 만약에…… 도지사님께서 단돈 1원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행하는 친구들 보면 몇십 년을 하잖아요, 한 10년 정도 자기 밑돈 끌고 주변에 다 모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땅을 조금조금씩 사요. 그래서 대장동도 보니까 2011년인가 32%를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샀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사를 딱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옛날에는 좀…… 이강길 씨가 뭐하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작을 했다가 구속이 돼 버리니까, 변호사·회계사들은 구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아마 자기는 못 하니까 넘기고 또 매달 이자가 백몇억씩, 1년에 한 백몇억씩 나가거든요. 이런 일이 참 비밀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매일 시행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도면 하나 가지고 막 온 데 로비를 하며 다니면서 일하다가 안 되면 쫓딱 망하고 되면 일확천금을 버는 이런 나라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이나 국회 앞에 매일 데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서 자기 억울함을. 그런데 우리 국회나 우리 행정부나 또 우리 법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그 유명한 변호사들 전부 다 이런 화천대유에 다 끼어 있고 다 그분들하고 같이 있지 진짜 과연 억울한 서민들 옆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도지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젊은 사람한테 공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사님.

또 오늘 국정감사 마치면서 느끼는 지사님의, 또 지사 이제 그만두실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정리 말씀 삼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할까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위원장 서영교 이따가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하실 기회는 있는데 질문하셨으니까 답변하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따가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는 취지이신가요?

○위원장 서영교 예, 그렇게 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일단은 아까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디 있냐 하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56조 5호에 있습니다, 56조 5호.

○김형동 위원 85㎡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56조 5호 한번 보시고요.

아까 보여 줬지 않습니까? 국토부 유권해석 그것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권력에 기대고 또 야합을 통해서 부당한 기회를 누리고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고 또 거기에 자신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남의 돈으로 남의 힘으로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그렇게 불로소득 얻는 걸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제가 사실 성남시장을 하면서도 파크뷰 특혜 분양, 정자동 용도변경 사건을 보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법과 형식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존재하더라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제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아서 그걸 회수한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게 제 정치 신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학원까지 가서 연구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 대장동 문제도 저는 공공개발을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민간개발하라고……

○김도읍 위원 아니라니까요. 왜 거짓말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민간개발하라고 강요하고 공공개발 반대하고……

○박재호 위원 내 질의시간입니다.

○김도읍 위원 2015년도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렇게 4년을 싸우다가 결국은 중앙정부의 방침이 공공개발은 안 되고 지방채 발행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저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될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지금.

○박완주 위원 누가 거짓말을 해!

○이해식 위원 누가 거짓말을 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결국은 민관 공동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제도 보안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보수 언론

들과 함께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 돈 되는 것은 민간에 맡겨야지. 공공이 개발사업해서 돈 벌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다가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셔서 ‘공공이 환수해야 된다. 공공이 개발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불로소득을 막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제도 보완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로소득 문제로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자금조달해서 수익이 가능한 것은 가능하면 직접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직접 환수할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별도의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니까 제가 그냥 지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위원장 서영교 아니……

○경기도지사 이재명 안 됩니까?

○위원장 서영교 마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수 위원 한 분 더 하실 분이 있어요, 3분 더.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사실 저희가 국정감사 오기 전에 자료 요구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아주 어려운 시기,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 나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는 그 자료 외에 대장동, 화천대유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집중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애쓰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지사가 공약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공약했던 내용의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작년 연말 기준으로 96%인 것 같았고 지금은 전반기·후반기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6월 기준으로…… 98%라고 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과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애쓰셔서 공약 이행률이 98% 정도 됐다고 하니깐 더 힘 있게 일을 하시고요.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대장동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이것 외에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서민을 등치는 기획부동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잘한 일 중에 기획부동산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획부동산 근절 관련한 노력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말씀하신 대로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는 토지 분필 단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 감지를 한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31% 정도 기획부동산 거래가 줄었다는 말씀 드리고.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용 토지 구입을 저희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법인 거래율은 약 80% 가까이 줄었고 또 외국인도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여하튼 경기도에서는 토지 투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꽤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외국인들이 이런 시기에 와서 불법투기를 하는 것을 막아 내는 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인데 그 내용이 어떻든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대한민국 땅 불법투기 확실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배달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아주 힘들어하는데요. 공공배달앱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배달앱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치인들은 그리고 지자체장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지만 공공배달앱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않게 이익이 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또한 격려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
고요.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사랑상품권입
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내 제가 모든 국감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 국가, 기재부에서 이번에는 지
원금을 확 줄인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좋
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자체장분들과 우리
행안위가 함께 기재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만들어 내라고 촉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을 비
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서 요구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 애써 주
신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이 많은 지
적이 있었고 제가 또 잘한 부분을 격려의 말씀도
했습니다.

여야 간사님이 합의하셨습니까?

○박완수 위원 두 사람씩 추가 3분.

○박재호 위원 우리 쪽은 안 된대요.

(장내 소란)

○박찬대 위원 뭐 할 말이 더 있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박완주 위원 가짜 사진이나 올리고.

○박완수 위원 고함 지른 사람 누구예요?

○박찬대 위원 어디다 손가락질하십니까? 창피
한 줄 알아야지.

○백혜련 위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서범수 위원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위원장 서영교 박찬대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
지 마시고요.

○박완수 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질의하겠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게 창피
한 거예요?

○박완주 위원 합의했잖아요!

○이해식 위원 그게 질의입니까? 그게 질의예
요?

○박찬대 위원 뭐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박완수 위원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게 창피한
거야?

○백혜련 위원 그 사진이 창피한 줄 알라는 거
예요, 그 사진이. 국감장서 이렇게 창피한 적 처
음 당했어, 진짜. 조폭이 올린 사진이라고……

○박완수 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
야?

○위원장 서영교 사실은 다 끝내기로 되어 있었
는데……

○민형배 위원 무슨 질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박찬대 위원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뭘?

○김도읍 위원 박찬대 위원, 박찬대 위원!

○박완주 위원 자꾸 왜 이러십니까?

○위원장 서영교 다음 경찰청 국감도 있고 한데
요. 그래도 여야가……

○박찬대 위원 아예 하지 마요. 뭘 해요?

○박완수 위원 우리는 서범수 위원 할게요.

○위원장 서영교 서범수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
습니까?

○박완수 위원 합의했으면 해야지.

○위원장 서영교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박완주 위원 합의를 아침부터 해 놓고서 왜
자꾸 뒤집어요, 별 내용도 없으면서?

○박완수 위원 박완주 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
용히.

○박완주 위원 가짜 사진이나 계속 올리고!

○박완수 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완주 위원 합의를 했잖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하시고
이쪽에서는 박완주 위원님이 하실까요?

○김형동 위원 사진의 진위는 아직 판단이 안
났습니다.

○김도읍 위원 사진이 가짜면 좋겠지?

○박완주 위원 이따 한번 보시자고요.

○김도읍 위원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아니고 아
까 그 재정정책에 대해서 20초, 답변을 못 얻었
어요.

○김형동 위원 정의당도 3분……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러
게 끝내겠습니다, 안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박완주 위원 공작이나 하려고 하고.

○위원장 서영교 서범수 위원님 3분 하시고, 이
은주 위원님 서면으로 해서 받으시고요.

○이은주 위원 저 질의 아닌데요.

○위원장 서영교 다음 경기남부경찰청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누가 하실 건지 정해서 말씀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서범수 위원님, 답변까지 3분 안에 끝내시게 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이것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상자료 상영)

쿠팡 화재사고에 진압 소방관이 실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바로 오시지도 않고 지지자와 먹방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라는 게 있지요? 지사님,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있지요.

○서범수 위원 그게 이때까지 484번이 개최가 됐습니다. 지사님, 과연 몇 번 참여를 하셨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세어 보지는 않았습시다.

○서범수 위원 여덟 번요. 싱글입니다, 싱글. 싱글 기록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이 도민의 안전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도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있으십니까, 지사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답변할까요?

당연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 조치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 행사 참석하고 어디 회의자료 서면으로 받으면 다 될 것들을 거기 회의만이……

○서범수 위원 아니, 그게 행사가 아니지요. 중대본 회의가 어떻게 행사라고 보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회의 많이 간다고 잘하지 않고요.

○서범수 위원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와 연계도 해야 되고 타 자치단체와도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걸 내팽개치고 여기에 참석을 안 해서, 얼마

나 참석을 안 했으면 같은 당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사님께서 앞으로는 업무를 수행하실 때 시민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기도가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16조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연가 내역을 주라는 것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16조~17조 이 정도 됩니다.

○서범수 위원 국비에 대해서 총 책임자인 이재명 지사께서 근태가 어땠는지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연가 내역서를 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사무라면서 안 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제 끝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그런데 도의원을 통해서도 이 자료를 안 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사님의 외부 일정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도정업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것은 뺐는데도 48군데가 있습니다, 48군데. 48일의 외부 일정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사님, 연가 얼마나 썼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답변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답변하시지요. 연가 쓴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어느 부분만 답해라 이것은 위원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제가 결정하면 되지요, 그것은.

○위원장 서영교 서범수 위원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특정 개별 사업의 보조사업 또는 특정 재원을 지원받은 경우, 위임된 경우, 이 경우로 하는 거지 정부가 지원을, 국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정되어 있거나 교부세인데 이 교부세는 법에 교부세와 보조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연가 얼마나 썼냐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런 것은 구분을 하시고……

○서범수 위원 연가 얼마나 썼냐고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구분을 하시고 규정에 따라서 썼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서범수 위원 며칠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리고 국회의원께서는 법을 만드는 분들이니깐 스스로 만든 법 좀 잘 지켜 주시면 좋겠고……

○서범수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내라 하면 내야지요, 도의원이.

○김도읍 위원 그래서 연가 얼마 썼냐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매년 자치사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당한 자료요구하고 이러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실 때도 됐다 그런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게 왜 부당합니까?

○김도읍 위원 그래서 연가 얼마 썼냐고요.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이재명 지사는 자연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경기도지사고.

○박재호 위원 자, 그만하세요.

○김도읍 위원 연가 얼마나 썼는지 왜 말 못 해요?

○박완주 위원 경고 좀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자료요청 중에 국가위임사무와 그리고 국가재정 지원이 있었던 사무 외에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오늘 국정감사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했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도지사를 또 우리 민주당의 대선후보를 모욕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 5000만 원, 우리 오늘 이 사진을 두 번이나 봤던 것 같아요.

넘겨 주세요.

그런데 개명도 했나 봐요. 이쪽은 개명하고 참가하네요. 김건희 씨도 몇 번 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도 개명을 했는지 박정우, 박철민으로

또 개명을 했나 봐요.

○서범수 위원 거기서 김건희가 왜 나와요, 거기서?

○김형동 위원 거기에 왜 김건희가 나오니까?

○백혜련 위원 2018년 11월 21일, 페이스북에 쓴 내용…… 명함에는 진짜 박철민이네요. 두 가지 이름을 다 썼네요. 믿을 수 없는 분이네.

‘1년 전. 정장 한 벌 사서 한 분 한 분 뵙고 조언 얻어 광고회사 창업, 렌터카 동업, 라운지바 창업,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제는 이래저래 업체에서 월 2000만 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보면 맞춤법도 다 틀려요. ‘자리잡을 수 있게—쌍시웃인데 시웃 하나 썼네요—도와주신 멘토분들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다음의 것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그 페이스북에 2018년 11월 25일, 이 사진을 올린 것은 21일이었고 며칠 지난 다음이에요.

(핸드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5일 날은 돈다발 사진을 많이 올려 봤어요, 밑에. 그리고 나서 있는 문구가 뭐냐, ‘8000 투자해서 2주에 수익률 50%, 4000 더 없어서 1억 2000 그대로 가져가실 분’.

카메라로 좀 찍어 주세요.

‘1억 2000 그대로 가져가실 분 조용히 폐매 주세요. 간 보고 재고 찢러 보시려거든 그냥 보고 넘기시고요. 다 투명하게 오픈하고 들어갈 것이고 영어 하지 마시고 100% 1000% 10000% 확실한 수익률이니 찢러 보지 마시고 가능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사람 진술 그대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들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보였다는 게 저는 너무나 창피합니다. 우리 국정감사의 격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 겁니까?

(장내 소란)

○박완주 위원 더구나 야당에서 창피한 줄 알아야지.

○박완수 위원 동료 위원을 그렇게 폄하하는 발언 삼가세요!

○김형동 위원 기다려 보세요.

○박완주 위원 야당에서……

○백혜련 위원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 국회의원이라면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료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완주 위원 내가 수사의뢰 할 겁니다.

○박완수 위원 동료 위원을 그렇게 폄하하면 안 돼!

○박완주 위원 동료 위원이 아니라 가짜를 갖고서 공당에서……

(「사과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서범수 위원 아니, 확인이 안 된 사항을 자꾸 그러지 말고요.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수사의뢰 합시다.

○김도읍 위원 이미 고발돼 있어요.

○백혜련 위원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린 거예요. 기자분들이 다 검증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주 위원 이따 남부청에 가서 내가 정식으로 요청할 겁니다.

○김도읍 위원 이미 고발되어 있어요.

○박완수 위원 이미 고발했으니까 수사하면 나올 거예요.

○박완주 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세요.

○김도읍 위원 손가락질 그만해, 손가락질.

○위원장 서영교 기자회견 하신다고 했으니까 박완주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어디 사채업자 가짜뉴스를 갖고서……

○김도읍 위원 손가락질 그만해. 오늘만 날 아니야.

○박완주 위원 검찰·경찰 출신들이 말이야 사실관계 확인 안 하시고 창피한 줄 아셔야지.

○김도읍 위원 오늘만 날 아니야.

○김형동 위원 기다려 보세요.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재정정책 20초, 위원장님 20초만요.

○위원장 서영교 서류로 얘기하시고요.

○이은주 위원 아니, 서면질의가 아닌데……

○위원장 서영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20초만 재정정책에 대한 것……

○위원장 서영교 백혜련 위원님 질의에는 답변권이 안 하셔도 되겠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생 많으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시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도정 관련 향후 법률안 수립과 예산안 편성 등에 있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모든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장들께 마지막 인사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박완수 간사님, 박재호 간사님을 포함해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

우리 경기도정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지적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 준 점에 대해서 1380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 대장동 관련 사안은 경기도정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국정감사 사항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의문을 가지고 확인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대장동 문제로 오늘 논쟁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논쟁과 국정감사를 통해서 실체가 대부분 드러났고 본질과 줄기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저한테 돈을 줬다는 사건까지 났는데 알고 보니 전혀 아니다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겉가지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막아서 불가피하게 민관 공동개발을 했고 그 속에서도 최초 기준 70%, 이후 현재 기준으로도 최하 60%의 공공이익을 환수한 사례다라는 점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게 80%든, 70%든, 90%든 여하튼 불로소득이 우리 민간개발업자 토건세력에게 많이 넘어갔고 본인들은 그것을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인데 이 돈을 특정 정치인의 자녀들에게 또는 유력 자녀들에게 수십억씩 이렇게 지급하는 상황을 보면서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정말 무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완전히 회수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실감과 이 배제감으로 아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책과 제도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간이 정치권력과 야합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을 대거 취득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 지금 제가 사실 평생을…… 제가 대학원 논문을 부정부패 연구라고 하는 것을 했을 만큼 이 부정부패에 관심도 많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 많은 여러 사람들 중에, 친인척 중에 또는 측근 또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 제가 지휘했던 사람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입이 백 개라도 사실 할 말 없는 일이고 제가 인사권자로서, 관리자로서 저의 부족함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정비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맡기신 권한이 오로지 국민들만을 위해서 청렴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김형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여야 간사님께서 보시고 이게 국감 자료로 어떠한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중에 이해식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위원님 질의 취지에 맞춰 답변서를 작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감사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이재명 경기도 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질의에 임해 주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장소를 이동하여 경기도남부경찰청과 경기도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22인)

김도읍	김민철	김용판	김형동
민형배	박수영	박완수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백혜련	서범수
서영교	양기대	오영환	오영훈
이영	이은주	이해식	임호선
최춘식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박규찬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행정1부지사	오병권		
행정2부지사	이한규		
평화부지사	이재강		
대변인	김홍국		
홍보기획관	이성호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감사관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정국장	김지예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문정희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박성남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가족국장	이순늬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경 제 실 장	류	광	열
노 동 국 장	김	종	구
건 설 국 장	이	성	훈
교 통 국 장	허	남	석
철도항만물류국장	이	계	삼
축 산 산 립 국 장	김	성	식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	원	섭
평 화 협 력 국 장	신	준	영
소 통 협 치 국 장	김	영	철
정 책 기 획 관	허	승	범
도 시 정 책 관	윤	성	진
비 상 기 획 관	이	순	구
경 제 기 획 관	정	도	영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진	수
경기도농업기술원장	김	석	철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윤	덕	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오	조	교
경기도수자원본부장	김	향	숙
경기도건설본부장	한	대	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김	덕	섭
사 무 국 장	김	병	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신	현	기
사 무 국 장	정	용	환